

제 23차 한얼 학술대회 랜선 강연

고조선 문명의 열쇠, 홍산문화와 흑피옥



일시: 2020년 11월 6일 (금) 오전 9시 - 오후 1시
(Los Angeles 현지 시각 11월 5일 오후 4 - 8시)

장소: 서울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VVIP 룸

주최: 사우스 배일로 대학 한얼연구소

후원: 대한 사랑, 한중 흑피옥협회, South Baylo University



한얼 연구소
Han Eol Institute



사우스 배일로 한의대

한얼펴기 실천강령

1. '한얼펴기' 는 중국, 일본, 미국 주도의 사대, 식민, 종속 사관의 폐해를 극복하고, 반만년 전에 '홍익인간 이화세계' 의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단군 고조선이 최초의 우리민족 국가라는 역사관을 널리 알리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2. '한얼펴기' 는 한얼 사상에 담긴 한민족의 고유성과 창조성을 종교, 철학,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에 기여하고, 분단으로 두 세대나 단절된 한민족 통일을 실현하는 목표에 기여한다.
3. '한얼펴기' 는 재미 한인들, 특히 자라나는 이민 2세대, 3세대들에게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주민으로서 주류사회에서의 자기실현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데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 '한얼펴기' 는 미주 각 도시마다 활동지부를 두고 전 세계 한인동포들과 연계활동을 꾀하며, 750만 해외동포들의 정체성 확립과 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단군의 후예로서 같은 혈통과 언어의 뿌리를 가진 몽골, 만주, 남북한, 일본을 잇는 범 동이족 후손들과 연대감이 형성되기를 소망한다.

한얼의 뜻 (Meaning of Han Eol)

한얼이란 곧 우주를 뜻한다. 한얼님은 대종교에서 이르는 단군 하느님이다. 사람의 신성을 '인내천'이라고 일컫는 동학의 요체는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에 하느님의 얼, 단군의 얼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학의 대표 격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관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한얼 연구소가 표방하는 한얼이 꼭 어떤 종교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말 '한'은 '크다' '전체로서의 하나' '하늘'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님'을 붙여 '신'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상제(上帝)로 일컫는 하늘님을 섬겨 왔으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신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전용되었다. 하느님이란 개념을 어떤 특정 종교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뜻을 덧붙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석 류영모 선생은 유불선기 사교회통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우리의 한얼 정신을 발휘하여 '없이 계신 하느님'이라는 엄청난 신관을 정립한 바 있다. 신정일은 1965년 '한얼교'와 '한얼 사상연구회'를 세웠고, 최민홍은 '한사상 연구원'을 통해 위대한 한얼 정신의 회복을 주장했다.

우랄 알타이어 계의 공통 언어인 칸(Khan)은 '크고 위대한 하나로서 만유를 포용함'으로 일즉다의 원리이다. '하나이면서 못 만물이다'라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은 우리 몸의 각 세포마다 동일한 유전자가 각인되어있다는 과학적 사실로도 증명된다. 나의 한얼은 결국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뿌리인 단군의 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한얼의 일상적 의미는 곧 한국인의 고유 정신, 큰 정신, 위대한 정신, 긍정과 포용을 통해 하나로 결집되는 같은 정신(大同)을 뜻한다. 이러한 한얼 정신으로 홍익, 상생, 자존의 정신을 펼쳐나가 우리가 딛고사는 미국 땅 코리안 아메리칸의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한얼펴기 운동이다. 그간 사용해온 '한사상 연구소'의 한이란 형용어에 얼이 빠져 있어 한얼로 개칭한 것이다.

초대의 글



한얼연구소 이사장
박준환 배상

지구촌에 코로나 팬데믹이 극성입니다. 하지만 잠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태양의 아우라인 코로나가 없으면 지구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인간의 노력은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전기력과 전자력을 이용하여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얼 학술대회가 랜선으로 서울과 LA 동시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로 계획되었던 제 23차 한얼학회를 한국에서 재개하게 되어 연구소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행사가 무사히 치루어지도록 한국에서 도움을 주신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 이순선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회장, 김창주 선생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한 논문을 기고해주시고 기꺼이 강연에 임해주신 손성태, 정건재 교수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생활양태가 달라지리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넓혀진 한얼연구소 활동이 앞으로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넘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까지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유라시아를 끌어안고 알타이 어족 후손들과 동류의식을 가지는 일이야말로 대조선의 한얼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2020 - 2024년은 흥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5,000 여년 면면히 이어온 대한조선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공통의 혈통, 언어, 문화를 지닌 전세계 8,300만 동포들에게 한얼역사관이 펼쳐지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한얼연구소 이사장 박준환 Ph.D 拜上

(South Baylo University, California University of Management & Sciences 설립자, 이사장)



한얼 연구소 흥익, 상생, 자존의 한얼 펴기



행사 식순

주제: 인디언의 조상과 고조선 황실 보물 흑피옥 연구를 통한 고조선 문명 탐색
 일시: 2020년 11월 6일 (금) 오전 9시 - 오후 1시 (LA 시각 11월 5일 오후 4 - 8시)
 장소: 대한민국, 서울시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VVIP 실

인사말

사회: 김창주 사무국장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유빈 문화재단 이순선 회장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

빅스톤 픽처스 김한민 감독

한중흑피옥협회 이금화 회장

특별 강연

사회: 박석재 이사장

1:30 - 2:00 '고조선 문명의 열쇠, 홍산문화와 흑피옥' 한얼연구소 김철호 Simon Kim 소장

2:00 - 3:00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민족의 후예' 손성태 배재대 교수

3:00 - 3:30 '흑피옥 문화의 옥문자(玉文字)와 고조선' 정건재 광주과기대 교수 Youtube 동영상

3:30 - 4:30 '古朝鮮 言語 文字 解' 김창주 한중흑피옥 협회 사무국장

4:30 - 5:00 질의 응답

** 특별 강연 후 오찬 및 담화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주최: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학회, 한중 흑피옥협회, South Baylo University 한얼연구소

축하글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

대한사랑은 지난 몇 년 동안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조상의 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방문강연을 해왔습니다. LA 소재 한얼연구소는 심도깊은 연구와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통해 고조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온 단체입니다. 사우주 배일로 대학 박준환 이사장님의 후원으로 지난 23년을 한결같이 한민족 정체성 찾기에 힘써온 한얼연구소가 서울 한복판에서 제 23차 한얼학회를 개최하게됨을 축하드립니다.



桓人 김한민
영화감독,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회 감사

영화 소재를 찾아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해오던 중에 박석재 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과의 인연을 통하여 처음으로 홍산문화 흑피옥 옥기를 접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배달민족의 후손으로서, 흑피옥기에 담겨있는 고대인의 사회, 문화, 정치, 종교 등을 언젠가 제가 만드는 영화의 소재로 쓰고싶은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흑피옥 연구가 세계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한국과 미국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23차 한얼학술대회를 통해 흑피옥에 담긴 고조선의 역사와 언어가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금화
한중 흑피옥 협회
회장

한얼연구소 김철호 소장님은 재외동포로서 지난 수십 년간 흑피옥을 발굴하고 연구해온 한중 흑피옥협회의 노고를 인정 해준 유일한 분입니다.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얼연구소와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어 무한히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김호기
한중 흑피옥협회
연구원

흑피옥의 역사적 의미와 고고 유물로서의 가치는 아직 제대로 평가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흑피옥을 주제로한 한얼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흑피옥이 널리 알려지고, 흑피옥이 발굴되는 홍산문화, 요동 지역을 근거로 세워진 고조선 국가의 실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경 삼일신고의 한얼로 21세기 배달민족의 신명을 펼치자."

기조강연 요지



사우수 배일로 한얼연구소
소장 김 철 호
Simon Kim

재외동포 한얼역사관 한국으로 역수입을 꿈꾸다

논어에 이르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였다.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자연이다. 극미의 세계에 실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이다. 인간을 지구만큼 확대해 놓으면 바이러스는 인간 크기 정도가 된다. 하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류가 생태학적 자각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천지인 자연과 화합함이 하늘에 순종하는 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무릅쓰고 제 23차 한일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것도 한얼연구소가 자리잡은 로스 엔젤리스 South Baylo 대학에서가 아닌, 서울 종로 피카디리에서다. 지난 2월 고조선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여러 학자들이 모여 발표하고 토의하던 곳이다. 이러한 역발상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후천 개벽세계는 어쩌면 인류의 재앙으로부터 자각되는 것이다. 예언가들이 말한 세계의 종말은 문명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얼연구소는 지난 20여년의 학술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얼역사관을 정립하려고 노력해왔다. 한얼은 바로 단군의 별칭이다. 식민 시대사관에 찌들은 한국사학계의 현주소, 일반국민들의 자기비하식 역사상식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가혹한 일제 치하에서 그나마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운 곳은 바로 재외동포들이 개척하며 살아갔던 간도, 만주 지역과 하와이, 남가주 지역이었다. 지금 바른 역사 세우기에도 사정이 그러하다.

삼한 중에 재외동포가 역사 바로세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남한이 하나의 한, 북조선이 하나의 한, 재외동포들이 또 하나의 한. 그렇게 3한이다. ‘고조선 역사 바로 세우기’ (2015), ‘한국인의 시원은 어디서부터인가?’ (2016), ‘고조선 문명이 동아시아 역사 시발점이다’ (2017), ‘한글을 세계인의 소리글자로’ (2018), ‘한겨레의 뿌리 고조선의 세계문명에서의 위상’ (2019). 지난 몇 년 동안 열린 한일학술대회 주제 내용이다.

환단고기는 위서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학회나 학술지에서 언급만 해도 학계에서는 파문이다. 흑피옥 역시 검증되지 않은 위조품 일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함부로 학술적 주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대세다. 사실 고조선의 정통 후예들은 아직도 내몽골 적봉, 조양에 살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들이다. 단군세기의 무대이고, 흑피옥이 발굴된 곳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우하량 흥산문화 지역을 답사했을 때, 적봉 대학의 우건설 교수가 베풀었던 만찬자리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기장죽을 권하며 6천년 전에 조상들이 먹었던 바로 그 음식임을 강조했다.

삼신과 천제문화로 한족, 예족, 맥족을 통합한 고조선이 환단고기 역사서의 주인공이다. 고조선의 후국으로서 북부여가 성립되고, 요동과 요서, 만주 지역에 국가 형태로 자리잡은 제국들, 특히 고구려와 각축한 선비족 연나라도 고조선 역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족과 맥족 그리고 말갈족 연합국인 고구려 또한 당연히 고조선 후예랄 수 있다. 훗날 거란족의 요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청나라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한국만 고조선 역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로는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 국가 요소를 갖춘 고조선의 후손국은 오로지 한국 뿐이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은 한 때 중원을 차지하고 한족들을 지배했지만 이제 중국인으로 동화되었고, 자신들의 영토조차 중국에 헌납한 셈이 되었다. 중국이 분열되고 다시 주권을 회복할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만주 고토는 한국에 의해 회복될 것인가? 그곳을 한국의 영토라고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듯 고조선 역사 점유권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조선문명을 기축으로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써야한다. 환단고기적 역사 상상력과 흑피옥의 고고학적 가치를 살려 대조선을 복원시킬 의무가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2주간 격리 수용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구촌 각지에서 랜선으로 만나는 시청자들과의 교감을 기대한다.

왜 흑피육이 고조선 문명 연구의 열쇠인가?

김 철호 한얼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말: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으로서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한국인의 정체성, 그 시발점은 어디인가? 다음 세대에게 대한 역사정신에 대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역사는 실재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 또는 구조적 모형이다.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최고변수항인 셈이다. 그래서 행촌 이암 선생은 단군세기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역사는 국가의 혼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혼 (정신, 얼) 을 잃은 것이다.”

138 억년의 빅뱅 공간도 내 몸의 연장선에 있다. 인류 탄생 수 백만년의 시간도 내 몸 안에서 구현된다. 그런데 이 순간 우주 전체의 시공간을 사색할 줄 아는 나의 정신은 어디있는가? 불과 5,000 년 역사정신도 못 갖추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정상인인가? 능라도 5.1 운동장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하자.

우리 역사학계는 지난 20 세기 그릇된 역사관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왜소화시킨 과오를 인정하고 벗어나야 할 의무가 있다. 기득권 역사학자들의 직무유기가 한국인들의 바른 역사관,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망쳐왔다. 고학력 엘리트 층들의 완미한 역사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사대사관의 허상과 식민사관의 주술에서 벗어나 바른 한얼역사관을 세워야 한다.

참고: 백조고길의 역사학 방법론 vs. 신채호의 역사학 방법론. 부르크하르트, 슈팽글러, 토인비, 소로킨의 평면 삼각형 역사방법론에 준거점을 두어 삼각뿔 도형 심플렉스(simplex) 제안한 한태동.

1. 재외동포들은 바른 역사관에 목마르다.

** 한얼연구소 2014-1019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2013 년 한사상 연구발표 PTT, 2016 년 홍산문화 방문보고서 ppt 참조. 지난 5 년 간의 한얼학술대회 주제에 드러나 있다.

이형구의 발해문명의 고조선사, **심백강**의 사고전서에 기록된 동이족 주도의 동아시아 역사, **김용운**의 한중일 정체성의 분기로서 백강전투, **이덕일**의 올바른 한사군 영토 인식을 통한 고조선 강역 비정, 가야사 바로쓰기, 문헌고증을 통한 만주 포함된 고려, 조선의 강역 비정. 마침내 **신용하** 선생이 다섯 분의 학자와 함께 **고조선 문명 가설** 세우다.

동아시아 최초 문명, 최초국가임에도 근세 현대사에서 중국, 일본에게 압도당해 스스로 마이너스 역사관에 세뇌된 한국의 식자층, 일반국민들의 역사상식. 역지사지의 사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관, 입체적 조망사관. 문헌고증과 역사유물, 유적지 발굴을 토대로한 근거사관.

예전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었다. 아전인수의 왜곡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지구촌 SNS 시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거짓 위증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역사 투명시대에 걸맞는 열린 역사관, 역사철학이 우선이다. 갇힌사관과 열린사관이 있고, 평면적 일방사관과 역지사지의 입체사관이 있다. **전 인류적 조망사관은 입체사관 열린사관으로 가능해진다.**

2. 동이족, 삼한조선, 단군삼신 세 키워드

대한인의 바른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키워드 셋이 있다. **동이족, 삼한, 단군조선**이 그것이다.

- 1) 먼저 한민족을 주인공으로 동북아시아 고대사를 제대로 쓰려는 한열정신을 세우고
- 2) 사고전서를 바르게 해독하고, 단군세기와 북부여기 등 고대사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동원
- 3) 고조선 특유의 고고 유물들 고인돌, 적석총, 비파형동검, 빗살무늬 토기 등 분포지역 고찰
- 4) 홍산문화 우하량 등의 유적지 유물에 대한 역사적 해석
- 5) 흑피옥 유물, 흑피옥 문자 등에 대한 고고학적, 문화사적, 언어학적 고찰

3. 바뀌어야 할 역사상식.

초등학교로 돌아가보자. 미국 - 서구 - 서양식 역사관점. 헐리우드 백인영화. 아랍인 예수조차 백인.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보자. 지도조차 잘못 그려진다. 영국 기상국 기후 데이터 과학자 닐 카에 연구원 세계지도. 오스만 터키 역사는 소홀히 다루어진다. 터키 돌궐인과 고구려. 훈족과 헝가리.

한중일 동아시아 역사는 겹쳐진다. 사대사관 - 황국사관 - 한열사관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기원 전 2,000 년, 기원 후 2,000 년 **중국의 피해사관**. 대다수의 백제계 이주로 일본국가 형성, 일본서기에 **왜곡된 열등사관**. 중원 정복왕조들. 오호십육국, 수당, 요금원청, 객가인.

요녕성 등지 요서와 요동 지방에는 이미 중국인이 되어버린 1,000 만 만주족 후예들이 산다. 곧 한족으로 동화되는 중국 내몽골 자치주 1,000 만 몽골인의 사례가 증명해주는 것. 800 만 해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 자기정체성도 2-3 세, 60-70 년 후면 끝장이다.

민족 동질성을 이어주는 세 가지는 혈통, 언어, 거주 지역인데 바른 역사가관이 없으면 이도 저도 아니다. 김, 이, 박 씨 성 가진 남미인들 어느 것도 공유하지 못한다. 김씨의 금나라조차 오랑캐 타민족이라 여기는 배타적 외줄기 역사가관의 남한. 알고보면 고조선의 정통후에는 소한인이 아니다.

4.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LA 대한인국민회. 대한사람은 누구인가?

1897 년 대한제국 (우리민족에게 있어 마지막 제국) 성립으로 대한인, 한국인 명칭 시작.

663 년 백강 전투 이후 신라중심의 한반도 내 정치적 통합으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시원.

** 의자왕과 함께 당으로 끌려간 12,000 명의 백제인들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생존, 일본열도로 건너간 200,000 의 백제계 인물들은 다수 엘리트 지배층으로 자리잡았으나 일본인으로 정체성 변신을 꾀함.

부여, 고구려, 백제, 왜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이 한국인의 시원.

몽골, 만주, 한국, 일본 민족 모두가 범동이족의 갈래들이므로 동이족은 한국인의 원시조.

대한 삼한, 대조선: 대동이, 범동이, 소동이.

** 한중일의 결정적 갈래가 된 백강전투 이후에도 소동이 간의 전쟁은 요와 고려, 왜와 조선, 청과 조선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1583 년 여진족 이탕개의 2 만 침범이, 불과 50 여년 만에 홍타이치의 병자호란으로 확대되는 동안 조선인은 무얼하고 지냈나? 1589 녀 기축옥사로 선비 1,000 인 때 죽음, 1624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괄의 난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북방경비 1627 년 정묘호란으로 무너지고 만다.

5. 흑피옥 연구방향 제언

고고학 발굴과 해석, 신화학으로 삼신사상 정립, 역사학 가설과 정설, 골동품 실질 가치 인정.

- 1) 우하량 발굴 천단: 옥기문화 증거 → 흑피옥과 홍산문화, 배달조선 고고학 연결
- 2) 흑피옥에서 문자와 삼신 천제 요소. 종교 신앙. 샤먼 문명 연구. “종교만이 고대사회의 형태를 구성하고, 합리적 확실성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쿨랑주 Fustel De Coulanges 1830-1889 <고대도시> 그리스 로마의 신앙법제도에 대한 연구)”
- 3) 골동품으로서 가치. 소더비 경매 \$145,000 한뼘짜리 여인상

결어: 한얼역사관의 결론. 문헌, 고고유적지, 고고학 유물, 재야학자들의 노고, 기성사학자들의 모순, 모든 걸 총동원하여 새로운 안목으로 플러스 사관을 세워 민족적 자긍심, 차세대 8,000 만 한인들의 자기정체성 확립. 수 억의 범 동이족 민족들에게 옛 대한조선의 기상을 펼쳐 인류공영에 이바지.

** 삼신철학, 칠성사상. 고유의 환도로 유불선기 4 대 종교 포용. 대한조선 토템패 일러스트레이션.

우리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민족의 후예이다-

손성태
배재대학교

1. 신대륙 발견과 멕시코의 역사

- (1) 1492년 콜롬부스는 인도를 찾아가기 위해 스페인에서 출발.
- (2) 1518년 유카탄 반도에서 큰 탐을 발견
- (3) 아스태가제국 방문(1519년), 정복(1521년 8월 13일)

2. 멕시코문명

1) 멕시코 원주민의 모습

● 남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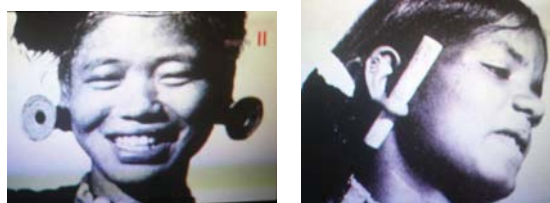
- (1) 상투
- (2) 갓과 두루마기
- (3) 뒤가 없는 수건으로 묶은 모자
- (4) 새깃털 머리 장식



● 여자들의 모습

- (1) 한복과 색동저고리
- (2) 비녀와 쪽진머리
- (3) 붉은 볼연지
- (4) 가체(加髻)
- (5) 머리 장신구
- (6) 봉잠

● 귀고리



2) 멕시코 원주민의 생활풍습

(1) 금줄

(2) 육아풍습: 아이를 업고 다녔다. 젖을 줄 때 짜찌(Tzitzzi)라고 했다.

<Frnacisco López de Gómara, La Conquista de México, p. 450>

Era general costumbre no dar leche las madres a sus hijos el primer día todo entero que nacían, para que con el hambre cogiesen después la teta de mejor gana y apetito; pero mamaban ordinariamente cuatro años consecutivos, y tierras había que doce. Las cunas son de cañas o palillos muy livianos, por no hacer pesada la carga. También se los echan las madres y amas al cuello sobre la espalda, con una mantilla que les coge todo el cuerpo, y que se atan ellas al pecho por las puntas, y de aquella manera los llevan caminando, y les dan la teta por el hombro; huyen de quedarse preñadas criando, y la viuda no se



(3) 점을 쳤다. - 결혼하거나 먼 길로 장사를 떠날 때, 점을 쳐서 날을 받았다.

(4) 고수레

(5) 창포에 머리 감기

(6) 물건 이기와 따베이(또아리)

(7) 지계

3) 멕시코 원주민의 놀이풍습

(1) 팡이치기

* 문화의 전파는 언어의 전파와 함께 이루어진다.

Pepetotl(패패도틀) → pe(패) + pe(패) + to(도) + tl(틀)

뜻 팡 팡 돌(다) 틀(물건)

호남 사투리: 패돌이

- (2) 널뛰기
- (3) 굴렁쇠놀이
- (4) 자치기
- (5) 장대 말타기 (죽마고우 놀이)
- (6) 말타기
- (7) 줄넘기
- (8) 숨바꼭질
- (9) 공기놀이 (작돌받기)

Stuart Cullin, p.179

MEKÛT TOAKÛT

Two women play this game. Five stones that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from rounded pebbles 3 to 4 cm. in diameter (fig. 94) are used. The first player calls one of these "my stone" and tosses it into the air, keeping her eyes fixed upon it while she snatches up one of the other four stones before the first falls. After all are picked up in this way she begins again and picks up two at a time, then three and one, then all at once. If she proceeds thus far without mistake she wins the game. The next game is more difficult. The named stone is tossed up as before, but those remaining are shoved under an arch formed by the thumb and middle finger with the first finger crossed over the middle one. The stones are pushed under the arch in the same order as in the first game. In the one-plus-three combination the player selects one stone which she calls her opponent's and says she will not pick that one up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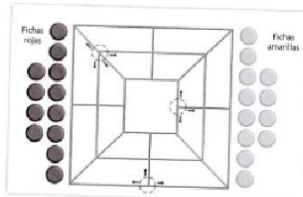


FIG. 94. Gaming stones.

- (10) 고누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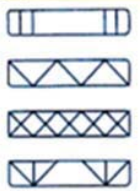
「Juegos y deportes autóctonos y tradicionales de México」, p.152



(11) 윷놀이

Tohono O'odham Dice Stick Game – G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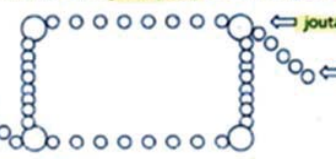
Game Pieces:
 4 flat sticks *ginskud* (geents-koot) made of saguaro ribs. One side of the stick is slightly rounded and the other side is flat with a design on it.



Two Sticks
 Mountains
 Braid
 Thorns

2 horses (stones) per player → 돌을 '말'이라고 한다.

1 rectangular playing space marked with ten stones on each side. 5 additional stones are connected to each corner *jouta* (door) that make up each players house.



How To Play:

1. Each player places both horses in the *kee* (house).
2. The four gins are held vertically in one hand and struck from underneath with a flat rock with the other hand. Let the sticks fly through the air and land on the ground.
3. If any of the sticks are touching another stick, the hit does not count and the turn must be taken over again.
4. A player must score at least five points to get out of his/her kee at the start of the game.
5. Once out of the kee the player can move one space for each point scored.
6. If one player lands on the same space as the other player s/he defeats the first player and sends his horse back home.
7. Winning the game requires getting all of your horses around the board and back home, entering your house with the exact number.

→ 윷가락은 한 면은 둥글고 뒷면은 평평하다.

→ 우리 윷판의 모자리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면 '좋다(jouta)'라고 했다.

→ 말이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곳을 '집'이라고 한다.

(12) 달집태우기

<원문>

El jeroglífico consiste de una antorcha formada de un círculo pequeño en medio de llamas verdes y amarillas, encima de un cerro. Se interpreta como *tlachinoliztli*, el verbo “quemar los campos” y podría ser en el sentido de quemar los campos por el cultivo o bien por *tlachinolli teuatl*, metáfora de guerra, batalla. El topónimo incluye la posposición *icpac* que significa “arriba” o “encima de”. Por lo tanto literalmente dice “hacia arriba de la tierra arrasada o conquistada”.

“이 그림문자에는 횃불과 작은 공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공은 푸르고 노란색으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있다. 이것은 언덕처럼 보이는 그림 위에 그려져 있다. (이것을) ‘다지노리지들이(tlachinoliztli)’라고 한하는데, 이 말은 ‘들판을 불태운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그리고 이 불꽃놀이는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해 들판을 불태운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다지노리 태와들(tlachinolli teuatl)’용 불놀이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지노리 태와들’은 전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Tlachinolitzli → Tla + chi + noli + tz-tli
 다 지 놀이 지-들이
 달 집 놀이 짓

Teuatl → Te + ua + tl
 태 와 들
 태 워 (들)/ 태우기

4) 멕시코 원주민의 신앙풍습

(1) 달 속의 토끼

멕시코 (16세기)



중국



*중국 전설:

중국 전설에 따르면, 항아는 전설적인 활의 명수 예(羿)의 아내였고, 그와 함께 천상에서 쫓겨나 인간이 되었다. 다시 신이 되기를 원하는 항아를 위해 예는 곤륜산의 서왕모에게 3천 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불사나무의 열매로 3천 년 걸려 만든 불사약을 받아온다. 불사약은 둘이 먹으면 불로장생한다고 하고 혼자 먹으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항아는 예가 없는 틈을 타 이약을 가지고 달로 도망갔다. 예를 배신한 벌로 항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두꺼비의 모습으로 변했다고한다.

(2) 용 - 중국 용과는 3가지가 다르다.

중국용: 온 몸 전체를 보여준다.

네 개의 발과 발가락이 중요하다.

암수 구별이 없다.

멕시코 용/고대 우리 용: 땅속에서 혹은 벽에서 머리만 내민다.

발과 발가락이 없다.

암수 구별이 있다.

(3) 솟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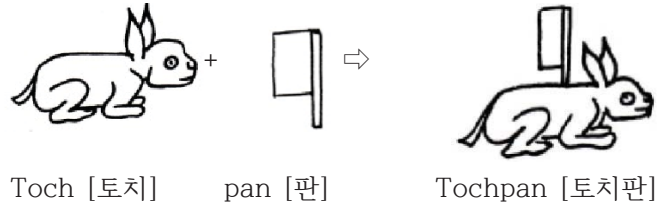
3. 멕시코 원주민의 말 = 우리말

* 멕시코 원주민을 포함한 아메리카 모든 인디언은 '문자'가 없어 '그림문자'로 표시하고, '말'로 설명했다.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그들의 말을 '알파벳'으로 기록했다.

* 그림을 보고 연상작용으로 발음을 떠올림. 아래 그림문자를 보면 신대륙 발견 이전의 멕시코 원주민들이 연상작용으로 떠올렸던 말은 우리말“토끼, 발, 달, 밭”임. 이것은 그들이 우리민족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1) 그림문자

(1) 토치판(Tochpan) “토끼가 많은 땅”



토끼/토치 (깃) 밭 토치밭 → 토치판
 * ‘토끼’를 ‘토치(tochi)’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말 고어: 도끼 → 토치

(2) 달판(Tlalpan) “달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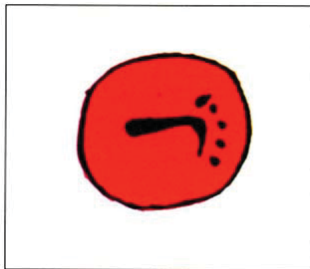


Figure 18. Glyph of Tlalpan.

달 + 밭 -----> [달 판]과 발음이 유사함.

*오늘날의 멕시코 원주민: “달”이라는 말을 잊어 버리고 “metztli [메츠들이]”라고 한다. 이 어휘는 스페인어 mes [메스] + 원주민어의 어미 ‘tli [들이]를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어휘이다. 이와같이 오늘날 멕시코 원주민 후예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말 (나와들 어)은 신대륙 발견 당시에 사용하던 그들의 선조들의 말과 어휘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인디언이나 남미 인디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진곳(-tzinco)/~친곳



Tecpa-tzinco



Figura 42

Ahua-tzitzinco



Figura 43

Mi-tzinco



COLHUATZINCO.

Colhua-tzin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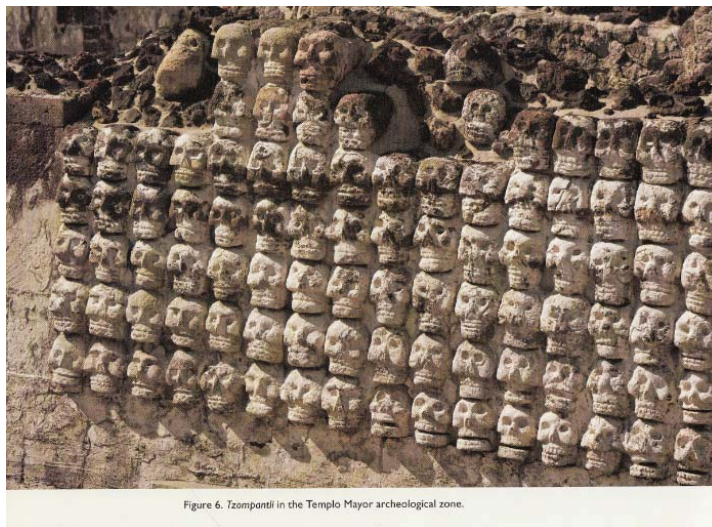


Figure 6. Tzompantli in the Templo Mayor archeological zone.

좁-판들이(Tzompan-tli): 해골 판 (해골을 모아둔 곳)
죽-두리: 머리에 쓰는 모자
존-마게(ちよんまば): 상투
 ↓
머리(해골)

2) 스페인인들이 기록한 어휘들

- 아쉬끼(ashkii) = boy. 아새끼
 큰애들(conetl) = boy. 큰 애들
 다마틴이(tlamatini) = 마 마친 이 = 다 맞는 사람, 점쟁이
 다도안이(tlatoani) = 다 도와주는 사람. 왕
 다조타(tlazota) = 다 좋다
 다기려(tlacuilo) = 다 그려, 화가
 통역사, 심부름꾼 (nahuatlatoa) = 나와 다도와 (와=가)
 Naguatatoa = 나가 다도아
 내지/내집(nechi'i)= my house 나의 집¹⁾

- 다치들(tlachitl)= 다 치는 사람, 공놀이 선수
 다메메(tlameme) = 지게꾼 (지게를 메다).
 막까기틀(Maccahuitl) = 막 까는 도구. 전쟁 무기



3) 아메리카 인디언이 사용했던 우리말 문장

- (1) na(ni) c tlazota [나 그 다조타] = I like it. 나 그것 다 좋다.
 (2) na(ni) c patla [나 그 파다] = I exchange it 나는 그것을 바꾼다
 (3) Huan-i hosé čapile [환-이 호세 자블레] John grabbed Joe
 환이 호세 (붙)잡았다
 (4) na(ni) cac chiuu. [나 각 지와] I make sandals ²⁾
 내가 짚신을 짓는다/만든다

* 고대 우리선조들은 ‘짚신’을 ‘각(躑)’ 이라고 했다.
 <권태원, “한국사회풍속사”, 1980,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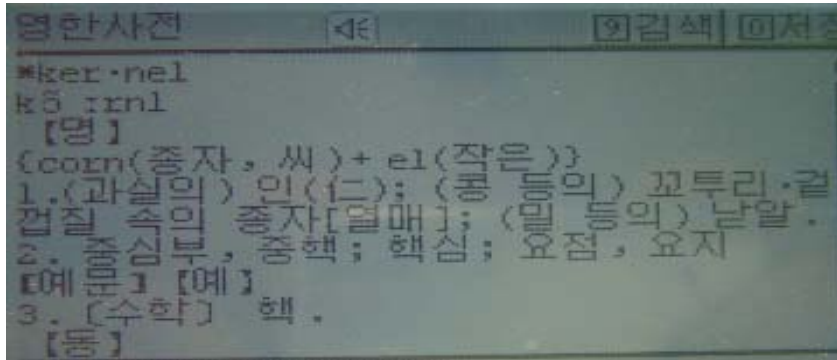
4) 옥수수 명칭

- 멕시코: maiz (마이쓰) 맛있어
 미국: Maize (마이쎬)
 corn (콘) “콩”

*영어의 corn이 인디언이 사용하던 우리말 ‘콩’의 영어 알파벳 표기라는 증거
 “콩알” -작다

1) https://en.wikipedia.org/wiki/Cora_language

2) Anderson, Arthur J. O.(1992), p.6.



4. 우리말로 된 지명

멕시코(México) = 맥이 곳 '맥이족이 사는 곳'

우수마신따(Usumacinta) '물 마신 땅'

지나간땅(Zinacantan) '지나간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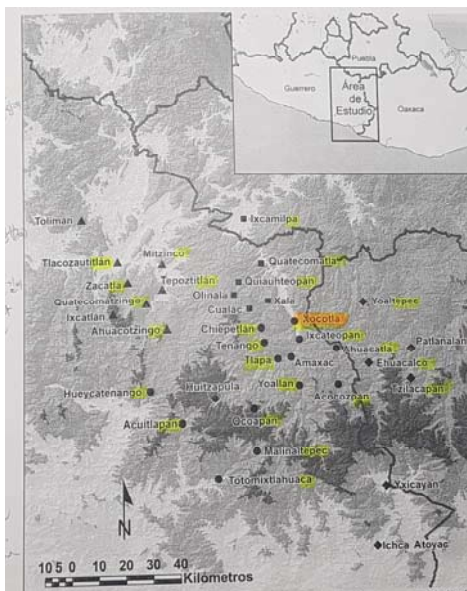
바람고(Baramco)- 주로 바람이 센 골짜기

*지명의 끝말: ~태백, ~땅, ~따, ~곳, ~진곳, ~판

(예: 멕시코 게르레로주와 오하카주)

* 태백(Tepec)= 산

* 일연스님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三位太白(삼위태백)'이라는 산의 명칭이 나오는데, 바로 '삼위산'을 가리킨다. 고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등 많은 산들이 '태백산'이라 불렸다. '산(山)'은 한자이므로 이를 생략하면, '태백'이 된다.



- * 알고싸우까
(Alcozauca)



- * 다지알태백 (Tlachihualtepec)
'montaña hecha a mano 손으로 지은 산'



*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성태 논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학술지자료실, 89호, 93호)
 (2) 저서: 「우리민족의 대이동」, 「고대 아메리카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태극」

5. 멕시코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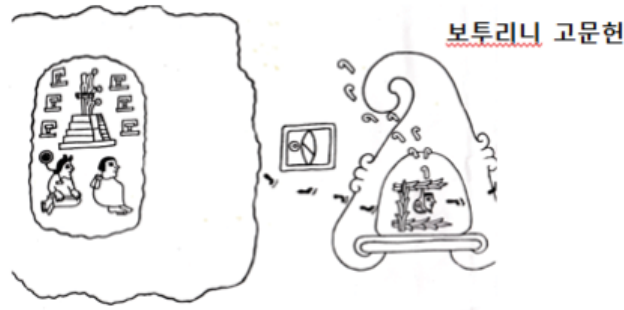
1) 멕시코의 국명의 유래

멕시코인들은 '멕시코'라고 하지 않고, 항상 '멕이코/멕히고'라고 말한다. 1492년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여, 멕시코에 가니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 지역에 당시로는 유럽의 파리나 런던보다 더 큰 도시가 있었다. 30만평 규모에 인구 2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었다. 당시 파리나 런던 인구가 약 5만 명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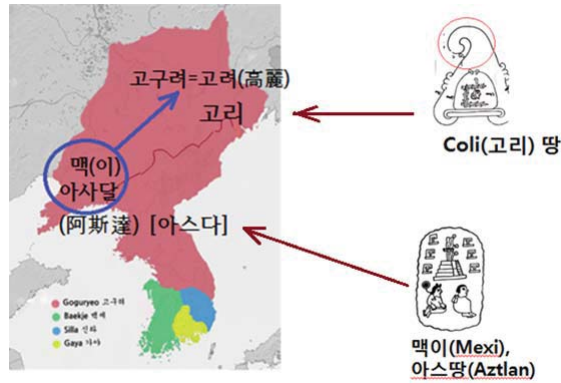
- 너희들은 누구냐? - 우리는 맥이(Mexi)이다. 여기는 맥이곳(Mexico)이다. '맥이가 사는 곳' 이라는 뜻이었다. 요동에 살며 고조선을 건국했던 우리선조들이 '맥족'이었고, 5세기 후한서(後漢書)의 기록에 의하면, 5세기 이후로는 '맥이(貊耳)'라고 불렸다.

2) 아사달에서 고리땅으로 이동

-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 16세기 원주민 여인과 스페인 정복자 사이에 태어난 Juan Tovar가 쓴 역사서에는 '그들이 기원후 820년경에 아스땅(Aztlan)을 떠나 바다를 건너 멕시코로 왔다'고 기록했다. 아스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가 평평한 피라미트가 있는 곳이다.



우리선조들은 요동 아사달(阿斯達)에 고조선을 건국했고, 만주 남부 지역에는 위가 평평한 많은 피라밋을 건축했다. 대표적인 것이 장군총이다. 고조선을 건국했던 선조들은 맥(貊)이라고 불렸으나, 기원 5세기 이후에는 ‘맥이(貊耳)’라고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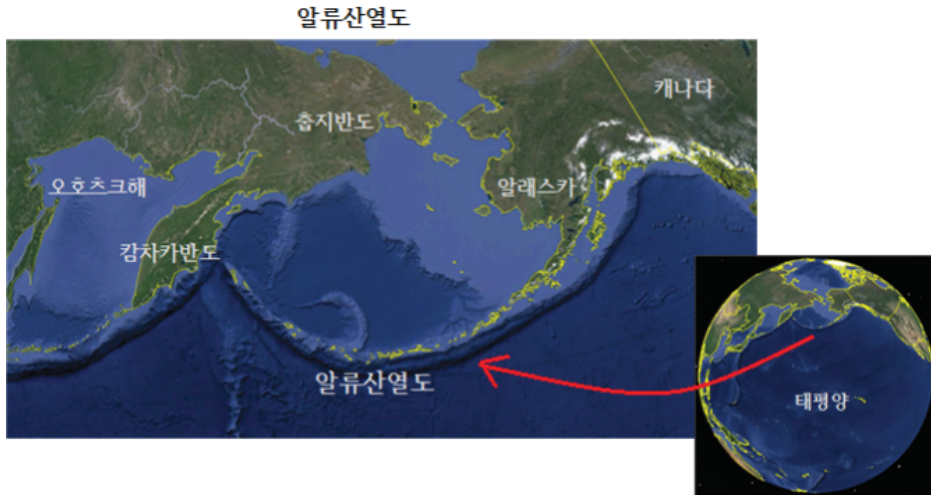


3) 맥이족이 바다를 건넌 장소에 관한 정보

<원문> Cierta dicen los tenustitecos mexicanos que no más les fue dicho, no más les dieron a entender que no estuvieron aquí ellos mismos primeramente, (que) vinieron a salir acá donde hay dicvisión del mar; de modo que pasaron hacia acá, cuando se divide, se aparta muchas veces el agua celestial o la que llaman agua divina (el mar); cierto cuando así pasa, cuando de una parte y otra se divide el agua celestial o agua divina cuando te detienes en la tierra...<중략>
 <출처: Cristobal del Castillo, 16세기, 「Historia de la venida de los mexicanos y otros pueblos」>

“신성한 나의 사람, 맥이(족)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도록 말했다. 바다가 갈라진 그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물, 즉 신성한 물(바다)이 수없이 여러 번 나뉘져 있는 때에(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다. 분명히 그때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육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늘의 물, 즉 신성한 물이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때 (그곳)이었다.”

- (1) 그들 (맥이족)이 처음 그곳으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
- (2) 바다가 이쪽과 저쪽으로, 즉 둘로 갈라져 있었다.
- (3) 바다의 물이 수없이 나눠져 있었다.



* 우리선조들이 극지방을 통과했다는 증거

- 1) 언어: 지명과 생활용어
- 2) 알류산 열도 아막낙 섬에서 발굴된 온돌 (2007년, 영국 고고학자 Rick Knec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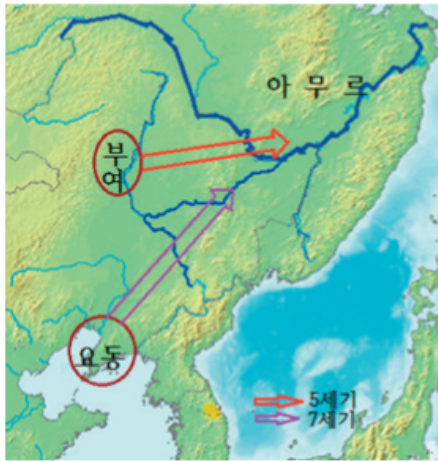
6. 만주대평원에서 사라져버린 우리선조의 수

- 1)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선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2) 우리선조가 떠난 방향
- 3) 만주대평원에서 사라진 우리선조의 수:
3세기~7세기의 400년 동안에만 약 1,100만 명이 사라짐



554년에 쓰인 「위서」 열전 88
10세기에 쓰인 「구당서」 권 199

중국 「민족사전」 등의 문헌에 의한 옥저의 이동



고구려와 백제의 인구증가 비교표

	3세기 중반	7세기 중반	인구증가 배수
백제	4~5만호	76만호	15~19배
고구려(만주·요동)	14만호	69만호	5배

만주·요동에서 사라진 숫자 = 280만호 - 60만호 = 220만호

220만 x 5 명 = 1100만명 (3세~7세기까지 400여 년 동안 사라진 수)

7. 미국 인디언이 남긴 우리민족의 흔적

1897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 책임자이자 큰 부자였던 Morris Jesup의 후원으로, Franz Boas가 중심이 되어 미국과 러시아 학자들이 모여 제섭북대평양탐험대(Jesup North Pacific Expedition)이 조직되었다. 이 탐험대는 몇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캐나다 서부지역, 첩지-감차카 반도 지역, 아무르 유역등과 같은 지역을 답사하여, 아메리카 인디언과 나누어 몇 개의 조직1900년대 초 미국학자들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원을 밝히고자 했다. 그들은 아무르유역에서부터 첩지-감차카 반도의 언어, 문화, 종교, 신앙이 인디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고, 양 대륙의 동서 해안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종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탐험대의 구성원들은 극동아시아 원주민들은 아메리카에서 베링해협을 통해 아시아로 건너간 사람들의 후예라고 결론 지었다. 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 문화,

종교, 풍습 등 모든 것은 아메리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발전한 것이고, 아시아에서 건너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카 인디언 문명 독자 발생설'을 주장했다.

1) 미국 인디언 신: Moccasin

가죽신으로 원래는 신발 앞 코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우리민족의 전통 버선과 닮았다. 이 탐험대의 소속이 아니었던 독일계 학자 Gudmund Hatt, 'Moccasins and their relation to Arctic Footwear'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아메리카 인디언의 가죽신 Moccasin은 아무르 유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탐험대의 이론을 반박했다. 그러나 제섭북태평양탐험대의 이론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원에 관한 정설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선조들이 그러한 가죽신을 '목화신[모카신]'이라고 했다.



아파치 목화신



—목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아메리카 인디언도 '집'이라고 했다: 집 (Chii-P/jib/ zib), 갈(Gal)

(1) 집

(1) 내 지 (ne chi'i)

(2) 집에와 Chippewa,

집에와이 Chippeway

오집 Ojib,

오집와 Ojibwa,

오집에 Ojibwe

POSSessor	
1. person	nechi'i "my house"

(2) 갈(gal)- 몽골식 8각형 집 '게르/겔'

3) 미시시피 (Mississippi)은 ‘물고기 집이(야)’라는 고대 우리말이다

원래 명칭: Misi-ziibi [미시 지비/미시 집이] meaning "Great River"

* 우리말의 특징:

영어: Who is he? -Peter/ Michael

우리말: 저 친구는 누구야?

재철(x) → 재철이 (-다/-야)

(예)재는 길동이, 애는 복순이

*멕시코 아스태가제국 지배자들의 이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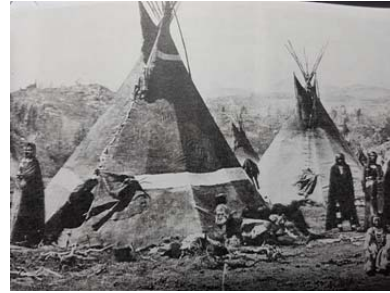
아카마피치들/ 아카마피치들+ 이

** Misi-ziibi Misi-ziib (미시 집)-i-야/다

4) 티피 (tipi/teepee)는 우리말 ‘집이(야)’이다

Tip- i / teep-ee = 집 +이 +(다/야)

팁-이 / 텃-이



슈족의 발음: 집을 ‘텃’이라고 했다 ← 구개음화 현상

* 우리말 문법: 구개음화: ㄷ/ㅌ=ㅈ/ㅊ

죽다 = 둑다

굳이 [구디] = [구지]

* 우리민족 대이동 시기에 아무르강 하류에 정착한 집단 길약족은 집을 텃(typ) 혹은 티프(tyf)이라고 말한다.

<김방한, ‘한국어 계통 연구의 문제점’, 『언어학』, 제1호, 한국언어학회, 1976, p.23.>

* 국어학자 강길운 교수는 길약어와 우리말을 ‘쌍둥이 언어’라고 했다.

5) 미시간(Michigan)도 우리말이다.

1670년 경 클로드 알루에스(Claude Alouez) 신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인디언들은 미시간호수로 흘러드는 폭스(Fox)강의 양쪽 뚝 사이에 댐처럼 나무울타리를 쳐 두고 빠져 나가지 못하는 철갑상어와 다양한 물고기를 잡았다. 인디언들은 그 울타리 가리키며 ‘미치히간(Mitchihikan)’ 또는 ‘미치간(Mitchikan)’이라고 불렀다.”

* ‘간(-gan)’은 ‘장소’를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헛간, 곳간, 장독간, 대장간, 뒷간 등.

* ‘미치(Mitchi-)’는 ‘물고기’를 뜻하는 고대 우리말이다.

** ‘미치간’은 ‘물고기 장소’, 즉 ‘물고기가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고대 우리말이다.

참고: 인천의 명칭: 미추홀(彌鄒忽) 옛 발음 [미치호]

(주목: 우리선조들은 ‘호수’를 ‘호’라고 했다. 중국인들은 이 말에 ‘물 수(水)’를 붙여 ‘호수(湖水)’라는 한자어를 만들어 내었다.)



6) 미주리(Missouri)는 우리말 ‘머저리’이다.

우에-머저리따(Ouemessourita) → 우에(Oue) + 머저리(messouri) + 따(ta)
 위-머저리따(Wimihsoorita) → 위(wi) + 머저리(mihsoori) + 따(ta)
 뜻: 윗 머저리/바보 땅

- * 발음 미저리[mɪ'zɜ:ri] / 머저리[mə'zɜ:rə] / 머주어리[mə'zʊəri]
- * 우리말 ‘머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디언들도 그렇게 사용했다.



National Archives
 Three Indians—an Oto, a Ponca, and a Missouri; a drawing by Karl Bodmer.

7) Rhode Island의 원래 지명 ‘날아간 새터(Narraganset)’는 우리말이다.



8) 뉴잉글랜드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우리말 (예)

- (1) 늪 (Nup) - 일반적으로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물'을 가리키는 말
- (2) 푹 (tuk) - 대서양 연안에서 강의 이름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말로서, '강'을 의미한다. '강 가운데 있는 모래 언덕'도 의미한다.
Tuck/Duck 은 hill을 의미한다.
- (3) 킨늪 (Kinnick) - 1607년 제임스타운(Jamestown)을 건설. 담배를 재배.
인디언들은 '킨니 킨늪 (kinni / kinnick)'이라고 말했다.
우리말 '긴 잎'이다. '잎'의 방언이 '늪'이다.

담배 잎



- (4) 샵 (Shap) - '헴프(hemp)'라는 식물의 껍질을 이용하여 끈을 만들어 그물을 만들었다. 인디언들은 그 식물을 '아샵(ashap)'이라고 불렀다
A-shap ?
- (5) 셈,심 (Sem/Shim) - 인디언들은 '마실 물을 길러 오는 곳'을 '아심(ashim)'이라고 했다. 이 말은 가끔 첫 글자 '아(a)'를 생략하고 semet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A-shim= A-sem ?
- (6) 아땅 (Atan) -110년 전 월라스 투커(Wallace Tooker): "알곤킨 언어의 인디언들은 장소를 말할 때, 어느 지역에서나 '아탄(atan)'이라고 매우 자주 말했다."

* 가톨릭 신부 바라가스(Baragas, Frederic Irenaeus)는 1830년~1868년까지 미시간주에 주로 머물며, 오대호 주변의 집에와족에 대해 기록: "백인들이 살던 모든 '타운(town)'을 인디언들은 '아땅(atan)'이라고 불렀다"

A-tan?

* 기미독립선언문: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조선(我朝鮮)의~

정약용: 我邦疆域考(아방강역고)

** 여기서 사용된 '아'는 '우리, 우리의'를 뜻하는 고대 우리말이다.

멕시코 아스태가 최초의 황제 이름 : 아까마피치들(이) (Acamapichtli-i)

9)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과 오대호 지역의 지명 및 부족 명칭- 모두 우리말이다.

(1) 이로키 (Iroquois)연맹- 5부족

Hodeno Shawnee - ‘호데게 싸운 이’

(2) 델라웨어(Delaware) [[Delə wār] ‘델러 와’

Lenni Lenape “ancient people/ grandfathers”

Lenni Lenape가 왜 우리말일까요? 왜 ‘할아버지’를 뜻할까요?

(3) 커네티컷 (Conneticut)

Quinnehtukqut → "Long River Place" or

"Beside the Long Tidal River"

긴내ㅎ뚝곳 → “긴 강의 장소” 또는 “긴 파도치는 강 가까이에”

흑피옥 문화의 옥문자(玉文字)와 고조선

정건재 회장(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학회)

* 신석기 청동기시대 유적지 분포도 : 중국 문물국지도



내몽고 동부 지역과 요녕성 지역 신석기 청동기시대 유적지 분포도

중국 國家文物局 《中國文物地圖集》西安,西安地圖出版社, 2003.

신석기시대 주요 옥문화(5000-4000년전). 중국 CCTV-9. 2011,1,7

홍산문화-제가齊家문화-능가탄凌家灘문화-양저문화.

* 孤竹國. 古朝鮮城



《唐土名勝圖繪》第1集 卷之五 永平府總圖, 1805年 日本 岡田玉山 編述
당토명승도회 永平府 지도에 난하가 보이고 고조선성이 보이며 고죽국이 보인다. 난하를 옛날에는 요수라 하였다. 이 요수(난하)의 동쪽이 요동이고 서쪽이 요서이다. 이 지역은 과거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 선비족 모용은慕容恩 (두로영은豆盧永恩)비문碑文:乃爲銘曰 朝鮮建國 孤竹爲君

[1] 옥조玉兆 : 옥복玉卜

(1) 독자적인 옥문화 : 황하 유역, 옥 예기 생산 전통 발전 불가능.
신석기시대 주요 옥문화(5000-4000년전). 중국 CCTV-9. 2011,1,7
홍산문화-제가齊家문화-능가탄凌家灘문화-양저문화.

* 엽서헌叶舒究 <黄河水道与玉器时代的齐家古国>

산서 도사문화 : 중원 지구 처음, 옥 예기 체계 등장.

고고 발굴은 중원지구에는 옥 광물 자원이 부족해서 중원지구 이남의 하남 남양南陽 지구에 오직 독산獨山 옥 광산이 있고, 원고 시대에 중원 문명의 옥 예기 사용은 오히려 매우 적다.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의 제한을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7000-5000년 전 중원지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앙소仰韶문화로 하여금 같은 시기이거나 혹은 약간 늦은 중원이외의 문화 즉 홍산문화, 능가탄凌家灘문화와 양저良渚문화들처럼 규모성 있는 옥 예기 생산의 전통을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1. 복서卜筮

* [사기-귀책열전(龜策列傳)] 권 128 :

“요순(堯舜)이전에 점복에 관한 일은 기록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에 기록할 수 없으나, 하(夏), 은(殷), 주(周) 삼대가 일어난 뒤로는 각각 복서에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 그것에 의해서 나라의 기반을 닦게 되었던 것이다.”

[사기]에는 또 이와 같은 선사 시대의 점을 치는 풍속에 대해서도, “만(蠻), 이(夷), 저(氏), 강(羌) 등은 비록 군신의 차례는 없어도 의혹을 결정할 때는 역시 점을 치는 풍속이 있었다. 쇠와 돌을 써서 점을 치기도 하고, 혹은 풀과 나무를 써서 점을 치는 등 나라에 따라 각각 그 풍습이 달랐다. 그러나 모두 점을 근거로 해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군사를 나아가게 해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각각 그들의 신령을 믿고 점에 의해서 장차 닥칠 일들을 알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蠻夷氏羌雖無君臣之序，亦有決疑之卜。或以金石，或以草木，國不同俗。然皆可以戰伐攻擊，推兵求勝，各信其神，以知來事。”

2. 옥복玉卜 :

* [說文解字] 복(卜) “灼龜也 象兆之縱橫也”

구갑(혹은 수골)을 불로 지져서 뼈판 뒷면에 좌우로 터진 조문을 살펴 길과 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자가 없는 것을 무자복골(無字卜骨)이라 한다. 은나라에서처럼 문자가 있는 복골을 갑골문자라고 한다.

* [사기 오제본기(五帝本紀)]

땅을 골라 작물을 기르고, 일월성신에 맞추어 하늘을 점쳤다. 귀신에 의거해 예의를 제정하고, 기를 다스려 교화했으며, 정결하게 정성을 드려 제사를 지냈다.

* [주례周禮 춘관(春官)·천부(天府)] : 옥 복서 玉 卜筮

“겨울에 옥을 펼쳐놓고 점을 쳐서 선악을 물어보았다. 가소(賈疏)에 : 복서를 할 때에는 먼저 옥을 진열하고 신에게 예를 갖추고 난 후에 점을 쳤다”

* 왕국유王国維 [觀堂集林], 중화서국, 1959.

“예禮” 글자의 최초의 의미는 바로 “이옥시신以玉示神”(옥으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처음으로 옥기가 이와 같은 신성(神性)이나 영성(靈性)과 예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천지와 신과 인간 사이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3. 옥조玉兆 : 전욱顓頊(4513-4436년전) 명명.

* 宋代 [로사路史]([사고전서四庫全書]) :

“남북조 시대 양梁 나라의 도홍경(陶弘景)의 진고(真告)에 의하면, 태복(太卜)의 삼조(三兆)는 옥조(玉兆), 와조(瓦兆), 원조(原兆)이다. 옥조를 설치하였고, 전욱(顓帝)의 옥조는 그 옥을 보고 점쳤고, 제요(帝堯)의 와조는 그 기와를 보고 점쳤다, 소(疎)에 이르기를, 선왕시대에 복서(卜筮), 점치는 것은 선왕들이 만들었으며 복희 시대 이미 있었다. 옥조, 와조, 원조에 대한 명칭이 없었고, 전욱 시대에 명칭이 시작되었다”.

[路史]卷十七, 宋, 羅泌撰 ([四庫全書])後紀八 疏佺紀 高陽 詳 陶弘景 真告 設玉兆 太卜三兆 玉兆 瓦兆 原兆 顓帝玉兆象其玉 帝堯瓦兆象其瓦 疏云 卜筮先王所作伏羲時已有 未有玉瓦原之名爾 至顓帝以來始有.

梁 도경홍陶弘景(456-536). 梁.남북조 시대 학자. 저서[真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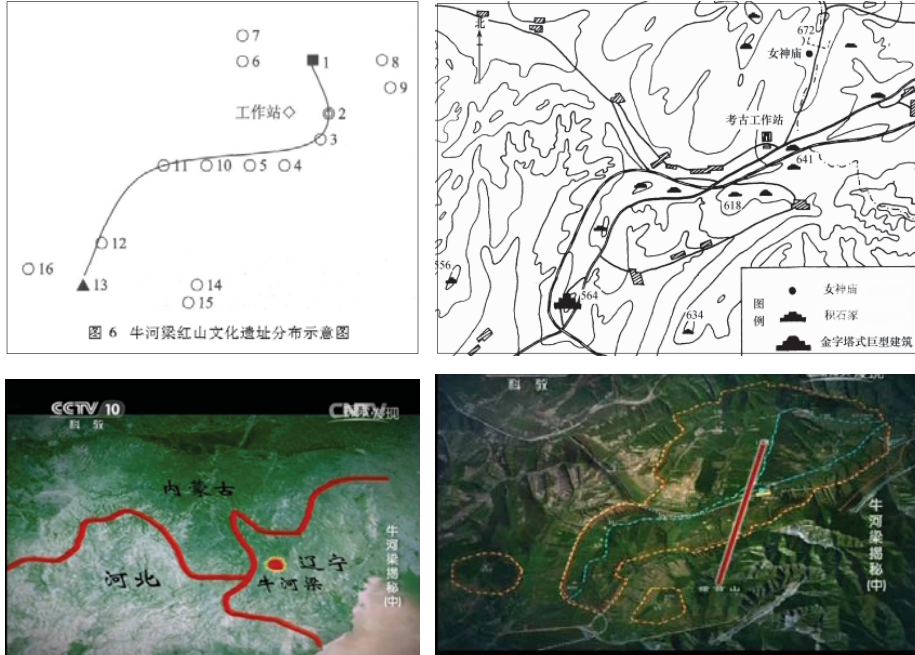
* [주례周禮] 太卜 :

“太卜掌三兆之法，一曰玉兆，二曰瓦兆，三曰原兆。” 杜子春云：“玉兆，顛頊之兆；瓦兆，帝堯之兆；原兆，有周兆。”

4. 옥제玉祭 : 이옥위제以玉爲祭. 유옥위장唯玉爲葬.

* 홍산문화의 제사 유적지 : 5500년 전-4000년 전

우하량단묘총坛廟塚유적지 : 대형 제사 중심(5500-5000년 전)



孫小淳外<中国古代遗址的天文考古调查报告蒙辽黑鲁豫部分>[中国科技史杂志] 第31卷 第4期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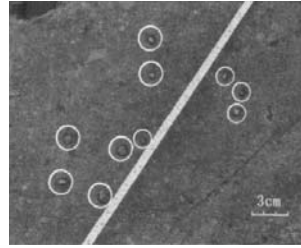
여신묘, 피라미드(금자탑:전자산轉子山) : 적석총, 호위하는 형상.

紅山古國(The Primitive State) : 우하량 유적지 박물관

* 城子山山城 : 하가점하층문화 4천년전 초대규모 제사산성 유적지.

성자산 산성 유적지발견 암석 평면 위 북두칠성

孙小淳(中国科学院自然科学史研究所)외<中国古代遗址的天文考古调查报告蒙辽黑鲁豫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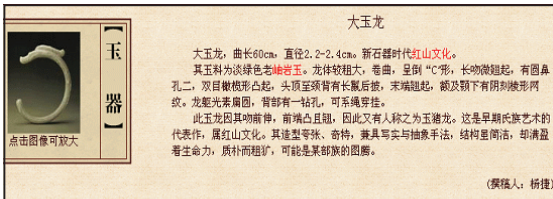
* 부신 호두구 : 유옥위장唯玉為葬. 5000년 전 천단, 적석총군.
 阜新發現中國最古老天壇 置身群山環抱之中
 유옥위장묘 출토 : 옥조玉鳥, 옥구玉龜, 옥벽玉璧, 옥탁玉鐲(16점)

[2] 옥 토템 사회 : 유옥위장唯玉為葬. 유옥위례唯玉為禮.
 반인반수 : 동물(神獸) + 인간(神人)

(1) 용 토템 : 속신肅愼 = 조선朝鮮 = 주신(珠申), 식신(息愼).

1. 옥룡玉龍 : 수수사신獸首蛇身 --> 인면사신人面蛇身 --> 용사龍師

* 옥룡 : 속신국肅愼國의 금충琴蟲 [산해경 大荒北經]



중국 북경고궁박물관



한국 《경향일보》

* 중국朱乃誠(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 삼성타랍옥룡은 홍산문화아니고, 하가점하층문화(4000년전-3500년전)이다.

홍산문화 수면결형 옥식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삼성타랍 옥룡과 홍산문화 수면결형 옥식과는 결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삼성타랍 옥룡은 홍산문화 옥기가 아니라, 그 연대는 아마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이다. 삼성타랍 옥룡과 홍산문화 수면결형 옥식은 직접적인 변화관계가 없다.
 (중략) 삼성타랍 옥룡은 홍산문화 옥기가 아니다.

<紅山文化獸面玦形玉飾研究> [고고학보] 2008년 제1기.

* 속신국肅愼國 : [산해경 大荒北經] 금충琴蟲.

大荒之中,有山名曰不咸.有肅慎氏之國.有蜚蛭,四翼.有蟲,獸首蛇身,名曰琴蟲.

* 속신肅慎 = 조선朝鮮 = 주신(珠申), 식신(息慎), 직신(稷慎)

[산해경 대황북경] : 大荒之中,有山,名曰不咸,肅慎氏之國,有蜚蛭,四翼,有蟲,獸首蛇身,名曰琴蟲.

[산해경 대황북경] : 대황의 한가운데에 불함이라는 산이 있고 속신씨국이 있다-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것이 있는데 이름을 금충이라고 한다.

정인보(鄭寅普), 안재홍(安在鴻) 제씨는 속신을 중국 고서에서 출현하는 주신(珠申), 식신(息慎), 직신(稷慎) 등과 마찬가지로 조선(朝鮮)을 음사한(音寫) 한 별종의 표기로 파악하였다.

2. 인수사신人首蛇身 :

* 인면사신人面蛇身 : [산해경 북산경]

自單狐之山至于隄山, 凡二十五山, 五千四百九十里, 其神皆人面蛇身.

“단호산에서 제산까지는 모두 25산으로 거리는 5490리에 달하며 이곳의 신들은 모두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다”

* 고구려 고분 벽화 오회분 4호묘, 5호묘 해신, 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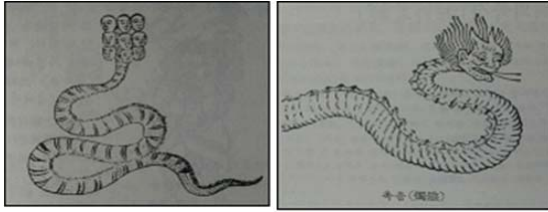


* 복희 여와 : 인수사신人首蛇身



당 인수사신용人首蛇身傭 [CCTV-4] 2011,9,5.

* [산해경 해외북경] : 인면사신人面蛇身.



서북쪽으로 420리를 가면 종산인데 그곳 신(神-축음燭陰)의 아들을 고라 한다. 생김새가 사람의 얼굴에 용의 몸을 하고 있다.

* <회남자淮南子 지형훈隆形訓> : 용신인두龍身人頭, 인면수신人面獸身.

축룡燭龍은 안문雁門의 북방에 있는데...사람의 얼굴에 용의 몸이라 발이 없다...뇌택雷澤에는 신神이 있는데 용龍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그 배를 두드리며 즐긴다.

3. 용사龍師 : 태호 복희씨(청룡씨,적룡씨,백룡씨,흑룡씨,황룡씨)



* [二十五史] 伏羲氏 “有龍瑞，以龍紀官，号曰龍師”
上海古典出版社，362頁，1986.

* [좌전左傳] 昭公17年 “太昊以龙纪，故为龙师而龙名”
소공17년“太昊는 용을 기준으로 용사龍師로 삼고, 용으로 이름했다.

* [강감역지록綱鑑易知錄]
“太昊伏羲氏는 春官은 청룡씨, 夏官은 적룡씨, 秋官은 백룡씨, 冬官은 흑룡씨, 中官은 황룡씨로 세웠다.” 태호 부락은 청, 적, 백, 흑, 황색의 다섯 가지 색의 용을 토렘으로 삼았다.

* [한서漢書] 율력지하律曆志下
춘추 시대 소공 17년 ‘담자郟子 입조’, 전하기를 소자가 소호씨는 왜 새 이

름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묻자, 전하기를, 태호씨는 용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용사로 삼고 용으로 이름

(2) 곰 토템 : 옥웅玉熊 --> --> 웅수인신熊首人身

1. 옥웅玉熊 : 조보구趙寶溝문화(7400년전-6500년전)-홍산문화

* 석조 곰 : 조보구문화(7000년전), 홍산문화 채도웅수彩陶熊兽头.



조개로 만든 곰 신상 赤峰博物館藏 熊神像, 옹우특기翁牛特旗 합모산蛤蟆山.

2. 옥웅룡 : 곰 송배족. 홍산문화



우하량(5500-7500년전), 조양시朝陽市 반랍산半拉山(5300-5045년 전)

* 중국 : 옥수형결玉獸形玦. 중국 고궁박물관. 신격화된 동물 표현.

玉兽形玦

玉兽形玦，高1.5cm，宽1.0cm，厚4.5cm，新石器时代红山文化。玦以黄绿色玉料制，表面有多处虫蚀，整体为环形，一侧有一开口，未断开，开口一端为兽首，另一端为兽尾，兽首是熊的头部，颈部有二小孔。

目前，多处红山文化遗址中出土了这类玦型，它表现的是一种神化的动物，反映了较大范围的动物崇拜。颈部有双孔的作品并不多见，此玦可能是制玦时所学之孔位置不理，作品最佳时则刻次次要要求，于是又钻了第二孔。这件作品为清代宫廷进玉，说明清代宫廷曾收藏红山文化玉器。

(撰撰人：张广文)

중국고궁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비출토유물). 능가탄문화(양자강)



수수삼공기獸首三孔器,적봉시 파림우기 출토.



은 玦形玉龍 淸國 韓城(서주시대) 스미소니언 프리어 갤러리
FREER SACKLER THE SMITHSONIAN'S MUSEUMS OF ASIAN ART

* 중국 곽대순 교수 : 玉熊龍, 홍산문화 가장 대표적 옥기.

옥웅룡은 홍산문화 옥기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갖춘 옥기이고, 아울러 제작에 사용된 기법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홍산문화인들은 곰 숭배족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中華人民共和國 국무원교무판공실 國務院僑務辦公室主辦

* 중국 朱乃誠 교수 : 최초 상징 곰 <紅山文化獸面形玦形玉飾研究>

기원전 3360년전-기원전 2267년전.

"C"자형을 띤 용은 현재 요서 지구의 삼성타랍 옥룡과 황곡돈 옥룡만 보인다. 홍산문화 수면결형 옥식은 홍산문화 후기에 옥 습관이 점진적으로 흥성해지는 과정에서 생산된 일종의 특수한 기형으로 그들 연대는 기원전 3360년과 기원전 2267년 사이에 있으며, 그 최초의 상징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곰이다.

[考古學報] 2008년 제1기.

3. 웅수인신熊首人身 : 반인반수. 흑피옥문화.



흑피옥 후한 武氏祠堂(147년) 塼築 사당 화상석 일부. 산동성.

4. 옥웅룡관 :

옥웅룡 관을 쓴 흑피옥 인물상



곰관 옥조신상 : 영국 캠브리지대학 피츠윌리엄박물관.

(3) 새 토템 : 옥조玉鳥 --> 옥조룡玉鳥龍 --> 인면조人面鳥 --> 조사鳥師

1. 옥조玉鳥(신조神鳥)=천신天神. 수獸=지신地神. 天父地母(천지결합).

* 옥봉 : 우하량 제16지점 4호묘(5500—4000년 전).



* “가장 완전한 최초 발견된 옥봉. 옥봉의 원형은 고귀하고 보기 힘든 동물. 홍산문화의 옥 조각의 대상 동물은 고도의 사실적 예술로서, 일정한 예술 수준에 이르러서 비로소 봉이 등장했다.” [인민일보] 2011,5,21.



옥응玉鷹 : 북경고궁박물관. 상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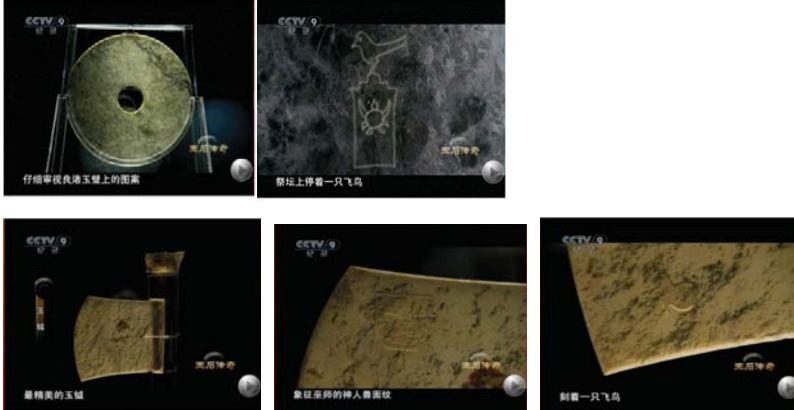
옥효玉鴉 : 요녕성 부신투新市 호두구胡頭溝(우하량 동쪽 200km)

홍산 문화층 바로 위층 : 비파형청동 단검 한반도 발해연안 대표 유물

* 현조玄鳥 : 현조생상(玄鳥生商) 은 건국신화. [산해경 해내경].



* 양저문화 : 비조飛鳥 명문 옥벽, 옥월.



* 장위동蔣衛東(양저박물관원장) : 巫師 제단 위 제사활동 묘사. 제단 위 飛鳥. 옥종, 옥월 동시 소유자 : 양저 부락 장악, 신권과 왕권. 지고무상 통치권 王者.

* 현조생상(玄鳥生商) : 은 건국신화 관련

[史记] 殷本纪 : 殷契, 母曰简狄, 有娥氏之女, 为帝喾次妃。三人行浴, 见玄鸟堕其卵, 简狄取吞之, 因孕生契。

은(殷)의 (시조인) 설(契)의 어머니는 간적(簡狄)으로 유읍씨(有娥氏)의 딸이며 제국의 둘째 비였다. 세 사람이 목욕을 갔다가 현조(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보고는 간적이 주워 삼키고는 임신하여 설을 설을 낳았다.

* [시경诗经·상송商颂] : "天命玄鳥, 降而生商"
" 하늘이 현조(玄鳥)를 명해 내려가 상(商)을 낳게 하다 "

* [山海经 海内经海内经] :

산 위에는 검은 새(玄鳥), 검은 뱀, 검은 호랑이, 검은 표범, 검은 여우가 살고 있다. 대현산이 있고, 현구민이 있으며, 대유국이 있다.

* [산해경 大荒北经大荒北经] : 부여산, 전욱, 현조, 황조, 청조.

* 于省吾 [略论图腾与宗教起源和夏商图腾] 1959년.

商 铜器「玄鸟妇壶」铭文：상 나라 현조玄鳥(제비) 토템.



* 张宝明 <從甲骨金文看殷商族圖騰崇拜文化>[汉字文化] 2015. 제6기.

아의현부리亞矣玄婦壘 鷓(玄鳥)婦, 亞疑 亞의維婦銘文

* 駱賓基 [金文新考] 下, 第五集, 人物集 上, 46쪽, 山西人民出版社, 1976.

2. 옥조룡玉鳥龍 : 옥조형결玉鳥形玦



3. 인면조人面鳥 : 인면조신人面鳥身



홍산문화 인면조 암각화 [산해경] 흑피옥 우인羽人



고구려 덕흥리(德興里)고분. 삼실총. 일본 정창원나전자단비파(螺鈿紫檀琵琶)



백제 금동대향로 인면조신人面鳥神

- * [산해경] 人面鳥 : 사망신 특정 종족 선조.
東方 句芒, 鳥身人面, 乘兩龍. [山海經 海外東經]
동방 구망, 조신인면, 승양용. [산해경 해외동경]
西方 蓐收, 左耳有蛇, 乘兩龍. [山海經 海外西經]
서방 옥수, 좌이청사, 승양용 산해경 해외서경]
南方 祝融, 獸身人面, 乘兩龍. [山海經 海外南經]
남방 축융, 수신인면, 승양용. [산해경 해외남경]
北方 禺彊, 人面鳥身, 珥兩青蛇, 踐兩青蛇. [山海經 海外北經]
북방 우강, 인면조신, 이양청사, 천양청사. [산해경 해외북경]

- * 은 인형옥치효人形玉鴟鴞 : 婦好墓 출토. 옥올빼미(부엉이).



- * 중국 리광진雷广臻(조양사범고등전문학교)교수 [朝陽日報] 2010,4,22.
<홍산문화와 황제문화의 관계> “산해경에는 부여에 관한 기술이 매우 많고, <해외북경>의 기록에는“무우務隅(yú)의 산, 제 전옥顛頊은 양에 장사 지냈고, 구빈九嬪은 음에 묻었다.” <대북황기>의 기록에는“부우附禺의 산, 제 전옥과 구빈을 장례 지냈다.” 두 편에 기록된 “무우務隅”와 “부우附禺”, 모두“부여扶余”를 지칭한다. 제 전옥을 이곳에 장사 지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 [산해경 대황북경] : 有胡不與之國, 烈姓, 黍食. 호 부여국이 있는데, 성이 열씨이며 기장을 먹고 산다.(학의행郝懿行 : 열씨는 염제 신농의 후예 [산해경전소山海經箋疏]). 정인보, 최남선 : 夫餘國.

- * 형병(邢昺)의 [이아주소爾雅注疏] : 부유(晁與), 청 오임신(吳任信)은 그의 저서 [자안보(字匯補)] 부유는 바로 부여라고 해석.

4. 조사鳥師 : 소호 금천(小昊 金天).

[좌전] 소공 17년에, “담자(郟子)가 입조해서 공과 연회를 가졌다. 소자가 ‘소호(少昊)가 새 이름으로 관을 삼았는데, 어떤 연유인가?’라고 물었다. 담자가 말하기를 : ‘우리 조상 고조 소호가 나라를 세울 때, 봉이 때맞추어 날아와서 새를 기준으로 조사(鳥師)로 삼고 새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고 되어 있다.

[左传]昭公17年：“郟子来朝，公与之宴。昭子问焉曰：‘少昊以鸟名官，何故也？’ 郟子曰：‘吾祖也，我知之，…我高祖少昊摯之立也，凤鸟适至，故纪于鸟，为鸟师而鸟名。

*[漢書 律曆志]下:世經春秋昭公十七年，昔者，黃帝氏以雲紀，故為雲師而雲名；炎帝氏以火紀，故為火師而火名；共工氏以水紀，故為水師而水名；太昊氏以龍紀，故為龍師而龍名。我高祖少昊摯之立也，鳳鳥適至，故紀於鳥，為鳥師而鳥名

* 옥조관 흑피옥 인물상.



* 옥조 손잡이 갑골문 명문 옥검.



* 옥구鳩鳥 : 봉조씨(鳳鳥氏)

[습유기拾遺記]소호少昊, “소호의 모친 황아(皇娥)가 소녀 시절, 낮에 뗏목을 타고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놀 때, 계지로 기둥을 만들고 훈모를 묶어 깃발을 만들고, 옥으로 비둘기(옥구鳩鳥)를 만들어 깃대 위에 장식했다. 후일 황아가 소호를 낳고, 호를 ‘봉조씨(鳳鳥氏)’라고 했다”

[拾遺記] 少昊：帝子與皇娥泛於海上，以桂枝為表，結熏茅為旌，刻玉為鳩，置於表端.

* [삼국사기],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의 후손이라 하여 김씨로 성을 삼았고, 이는 신라 국자박사(國子博士)설인선(薛因宣)이 지은 김유신의 비문과 박거물(朴居勿)이 지었고 요극일(姚克一)이 쓴 삼랑사비문(三郎寺碑文)에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 百濟本紀, 列傳 金庾信.

大唐故金氏夫人墓銘, 1954년 출토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소호국 : 홍산문화

정재서 [앙띠오이디푸스의 신화학] : 동해의 바깥은 소호少昊 조이鳥夷 부락의 생활 터전이다. 동해의 내와 외의 구별은 각각 서로 다른 문화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해지외東海之外"는 비단 "전세계 7대주 5대양을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로 "동해" 이외의 영토, 예를 들어 해외 속신肅慎 해외 부여 등 동북지역 국가들 앞에 모두 해외海外라고 두 글자를 썼다. 요하 유역의 홍산문화는 동해 바깥으로, 황하유역의 대문구 문화와 용산문화는 동해의 안쪽에 속한다. 따라서 소호국은 산동 대문구나 용산문화에 있지 않고, 동북의 홍산문화 쪽에 속한다.

(4) 소 토템

1. 우수인신牛首人身 : 화사火師. 신농염제神農炎帝.

<세계박람회世博看国宝红古玉, 国宝档案> 중국[CCTV-4] 2010.8.17.



2. 고구려 고분벽화 : 삼실총. 오회분 4호묘, 5호묘의 牛首人身 炎帝.



* 일본의 나라현 아스카촌(명일촌明日村)의 키토라 고분 벽화에도 천문도와 사신도와 함께, 우수인신(牛首人身), 호수인신(虎首人身)등이 그려져 있다.



아스카촌(明日村) 키토라 고분(7세기 말-8세기 초) 벽화

* 우수인신의 염제 형상은,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삼실총, 오회분 4호묘, 오회분 5호묘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서 교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가장 충실히 형상화 된 [산해경]의 신화적 인물은 농업과 의약의 신 염제다. (정재서[앙띠오이디푸스의 신화학] 155-6,284쪽, 창비, 2010, 9).

송宋 羅泌의[로사]([사고전서四庫全書]) 선통기(禪通紀) 염제(炎帝) 편에는, “염제가 강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이 강(姜)이고, 그 처음의 나라 이(伊), 뒤이은 나라 기(耜)인 관계로 이기(伊耜)씨이며, 키가 8척 7촌, 큰 몸집에 소 이마, 용 얼굴, 큰 입술, 도장을 만들고, 옥의 정수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宋 羅泌[路史]([四庫全書]) 卷12, 禪通紀 炎帝 : 炎帝长于姜水, 成为姜姓. 其初国伊, 继国耜, 故氏伊耜. 长八尺有七寸, 弘身而牛颠, 龙颜而大唇, 怀成铃, 戴玉理. 玉理 ; [春秋命歷序], [穆天子传]에 ‘옥의 정화(玉之精华)’.

* 신농 염제의 출생 내력에 대해, 장수절(張守節)의 [사기]주석서 [사기정의 史記正義]([사고전서四庫全書])에 기재되어 있는 염제의 소 머리 사람 몸(人身牛首)의 형상이 흑피옥문화 우수인신상,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하고 있다.

* 옥룡玉龍, 옥수형결玉獸形玦 :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

교천喬遷 : 염제 씨족의 ‘소전비가 신룡과 접하여 염제를 낳았는데 몸은 사

람 머리는 소였다' [藝術與生命精神] 58쪽 하북교육출판사. 2006,10.

(5) 양 토템

1. 반인반수(半人半獸) : 양수인신(羊首人身) : 고강족(古羌族).

* 帝顓頊 史稱 高陽(角羊), 而帝嚳爲其子婿古稱 “羊角” 見于殷墟司母辛墓出土的“雙鳩尊”(非“鸚尊”)鷹形尊器上奉載之“角”, 有古“羊”字金文可以爲證. “雙鷄”爲夏禹源于官職以來的氏族, [左傳]作“爽鳩”, 稱“爽鳩者司寇也!”(昭公17年)



(6) 돼지 토템

* 신격화 제1단계 : 옥저룡(玉猪龍)(참조 곰 토템, 옥웅룡)

* 신격화 제2단계 : 저수인신(猪首人身)(시위씨豕韦氏. 봉희씨封豨氏).

흥룡와문화(약8200년전-7200년전)



내몽고 오한기(敖汉旗) 흥룡와 人猪합장묘 유적지

내몽고 오한기(敖汉旗) 宝國吐鄉 흥룡와촌 용 형상(돼지 두개골+돌 무지)

묘주인은 부락의 수령급 인물로, 그 오른쪽에 두 마리 돼지가 매장되어 있어 토템숭배의 의미를 띠고 있다. 中国敖汉网 201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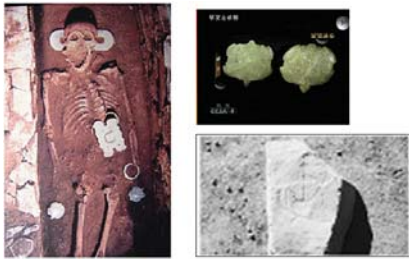
* [산해경 북산경] : 재옥(載玉)은 옥의 머리꾸미개라고 나온다.

옥으로 신들께 제사 드릴 때 신들의 형상은 모두 돼지의 몸에 옥의 머리꾸미개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사 드릴 때는 옥을 사용하지만 묻지는 않는다.

(7) 거북 토템

1. 옥구玉龜 : 천원天鼇神龜. 3차원 공간 조각--> 2차원 평면 부호.

* 홍산문화 우하량 1지점, 5지점 1호층 중심대묘



* [산해경] 해외동경 : 雨師妾在其北，其為人黑，兩手各操一蛇，左耳有青蛇，右耳有赤蛇。一曰在十日北，為人黑身人面，各操一龜。

우사첩이 그 북쪽에 있다. 그 생김새는 검고 양손에 뱀을 한 마리씩 잡고 있는데 왼쪽 귀에는 청사, 오른쪽 귀에는 적사를 걸고 있다. 혹은 열 개의 태양의 북쪽에 있는데 생김새가 검은 몸빛에 사람의 얼굴이며 거북이를 한 마리씩 잡고 있다고 한다.

* 뤼광진雷廣臻 교수 : 천원天鼇神龜 부호 발견, 황제黃帝문화 증거 주장.

뤼광진雷廣臻은 홍산문화 유적지 석판위에 새겨진 黃帝문화 부호 천원天鼇神龜을 발견하고, 이것은 5000여 년 전 고대인들이 이미 석각 도형이나 글자를 사용해서 부족의 기원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일 뿐 아니라, 홍산문화 즉 황제문화에 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녕발현황제문화부호遼寧發現黃帝文化符號> [遼寧日報] 2011,12,28.

2. 명문 흑피옥구黑皮玉龜 : 부호 문자.



[黄帝出军诀] “원구함부元龟衔符”

[尚书中侯] “원구부서고元龟负书叩”

杨天佑,程龍保 [黑皮玉及其文字] 武漢理工大學出版社, 2018,1.



* 천원(天鼈) : 河北省 迁安 安新庄 遗址, 青铜器 族徽 铭文, “天鼈”之“鼈”.



陶质,石质 天鼈形器.

青铜器铭文 天鼈 族徽

(8) 사슴 토템 : 녹신鹿神. 녹수인신鹿首人身

* 大興安岭 鄂倫春 사슴 암각화 : 薩滿教 토템. 녹신鹿神, 녹신鹿仙



(9) 구름 토템 : 구운형 옥패 : 운사雲師

1. 홍산문화 유옥위장唯玉为葬 : 장례제도. 신분질서 사회. 묘제 : 적석총



제1지점 중심대묘

제5지점 1호총 중심대묘

스미소니언박물관 프리어 갤러리 H:5.7cm

* 곽대순 : 우하량 제1지점 중심대묘 일인독존 무인巫人(5500-7500년전)

기능 : 권장과 관련. 勾云形玉佩, 斧钺

구운형 옥패, 玉龟와 같은 신기(神器), 중심대묘에서만 출토.

<紅山文化的“唯玉爲葬”與遼河文明起源特征再認識> [문물] 1997년 제8기.

* 곽대순 <홍산문화구운형옥패연구紅山文化勾云形玉佩研究>

구운형 옥패 : 신권+왕권 결합 상징. 부월(斧鉞)과 같은 위치 출토.

* 뢰광진雷广臻 교수 <홍산문화 황제문화 관계> [조양일보] 2010,4,22.

[좌전] 소공17년 : “옛날 황제씨는 구름을 살폈고, 그래서 운사雲師, 운명雲名”, 구름을 기록함으로써, 구름을 써서 분야를 나누어 운용했고, 분류하거나 구름을 사영해서 일련의 사물을 표시했다 운으로 명한 것은 모두 운雲으로 불렀다.

[3] 동이족 옥 문화 : 동이어 문헌 근거.

(1) 순우기珣玕琪 : 부여산의 홍산문화 옥기 유물에 대한 고유 명사.

1. 의무려산(醫巫閭) : “무우務隅”, “부우附禺”, “부여扶余”

* 医毋闾山 : 东胡人, 山戎人 언어.

[尔雅]之“医无闾”, [淮南子]之“医毋闾”, 与“附禺”, “务禺”, “鲋鱼”一样, 均系“无虑”转音, 又与“珣玕琪”一样“皆东夷语”, 这种语言属于阿尔泰语系, 是周代时占据阜新地区的东胡人和山戎人的语言.

2. 순우기珣玕琪 : 요동지구의 옥문화 총칭. 동이어 고유명사 문헌 근거.

* 清 段玉裁(1735-1815) [说文解字注] 東夷語

珣玕璣合三字為玉名, 玕璣二字又各有本義, 故不連舉其篆也, 蓋醫無閭, 珣玕璣皆東夷語.

* 중국 楊伯達양백달 <순우기고珣玕琪考> [北方文物] 2002년 第2期.

“순우기珣玕琪는 동이족의 아름다운 옥이고, 동이족의 옥 이름을 한자음으로 기록한 것, 즉 동이 옥의 음훈으로서 의무려医无閭 산과 마찬가지로 두

단어 모두 중국어로 표기된 동이어東夷語”라고 밝히고 있다.

珣玕琪是東夷之美玉,而且是東夷族玉名的漢字記音,即東夷玉的音訓,與“医无閭”山一樣,都是華夏音訓留下的東夷語的兩個語詞.

3. 산해경의 영역 : 대흥안령大興安嶺, 발해渤海. 부여.



북쪽 : 有胡不與之國,肅慎氏之國 <大荒北經>. 무우務隅(yú)산 <해외북경>.

서쪽 : 대릉하(大凌河), 노합하(老哈河) 지구 홍산문화 <해외서경>

홍산문화 유적지 내몽고 중부 과이심(科尔沁) 모래 땅 <대황서경>

동쪽 : “辽河源于白岔山东部, 过辽阳, 往东南方注入渤海”. <해내동경>

요녕 지구의 부여문화 : <해외북경>, <대황북경>

* 산해경 : 요하 유역 중심, 부여를 중심으로 한 옥문화 사회의 역사 기록.

* 중국 뤼광진雷广臻(조양사범고등전문학교)교수[朝陽日報] 2010,4,22.

<홍산문화와 황제문화의 관계> “우리들은 <해외북경>과 <대황북경>은 당연히 같은 방향이라고 말한다: 한 방위; 이와 같이 기술된 사물과 길림, 요녕 지구의 부여문화와는 서로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산해경에는 부여에 관한 기술이 매우 많고, <해외북경>의 기록에는“무우務隅(yú)의 산, 제 전옥顓頊은 양에 장사 지냈고, 구빈九嬪은 음에 묻었다.” <대북황기>의 기록에는“부우附禺의 산, 제 전옥과 구빈을 장례 지냈다.” 두 편에 기록된 “무우務隅”와 “부우附禺”, 모두“부여扶余”를 지칭한다. 제 전옥을 이곳에 장사 지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산해경 [산해경 대황북경] 有胡不與之國, 烈姓, 黍食.

호의 부여국이 있는데, 성이 열씨이며 기장을 먹고 산다.

(학의행郝懿行 : 열씨는 염제 신농의 후예 [산해경전소山海經箋疏]).

* 정인보, 최남선 : 夫餘國.

* 형병(邢昺)의 [이아주소爾雅注疏] : 부유(晡與), 청 오임신(吳任信)은 그의 저서 [자안보字匯補] 부유는 바로 부여라고 해석.

4. 부여의 옥문화 : 적옥赤玉, 옥의玉衣,

* [后汉书 · 东夷传] ‘扶余挹婁出赤玉’ 殆皆指此.”

* [荀子 榮辱] 又欲夫餘財蓄積之富也
사람은 누구나 부여 재물을 갖고자 하는 이욕(理慾)이 있다.

* 부여 왕 옥의玉衣(=옥갑玉匣)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 鮮卑 東夷 傳 第三十.

漢時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 公孫淵伏誅 玄菟庫猶有玉匣一具 今夫餘庫有玉璧珪瓚 數代之物 傳世以爲寶 耆老言 先代之所賜也.

한나라 시대에 부여왕은 옥갑으로 장사를 지내는데, 항상 현도군에 미리 맡겨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

[후한서],[위략魏略],[위지魏志],[통전通典],[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책부원귀册府元龜],[태평어람太平御覽],[진서晉書],[자치통감資治通鑑].

[4] 옥 문자 玉 文字

(1) 옥 문자

* 유동청(柳冬靑,내몽고 적봉대)교수:홍산문화 시기 초기 문자 출현 가능성.
여성 신수神獸 옥고玉箍 정면 4글자(그림). 동일 형태의 소옥벽小玉璧 3글자



선사시대 동북 홍산문화 고옥古玉.초기 문자 새겨진 증거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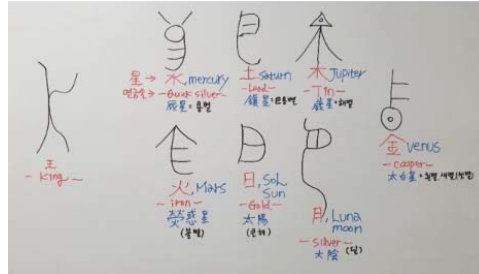
대옥록大玉勒(하변土:홍산유적지채집)삼행9글자 :

일日, 월月, 산山, 우雨, 인人 등.

[홍산문화] 내몽고대학출판사,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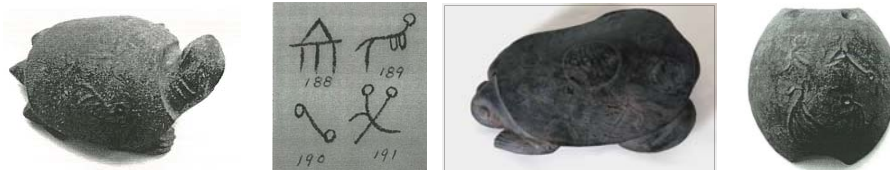
1. 흑피옥문화 옥 문자 : 칠정명문흑피옥구(七政銘文黑皮玉龜)

해+달+오성(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



王 king 水星 mercury 辰星 용별 土星 Saturn 鎮星
 木星 Jupiter 歲星 해별 火星 Mars 熒惑星 불별 日 sun 태양 큰해
 월 Luna moon 大陰 달 金星 venus 太白星 흰별 셋별

* 명문 흑피옥구 :



* [黄帝出军诀] “원구함부元龟衔符”

[尚书中侯] “원구부서고元龟负书叩” [龙龟河图] “대구부배大龟负配”

杨天佑,程龍保 [黑皮玉及其文字] 武漢理工大學출판사, 2018,1.

* <世博看国宝红山古玉国宝档案> CCTV-4, 2010.8.17.



* 명문 옥검 :

홍산문화 옥문玉文 : 봉황 자루 명문 옥검(約20cm X 5cm).



은 갑골문 “冬”자형 옥관玉冠 장식(양자강 유역 능가탄문화). 투성석옥

* 흑피옥문화 옥검 : 새(봉황)토템. 권위 상징.



흑피옥문화 옥검 양면 각 2자. 아래 부분 “冬=終” 은갑골문“冬(=終)”

* 명문 옥검 : 소 자루 명문 옥검(일정한 제작 양식).

* 고소선 갑골문 <천부경> : 은 갑골문 동일 문자



고려말 農隱 閔安富遺集. 묘향산 바위 암각 탁본 《중부매일》 2007,7,11.
은 청동기 <無終戈> 甲骨文 終 : 裘錫圭 <釋“無終”>

* 무종無終 : 산융국山戎國.

無終銅戈 :



갑골문:無終國一孤竹-이학근 고죽 해석(시론 고죽)[사회과학전선]1983.

* 裘錫圭釋出. 裘氏曾撰寫<釋“無終”>[배석규학술문화수필] 북경청년출판사 1999

* 戰國時代 “無終” 三孔布 : 赵国铸币, 山西博物院.

* [漢書 地理志] 右北平屬縣有無終, 原注: “故無終子國.” 其故城在今河北省薊縣(唐初所置的無終縣在今薊縣東面的玉田縣, 所以不少書說無終在玉田).

* [國語 晉語七] 韋昭注: “無終, 山戎之國, 今爲縣, 在北平.”

* 산융山戎=단군檀君: ‘山戎’轉音爲字, ‘檀君’

산융山戎=단군檀君->朝鮮+孤竹->遼東

나는 산융을檀君의聲轉爲字로 친다. ‘山’은 廣韻 小間切. 集韻 師間切, 정운 師姦切, 모두 刪 shan 산 平刪이고, ‘檀’은 성명으로는 집운 時戰切, 소리는 善 shan 去刪으로도 내니, 산과檀의 소리가 같다. ‘戎’은 당운 如融切, 집운 而融切, 정운 而中切로 소리는 絨 Jung 융 平東이고, ‘君’은 당운 去云切, 집운 拘云切, 소리는 똑같이 軍 Chun 군 平文으로 낸다. 戎의 소리 ‘융’은 君의 소리 ‘춘’‘군’의 전음으로 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단군’을 ‘山戎’을 전음위자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땅은 변함없이 그대로 같은 땅이건만 이름은 산戎=檀君->朝鮮+孤竹->遼東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김효신(上古研究所長) [上古研究資料集], 571쪽. 도서출판새남. 1992,4

* 劉雨<殷周青銅器上的特殊銘刻> [故宮博物院院刊]1999年, 第4期

* 陳昭容(대만, 中央研究院) <漢字起源與先秦漢字文化圈形成的初步探索>
<無終戈> 發現於1965陝西綏德縣塢頭村, 同坑出有鼎, 簋, 甗, 壺, 爵, 觚, 獸頭刀, 戈, 鉞等共23件青銅器.

(2) 고죽국 : 고조선

1. 주신 = 속신 = 만주.

<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

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에도, “금의 선조는 말갈부에서 나왔고 옛 속신 땅이라고 칭한다. 청조가 흥기할 때, 만주(滿珠)는 옛날 주신(珠申)에 속한다

고 칭했는데 후일 만주(滿珠)로 바뀌었고 한자로 만주(滿洲)로 변하게 되었다. 실은 옛 숙신(肅慎)은 주신(珠申)의 음이 바뀐 것이다”.

2. 숙신국肅慎國 : [산해경 대황북경] 금충琴蟲.

大荒之中,有山名曰不咸.有肅慎氏之國.有悲蛭,四翼.有蟲,獸首蛇身,名曰琴蟲.

* 숙신肅慎 = 조선朝鮮 = 주신(珠申), 식신(息慎), 직신(稷慎)

[산해경 대황북경]에는, “대황의 한가운데에 불함이라는 산이 있고 숙신씨국이 있다-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것이 있는데 이름을 금충이라고 한다”. 우선, 숙신씨국(肅慎氏之國)은 어떤 나라일까. 정인보(鄭寅普), 안재홍(安在鴻) 제씨는 숙신을 중국 고서古書에서 출현하는 주신(珠申), 식신(息慎), 직신(稷慎) 등과 마찬가지로 조선(朝鮮)을 음사한(音寫)한 별종의 표기로 파악하였다.

* [산해경 대황북경]에는 숙신국 이외에도, 부여국(有胡不與之國), 대인국(大人之國), 속축국(叔歎國,전욱의 자손), 북제국(北齊之國), 시주국(始州之國), 모민국(毛民之國), 담이국(僮耳之國), 무장국(無腸之國), 심목민국(深目民之國), 중편국(中輻, 전욱의 자손), 뇌구국(賴丘), 견융국(犬戎國), 우려국(牛黎之國)과 같은 여러 나라(國)의 이름과 신 우강(禺疆,인면조신人面鳥身), 신 구봉(九鳳,구수인면조九首人面鳥身), 신 강량(彊良,호수인신虎首人身), 공공의 신하 상요相繇(구수사신九首蛇身)와 같은 반인반수 신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으며, 금충(琴蟲:짐승의 머리,뱀의 몸)과 같은 짐승과 짐승의 조합도 함께 보인다. 그리고 「대황북경」에는 황제(黃帝)와 치우(蚩尤) 간의 전쟁 과정에 황제 측의 여발(女魃), 응룡(應龍), 치우 측의 풍백(風伯), 우사(雨師)들이 등장한다.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전설과 신화의 대부분의 주역들이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3. 고조선. 고죽 : 父丁鬻竹光亞

* 고죽孤竹銘 靑銅遺物 : 부정고죽뢰(父丁孤竹壘). 古朝鮮城-灤河-碣石山.



箕侯 명문 方鼎 箕侯 고죽 글자가 새겨진 요서의 상나라 말 청동그릇

* 孤竹銘 青銅遺物 “父丁孤竹壘”



李學勤 <北京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 [考古]1975年 第5期

* 孤竹国 建国时间 [사기 伯夷列传]注引 [索隱]所记:

“孤竹君是殷汤三月丙寅日所封”.是为孤竹侯国.殷墟甲骨卜辞文中称“竹侯”.时在商汤建立商朝之初.一说是商汤十八年(待考), 约公元前1600年.

* 선비족 모용은慕容恩(두로영은豆盧永恩) 비문碑文

乃爲銘曰 朝鮮建國 孤竹爲君



중국 함양박물관 보관

1500년 전 요서에서 활동한 두로영은의 비문에는 '朝鮮建國 孤竹爲君'(조선 건국 고죽위군·조선이 건국을 하고 고죽이 임금이었다)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다. 중국 함양박물관이 보관 중인 이 비석의 문구는 요서에서 고조선이

건국했다는 사실을 그 어떤 자료보다 확실하게 대변한다는 게 책의 주장이다. 1500년 전 선비족 모용은慕容恩의 碑文에도 하북성의 북경 부근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적혀 있다.

君諱永恩字某昌黎徒河人本姓慕容燕文明帝慕容皝之後也. 朝鮮箕子之封 孤竹伯夷之國 漢有四城 秦爲一侯 其先保姓受氏 初存柳城之功 開國承家 始靜遼陽之亂

군의 휘는 영은이고 자는 모某이며 창려 도하 사람이다. 본래 성은 모용慕容이다. 16국 시대 전연前燕을 건국한 문명제文明帝 모용황慕容皝의 후손이다. 기자조선이 봉해진 땅이고 백이의 고죽국이 있었던 땅이고, 그곳에 한나라 때는 사성四城이 있었고 진나라 때는 일후가 있었다. 그 선조가 성을 보존하고 씨를 받았으니 처음 유성柳城을 보존한 공로이고 나라를 열고 가업을 계승하였으니 비로소 요양의 난을 평정했다.

* 비문의 뒤에 붙은 명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乃爲銘曰 朝鮮建國 孤竹爲君 地稱高柳 山名密雲 遼陽趙裂 武遂秦分
이에 명을 붙인다. 조선이 건국을 하고 고죽이 임금이 되었다. 땅은 고류라 칭하고 산은 밀운이라고 불렀다. 요양은 조나라가 분열했고 무수는 진나라가 나누었다.

* 산용山戎=단군檀君 : ‘山戎’轉音爲字, ‘檀君’

산용山戎=단군檀君->朝鮮+孤竹->遼東

나는 山戎을 檀君의 聲轉爲字로 친다. ‘山’은 廣韻 小間切. 集韻 師間切, 정운 師姦切, 모두 刪 shan 산 平刪이고, ‘檀’은 성명으로는 집운 時戰切, 소리는 善 shan 去刪으로도 내니, 山과 檀의 소리가 같다. ‘戎’은 당운 如融切, 집운 而融切, 정운 而中切로 소리는 絨 Jung 용 平東이고, ‘君’은 당운 去云切, 집운 拘云切, 소리는 똑같이 軍 Chun 군 平文으로 낸다. 戎의 소리 ‘용’은 君의 소리 ‘춘’‘군’의 전음으로 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단군’을 ‘山戎’을 전음위자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땅은 변함없이 그대로 같은 땅이건만 이름은 山戎=檀君->朝鮮+孤竹->遼東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김효신(上古研究所長) [上古研究資料集], 571쪽. 도서출판새남. 1992, 4

* [漢書 地理志] 右北平屬縣有無終, 原注: “故無終子國.” 其故城在今河北省薊縣(唐初所置的無終縣在今薊縣東面的玉田縣, 所以不少書說無終在玉田).

* [國語 晉語七] 韋昭注：“無終，山戎之國，今爲縣，在北平。”

古朝鮮 言語 文字 解

김창주 (한국고대문자연구소장, 한국백제문화연구소장)

◎ 古代語의 “發音” 解

“國”자를 현대에서는 우리들은 “나라 국”이라고 읽는다.

그렇다면 2천여년전 高句麗, 百濟, 伽倻, 新羅 지방에서는 “國”자를 어떻게 發音하였을까?

“나라 국”의 “國”자는 그당시 중국 華河族들의 發音을 적은것이고 우리민족은 앞부분인

“나라”라고 읽었다. 다시말해 “國”=“나라”로 發音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나라”라는 發音을 高句麗, 百濟, 新羅, 伽倻국이 함께 使用하였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첫째로 高句麗에서는 “다라”라고 발음하였다.

한자로는 “國”자를 사용하지않고 音價를 빌려와 “達”로 쓰고 “다라”라고 읽었다.

“다라”라는 發音은 현대어의 “땅”=“도읍”=“국가”와같은 뜻이다.

둘째로 百濟에서는 “國”자를 “나라”라고 읽었다.

현대의 “나라 국”과같은 發音이다. 韓半島 中部地方에 百濟의 都邑이 있었기 때문에

現代에도 그대로 傳來되어 發音된다.

다음으로 伽倻地方에서는 “國”자를 “가라”라고 읽었다.

이는 新羅國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정리해보면 “國”자를 高句麗, 百濟, 新羅, 伽倻 모두 다르게 發音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약2천여년전 한반도로 이주해온 4나라의 祖上들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新羅는 “김알지”를 祖上으로 하는데, 김알지의 조상은 흉노족이며,

한나라 무제때에 장수 광거병에 의하여 그의 母親과 함께 포로가 되어 한나라 무제의 말을

돌보는 일을 맡으며 出世하여, 한무제에게 “金”이라는 姓氏를 하사받아 “金”씨의 始祖가 되었

다고 전해진다. “김일제”라는 이름은 名辭가 아니며, 職級, 官職을 나타내는 大名辭이다.

“金日磾”의 “日”은 옛발음으로 “알”이며, 華河族들은 사투리로 “일”이라 發音하였다.

“日”은 곧, “알 일”로 앞부분의 “알”은 배달민족의 發音이요 “일”은 華河족의 發音인 것이다.

“磾”은 “돌석+매미선”의 합자인데 돌매미, 卽 “옥돌로 만든 매미용”을 나타내는 글자로써

“옥으로 만든 매미용을 패식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祭司長”, 天君 이다.

“磾”를 華河族은 “제”로 發音하며, 우리 겨레는 “지”로 발음한다. “日磾”란 “알지”로 읽힌다.

“金”이라는 姓을 下賜받은 動機가 “玉”으로 祖上을 彫刻한후 硯물에 盪金한 “金人”을 만들어서 하늘에 天祭를 지냈기 때문에 한무제가 “金”씨를 下賜하였다고한다.

“金日磾”는 古代 新羅語로 “금알지” 또는 “검알지”로 읽힌다.
 “日磾”라는 직책은 남자만이 天君, 祭司長을 지낸 것이 아니다.
 男性를 부를 때는 “알지”로, 女性의 天君을 부를 때는 “알씨” 또는 “아씨”라고 불렀다.
 “日磾”=“알지, 아씨”로 읽히며 “태양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뜻이다.
 후일 新羅의 “김알지”는 이름이 아니라 天君이라는 뜻의 “金日磾”의 大名辭이다.

지금도 慶尙道 地方에서는 “ㅎ”의 음가를 “ㅋ”으로 發音한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新羅의 祖上인 “匈奴”라고 불리운 民族이 그들의 뿌리인데,
 현재의 中國 北西部의 감숙성과 청해성 신장위구르 및 몽골영토에서 거주하던
 단군조선의 삼한중 “변한, 변한”인들로서 “匈奴”는 중국인들이 “韓”의 음가를 빌려와
 가장 흉악한 오랑캐라는 뜻의 假借音字인데 “匈奴”로 使用 하여 “한”으로 發音되며
 즉, “韓”이다.

“흉노”란 변한인들로 약 3천년전경 단군조선의 서쪽변두리 민족인 변한을 말한다.
 이러한 변한인들은 現代의 韓半島 南部地方으로 이주해오면서 新羅를 만들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사투리를 가지고 왔다. 伽倻國의 시조인 김수로왕은 인도출신 가문의
 허씨황후와 結婚하여 김해지방의 “금관가야”를 건설한다.

약2천5백여년전 인도의 아유타국이 政治적으로 어지러울 무렵, 현재의 중국 사천성으로
 이주해온 허씨집안은 조상대대로 단군조선의 삼한중 변한인들의 피가 섞인 인도의
 王族집안으로써 王權을 놓고 兄弟들의 전쟁에서 밀려 중국 사천지방으로 이주한다.

“허”라는 성씨는 중국에 이주해오면서 받은 성씨로써 허황후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사천성지방의 지방왕으로써 將軍의 직책도 하사받았다. 김수로의 아버지 이비아지의
 祖上들또한 그당시 사천성 보주시 근내에서 허씨 집안과 相通하며 함께 지내던 집안으로
 왕망이 “신”나라를 건립하게 되면서 逆賊으로 몰리며 먼저, 이비아지가 韓半島에 定着하여
 아들 김수로가 가야제국을 만들고, 허씨황후가 사천성 보주시에서 양쯔강을 타고 南下하여
 수로왕과 함께 가야국을 건설한다.

“가야, 가라”는 “나라 國”의 “나라”의 사투리 發音을 한자를 빌려와 假借한 文字이다.
 “가야”는 卽, “나라”國이다. 백제는 소서노로부터 시작한다. 단군조선의 侯國 부여왕 구태와
 結婚하여 비류를 낳고, 구태가 죽자 27살나이에 19세의 젊은 고주몽과 結婚하여 온조와 감아
 를 낳고, 주몽의 死後 배다른 자식인 고구려2대왕 유리와 사이가 틀어지자,
 비류, 온조와 함께 南下하여 百濟를 만든다,

소서노는 夫餘, 高句麗, 百濟 3국을 만들고 다스린 왕중에서도 최고의 女皇帝이다.
 소서노와 비류가 죽고 둘째 온조가 시조가된 백제국은 부여의자왕때까지 약700년간 韓半島
 및, 동아시아의 해상을 제패하는 맹주로 군림한다. 백제에서 사용하던 당시의 文化, 文物 및
 모든 社會傳統이 대부분 현재의 韓半島 南韓地方에 그대로 傳受되어오며, 言語또한 現代語와
 別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百濟 初基 북쪽지방 夫餘에서 南下한 王族임으로 현재의 東北三省 지방의 사투리가

百濟語의 根幹을 이루며 發展해왔다.高句麗 또한 百濟와 한핏줄로 소서노,고주몽에 의하여 建國되고 아들 유리가 고구려 2대왕으로 약700년간 동북아시아 대륙의 맹주로 군림하였었다.

百濟와 高句麗語의 特徵중에 漢字의 音價를 빌려와 사용한 예를 살펴보자.

백제어로 “慰禮”라 적고 초성 자음만을 취하여 “울”로 읽는다.

“울”이란 古代 夫餘 地方에서부터 使用하던 고대조선인들의 固有 發音으로 都邑을 뜻한다.

반면 “德”이라 사용 되어진 地名들은 “담노”,“담나”,“탐나”로 발음되는데 ,

이는 정복한땅,즉 植民地를 말한다 “담나”는 “담수”로도 使用되며 ,마찬가지로 征服한

領土를 말한다.高句麗에서는 또한 “다물”이라고 하여 정복한땅을 가리킨다.

高句麗,百濟는 5夫族,5方城등 5라는 숫자를 重要시 여겼는데 이는 中央의 王城을 中心으로 東,西,南,北 四方城을 놓고 王이 中央에서 統治하는 5城中心制로 작은 소규모의 邑,城들은 이러한 5方城의 指揮下에 存續하였다.

이는 高句麗 滅亡後 渤海에서도 똑같은 5방성의 傳統을 갖는다.

이러한 中央의 임금성과 4方城은 色으로 表現하였는데,중앙은 황색,북쪽성은 검은색,

동쪽은 푸른성,남쪽은 붉은성,서쪽은 흰성등이다.북쪽의 검은성을 “金”자로쓰고 “검성,검은성”이라 불렀고,後日 “검”성이 異邦人들의 사투리에 의하여 “고마”로 쓰이며,

한자의 “熊”자를 빌려와 “熊城”이라고도 하였으나,이는 本來의 “검은성”의 뜻에서 상당히 벗어나 버리는 結果를 초래한 것이다. 고대어는 현대 우리가 표준어로 사용하는 발음 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현대에도 각,도,지방별로 사투리가 쓰이듯이 고대어에도 같은 겨레이지만 대륙의 북서지방,북동지방어가 당연히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古代 各 地

方별로 漢字를 빌려와서 소리를 文字로 表現할 때 發音하는 것에 따라서 漢字를 빌려와 표기 하였으므로 각 나라별로 같은 글자가 아닌 다르게 表現된경우가 많다.결론적으로 원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한자는 뜻으로 使用되기보다는 發音되는 音價를 빌려와 사용한 예가 더욱많다, 특히 ,地名 및 人名등은 뜻보다는 소리에 맞추어 漢字를 빌려와 使用하였음을 銘心하여야 하

겠다.

고구려의 集安市를 “집안”이라는 고유 우리말 소리에서 음차한 漢字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말그대로 “집의 안”을 漢字로 “集安”이라고 表記한 것이다. “집=나라,안=내” 이기 때문에

“國內”라 쓰고 “집안”이라고 읽는다. 다시말하여 “국내성=집안시”인 것이다.

백제의 地名중에 “안성” ,漢字로는 “安城”이 있다.하지만 “安城”을 “안성”이라고 읽으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옛 백제시기에는 “내우리”또는 “내울”로 불렀다. “내울”은 말그대로 “안에

있는 읍,성을 뜻한다.이는 곧 古代人들이 漢字를 빌려와 어떻게 使用하였는가하는 例示이다.

古代語를 解讀함에 가장큰 誤謬는 現代式의 思考方式의 解讀에서 나온다.古代語를 解讀함에 옛 소리를 알고 어떻게 漢字를 빌려와 使用하였는지를 알고난후 解讀에 임하였을 때

온전한 結果物을 찾을수 있는 것이다.

◎ 古代文字 解



위의 古代 玉器는 玉을 彫刻하여 鎔鑄爐에서 쇠물로 合金한 金玉彫刻像이다.
현재 中國 北京의 大衆化博物館에서 展示하고 있으며,收藏者는 항주의 동검이다.

먼저 위 옥기의 形狀學적 解를 하여보면, 양쪽에 2마리의 龍이 있고,中央에 太陽을 象徵하는 圓形의 玉璧이 彫刻되어있다.2마리의 龍으로써 王의 統治 權力을 나타내었으며,太陽을 彫刻 함으로써 위 玉 彫刻像은 “帝王의 絕對權力이 해뜨는 國家에 고루미친다”를 表現하였다. 양쪽의 龍이 하나의 몸으로 連結된 模樣은 龍의 國家를 象徵하며,中央의 玉璧은 하늘의 太陽 그 自體로써 帝王을 象徵한다.



는 “사람”이다 漢字의 “人”이다.

Q J18657	Q J18658	Q J18659	Q J18660	Q J18661	Q J18662
Q J18664	Q J18665	Q J18666	Q J18667	Q J18668	Q J18669
Q J18671	Q J18672	Q J18673	Q J18674	Q J18675	Q J18676



는 “아래”이다.원래의 음가는 “아애”이다. 아래의 뜻을 갖는다.
漢字로는 “下”의 古代 玉器原文이다.

Q L17177	Q L17178	Q L17179	Q L17180	Q L17181	Q L17182	Q L17183
Q L34992	Q L34993	Q L34994	Q L34995	Q L34996	Q L34997	Q L34998
Q L34999	Q L35000	Q L35001				



는 “임금”이다. 漢字로는 “王”이다.

Q B00425	Q B00426	Q B00427	Q B00428	Q B00429	Q B00430	Q B00431
Q B00432	Q B00433	Q B00434	Q B00435	Q B00436	Q B00437	Q B00438



는 “위”이다.원 고유음가는 “우애”이다.
漢字로는 “上”이다.



+



= 2글자가 합쳐지면 왕중의 上王 卽, 帝王의 王 皇帝이다.



위 옥기의 2글자가 合體되어 王中の 上王, “皇帝”를 나타낸다.



綜合적으로 解 하여보면,
“사람은 아래있고 , 임금은 위에있다”라고 해독된다.



는 “사”의 고대 원형이다.

古代에는 子音を 文字로 表記하고 母音 “ㅏ”, “ㅣ”, “ㅓ”, “ㅑ” 등 여러 가지는 子音의 어순에 의 하여 적절히 使用하였기 때문에 위글자는 “사”이다.漢字로는 “人”이며 “사람 人”의 玉文이다. 이 文字로써 古代 玉文은 韓民族이 創製한 文字임이 證明된다.



는 “아” + “애”의 合字이다.

“아”는 李氏朝鮮 세종이 만든 한글에서는 “우”로 發音되지만,古代에는 “아”라고 읽었다.
“아”는 “一” + “ㅣ”로써 卍침이 地面 밑에 있음으로 “아래”의 뜻을 나타내는 “아”이다.
“아” 양옆에 써있는 “ㅣㅣ”는 “애”의 음가를 갖는다,古代엔 “ㅣㅣ”=“애”이다.
綜合적으로 合字하여 解 하여보면 “아”=아 + “ㅣㅣ”=“애” = “아애”이다 .
“아애아”로 읽으며,“아래하”는 “아애아”의 사투리 발음이다.

“아애”는 “아래”의 고대 우리말이다.
이얼마나 , 뛰어난 문자인가 “아래하”의 漢字 原文이려니와,고 한글의 元形을 찾은 것이다.



은 “ㄴ”의 古代 元型 글자이다.

“ㄴ”은 母音“ㅣ”와 만나 “니”로 發音되고, 훗날 “님”으로 發展 하게되는데,
“스”또는 “金”과 함께 쓰여 “님검”으로 發音되어 使用되어 왔다.
“工”은 “ㄴ”의 固有 소리를 나타내며, “임금왕”의 元型글자임에 우리선조들의
뛰어난 文字 創製 能力에 다시 한번 感歎하게된다.
뜻글자는 수만가지로 分流되지만,소리글자인 “자.모음”은 많지않은 알파벳의 原理만 알게되면
여러 가지 ㅅㅅ가 만들어진다.현재의 한글,서양 알파벳과 같은 原理이다.
소리글자 한글 원형 알파벳의 起源을 찾은 것이다.

古代에는 字音 爲主로 表記하였는바, 初聲의 “ㄴ”이 終聲에 反復되는 古代語의 特徵을 접해
보면 初聲“ㄴ”이 모음“ㅣ”를 만난후 終聲“ㄴ”이 反復됨으로 “工”=“닌”으로 發音된다.
“닌”은 “잉”으로 發音되다가 ,華河族들의 사투리로 “왕”으로 發音한 것이 現在까지 傳來됨을
알 수 있다.

“工”은 “닌”이라 읽은 것이 “닌”→“잉”→“왕”으로 발전하였다.



는 는 “ㄴ” + “ㅍ”의 ㅅㅅ이다.

“ㄴ”은 李氏朝鮮 세종이 만든 한글에서는 “오”로 發音되지만,古代에는 “우”라고 읽었다.
“ㄴ”은 “一” + “ㅣ”로써 ㅅㅅ이 지면위에 있음으로 “위”의 뜻을 나타내는 “우”이다.
“ㄴ” 양옆에 써있는 “ㅣㅣ”는 “애”의 음가를 갖는다,古代엔 “ㅣㅣ”=“애”이다.
綜合的으로 ㅅㅅ하여 解 하여보면 “ㄴ”=우 + “ㅣㅣ”=“우” = “우애”이다 .
“우애우”로 읽는 것이 배달 겨레 고유의 언어이다.
“우애”는 “위애”의 古代 우리말이다.



結論的으로 “사”는 “아애”있고 “닌”은 “우애”있다.
“ 사람은 아래있고 님금은 위에 있다”로 解讀된다.

玉文新篇

(옥문신편은 고대 옥기 원형문자를 연구하여 편찬하는 책이다)
아래는 중국 호북성 무한 대학교에서 발행한 도서를 해독하였다



중국 호북성 무한대학교에서 출판한 玉문자를 集書한 책의 내용중 제일먼저 등장하는 매미용의 몸에 나타나는 문자이다.



는 좌변과 우변의 2글자의 合字인데, 먼저 좌변의 글씨는 “실”이다.

우리가 흔히 한자에 익숙해져 “絲”를 실로 생각하는데,한자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2천년전에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여러 민족들이 갑골문,금문등을 약식기호와 파생된 형식의 文字로 사용하던 여러 書體들을 모아 다시,그당시에 임의대로 해석하고 編輯,製作한 글자가 漢字임으로 한자를 盲信한다면 약4천년전후에 玉 문자 해독에 크나큰 우를 범하게된다. 아들문자가 증고조 할아버지 文字와 같을수 없음이다.

우변의 글씨는 낚시바늘+추가 합체된 “바늘”이다.
두글자가 합쳐져 “낚시”,“낚다”의 뜻을 만들었다.

한자로는 “釣”의 뜻을 갖는다. 한자의 낚시조 라는 글자는 쇠금+구기작이 合體된 글자로서 華河族에 의하여 後代에 편의상 만들어진 글자이다.



는 “물고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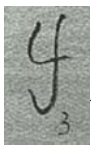
한자의 “魚”에 原組가 되는 글자이다.

아주 오래전 上古時代에는 그림에서 기호로 기호에서 文字로 變化하였다.

玉文,또한 象形文字이다.

여러 特徵들을 보면,玉文字에 나타나는 特徵들이 多數있으며 아래와같다.

- 1.體系的인 文法構造가 있다.
- 2.子.母音이 分離된다.
- 3.基本形 글자들이 모여 畵字를 이룬다.
- 4.具體的인 單語가 등장한다.
- 5.主語.敍述語.目的語 등이 있다.
- 6.文章으로 만들 수 있다.
- 7.甲骨文,金文 이전에 元始文字이다.



는 물고기를 잡은후, 여러마리를 꿰어 놓는 “갈고리”이다.

漢字로는 “鈎”갈고리구 와 對應된다.

上古時代의 갈고리 문자와 우리가 알고있는 漢字는 전혀 개념부터가 다르다.

후대 쇠금+올가미구 합쳐져 만들어진 “鈎”는 상고 玉文시대와는 전혀 다른 文化를 보인다.

古代를 研究할수록 古代人의 社會,文化등의 全般的인 理解가 必要하다.



낚시

물고기

갈고리



매미용의 양쪽 귀 부분의 文字이다.

우리가 아는 한자는 어린아이를 表現할 때, 使用할 만한 글자가 별로없다.
“少女” 등이다. 한글자로 表現하는 한자는 없는 것이다.
“幼兒”이런식으로 2글자로 表現하여야한다.

하지만,古代 上古時代 初期 文字 時代에는 달랐다.

단, 한 글자로도 對象을 表現하기 쉽게 했던 것이다.
사람을 표현하는데 최소 6개 이상의 글자가 存在한다.
性別,나이 등의 기준에 따라 “人”의 여러 글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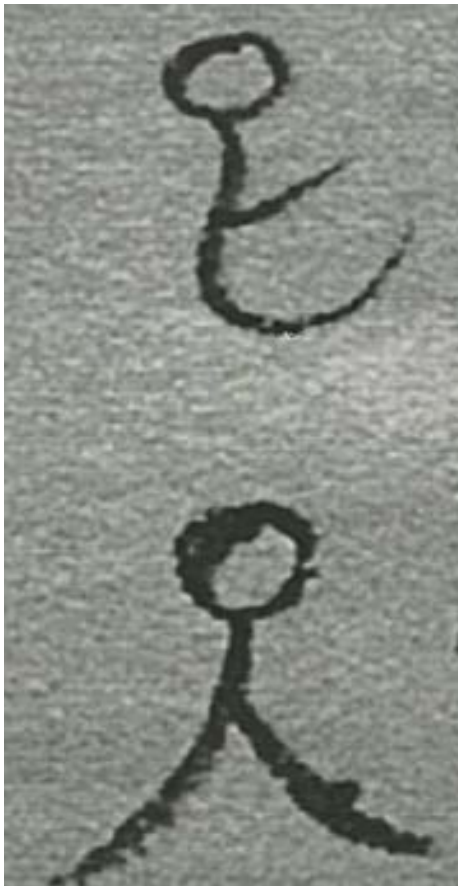
는 갓난아기이다.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어린아기이다. “어린아기”
발로 걸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文字이다.
漢字의 “倪”에 對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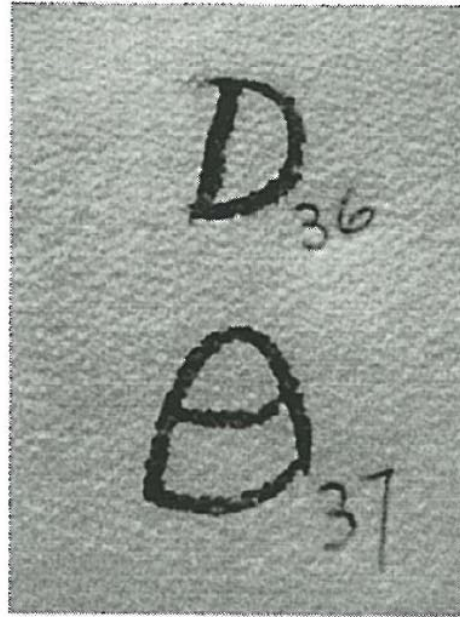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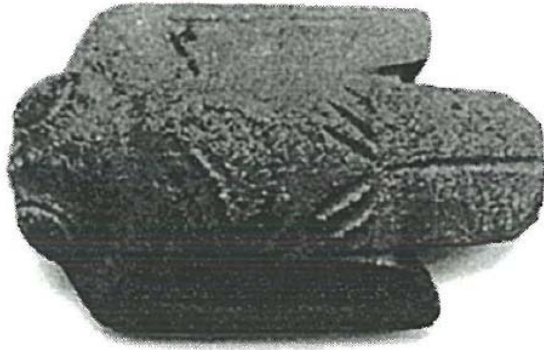
는 이제막 걷기 시작하는 하는 “어린아이”이다


現在時代의 幼稚園에 다닐정도의 아이를 表現한 上古時代 文字이다.
한자의 “幼”에 對應된다.



아 기

어 린 이



 는 “月”자의 上高古玉文字이다.

古代文字 解讀의 과정에서 愚를 범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하다.

비좁은 近.現代의 文字體系의 틀에 思考力 . 觀念이 잡혀있어
옛날 文字를 올바르게 解讀하지 못하고 큰 岩壁에 부딪힌다.

한글은 불과 600여년. 漢字는 불과 2000여년 .영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上古時代 고대 玉문자는

그림에서 기호로 , 기호에서 상형문자로 꾸준히 進化하며

完成 되기까지 數千年의 歲月이 지나서 完成되었고,

지금으로부터 약4500~3500년전에 주로사용된 玉문자들이다.

물론, 下流層이나 平民등은 전혀 , 볼수도 알수도 없는 文字였고

같은 族屬이 아닌 外人들도 알 수 없는 上流層 絶對權力 特權層이

主軸인 神殿 祭司長,王室,書庫 등에서 주로 使用하던 玉문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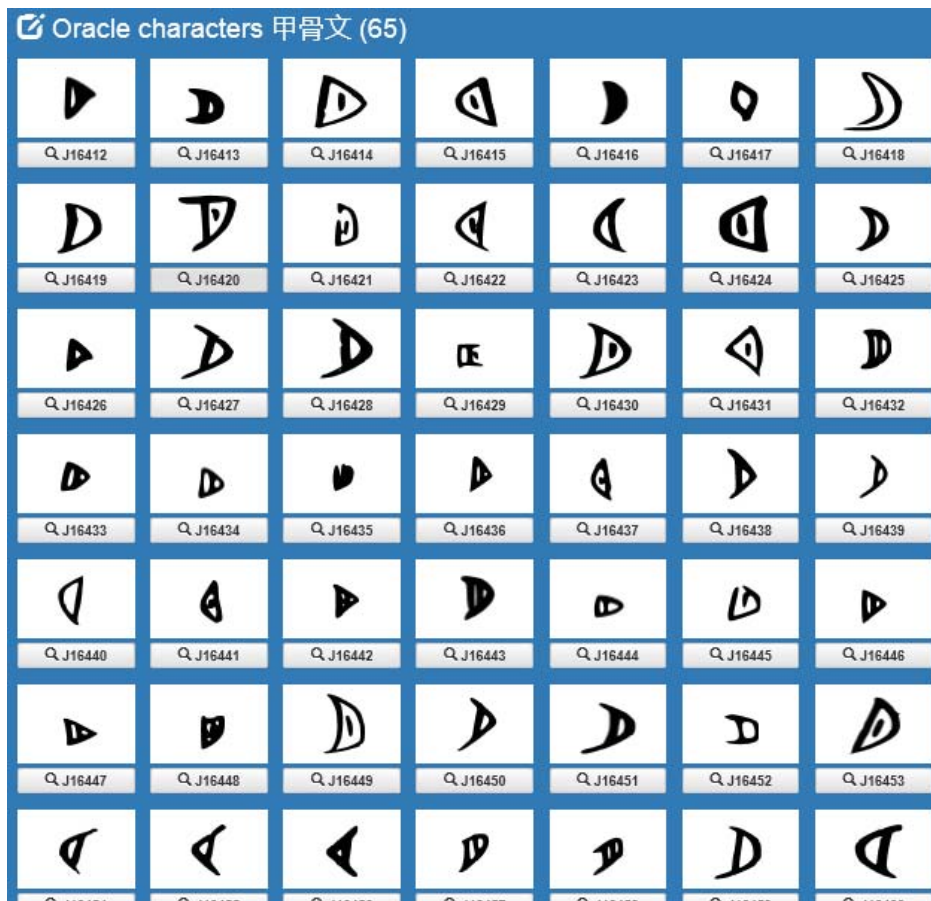
위 玉文字들이 世代를 거듭하면서. 變形되고 略式記號등 여러族屬들이 각기 派生된

글자를 生成하여 여러 書體로 만들어 使用해왔으며,

現在의 漢字또한 위 玉문자가 基本으로 오랜기간 지나오면서,

變形 派生된 글자인 갑골.금문 이후의 글자임을 直視하여야 한다.

後代에 製作된.한글.한자.영어 기타 外來文字들의 既存들을 過感히 脫皮 하여야한다.



달 “月”의 甲骨文



는 “일”이다.

古代音價로는 “양’이다.

上古時代 太陽을 “아”+“ㅇ”로 發音하였다.

初聲의 子音은 終成의 子音으로 反覆되는 規則이다.

“양”이 “알”로 變化되고 “알”이 “일”로 變化 되었다.

무려 , 4천년간에 일어난 音價의 變化이다.

“양”의 “ㅇ”이 “ㄹ”로 變化된 이유는 子音接變이며,

“알”이 “일”로 變化된 이유는 華河族의 사투리 發音이 “일”이기 때문이다.

Oracle characters 甲骨文 (231)

Q J15852	Q J15853	Q J15854	Q J15855	Q J15856	Q J15857	Q J15858
Q J15859	Q J15860	Q J15861	Q J15862	Q J15863	Q J15864	Q J15865
Q J15866	Q J15867	Q J15868	Q J15869	Q J15870	Q J15871	Q J15872
Q J15873	Q J15874	Q J15875	Q J15876	Q J15877	Q J15878	Q J15879
Q J15880	Q J15881	Q J15882	Q J15883	Q J15884	Q J15885	Q J15886
Q J15887	Q J15888	Q J15889	Q J15890	Q J15891	Q J15892	Q J15893
Q J15894	Q J15895	Q J15896	Q J15897	Q J15898	Q J15899	Q J15900
Q J15901	Q J15902	Q J15903	Q J15904	Q J15905	Q J15906	Q J15907
Q J15908	Q J15909	Q J15910	Q J15911	Q J15912	Q J15913	Q J15914
Q J15915	Q J15916	Q J15917	Q J15918	Q J15919	Q J15920	Q J15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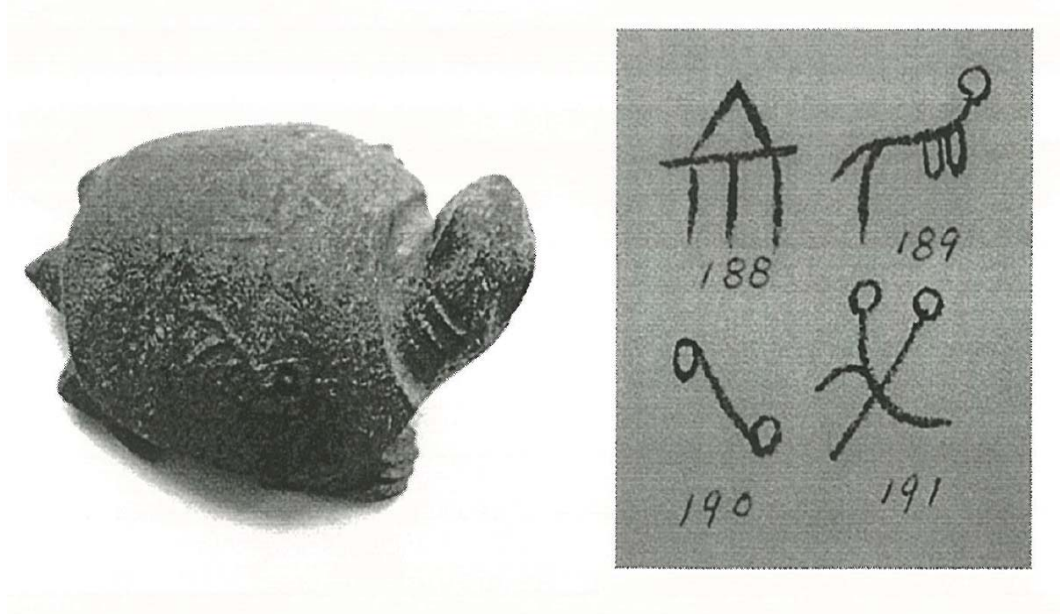
“日”의 甲骨文

“雄”또는 “熊”의 글자는 古代에 “웅”이 아닌 “양”으로 發音되었다.
이러한 緣由를 모르고 現代까지도 “雄”.“熊”의 뜻을 歪曲하는
事例들이 發生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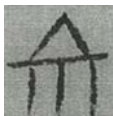
太陽을 뜻하는 글자로 약2천년전 “양”의 發音을 위하여
빌려온 音差文字이다.

“雄”.“熊”는 “양”으로 읽히며, 太陽을 뜻한다.

고마,거마,가미 등이 “太陽神”이라는 뜻을 갖는 이유도
“熊”의 “고마양”發音이 後世에 음차로 빌려온 漢字를 버리고,
음가로 “太陽神”의 뜻을 갖게 되었다.



위 목돌아간 거북玉의 4글자 모두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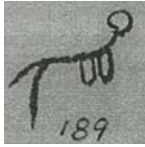
는 지붕이 있고 나무로 2층을 만들은 “집”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家”는 집안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뜻으로 만든 漢字 이지만,
北方民族인 배달 겨레는 집에서 돼지를 키운적이 없다.

別途의 家畜 우리에 대한 文字는 다음편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물난리,짐승,뱀등을 피하고 습하고 풀많고 벌레가 끼는 땅보다는 2층이상 높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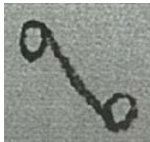
木造住宅 위에서 生活하였던 것이다. 당시 生活相을 볼수 있는 귀중한 文字이다.
한자의 “家”에 對應 된다.



이글자 또한,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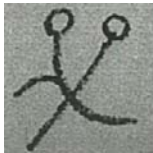
女性이 後背位 자세로 男性과의 性交를 기다리는 글자이다.
우리 배달겨레는 “집”으로 發音하였고, 화하족의 사투리로는 “십”으로 發音하였으므로
현대 사회에서도 “십”, “씹”은 女性의 陰部를 表現하는 卑俗語로 轉落하였다.

하지만, “집”이 올바른 表現임으로 고쳐써야한다.
“계집”, “기집”이 올바른 女性의 生息에 관한 表現이다. 한글자로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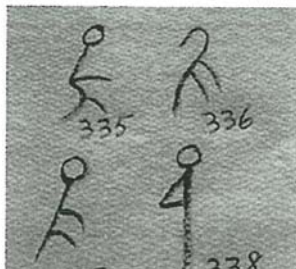
이글자도 “집”이다

한자의 “集”에 대응된다.
男性과 女性이 合體된 모습을 단순화한 글자로써,
“만나다”, “모이다” 뜻을 갖는 “집”이다.
女性과 男性의 머리 부분을 相反시켜 만든 아름다운 글자이다.



이글자도 “집”이다.

男性과 女性이 하나로 合體된 모습의 象形文字로써, 像型記號에서
상당히 發展된 玉期시대 文字로써, 文字의 세련됨이 돋보인다.
“sex하다”, “접하다” 등의 뜻을 갖으며,
“性交”, “接合” 등의 單語와 大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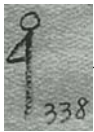
龍과 人間の 形狀이 絶妙하게 造化된 옥도끼의 명문4글자이다.



는 “아버지”이다.

漢字의 “父”의 원형으로 上高古玉문자시대의 原形문자이다.

“父”는 2천여년전 華河族의 그릇된 解釋처럼 도끼를 들은 모습이 아닌 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表現하였음을 올바르게 認知 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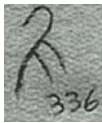


는 “어머니”이다.

漢字의 “母”의 元根문자이다. 집안의 주인으로 등을 꽃꽂이 세워 만든文字이다.

女性의 乳房을 員,方,角의 角으로 表現한 아주 發展된 상형문자이다.

위의 각“△”은 앞으로도 종종 古代玉문자에 登場한다.



는 “할아버지”이다.

漢字의 “祖父”에 대응된다. “grand father”

“할아버지”는 “한아버지”의 구계음화,자음접변으로 “ㄴ”“이”ㄹ“로 변화한

代表的 例이다. “한아버지”는 사투리로 “큰아버지”이며,

“한”=“큰”이다, “할아버지”=“큰아버지”이다.

老人이되어 등이 굽고 “人’에 지팡이를 짚고 , 머리의 상투를 풀어헤쳤다.



는 “할머니”이다.

漢字의 “祖母”에 해당한다. “grand mother”

“할머니”는 “한어머니”의 음가탈락법칙에 의하여 “어”가 탈락된 代表的 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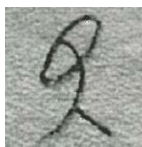
“한어머니”가 표준어로 “할머니”는 “큰어머니”이다.

어머니,아버지,할머니,할아버지의 文字는 “人”의 글자에서 무한대로 派生되는

玉문자의 變化와 連續成을 極明하게 보여준다.



위의 玉문자는 祖上들의 위대하고,뛰어나며 創作的인 文字革命의 最高的 가치를 갖는 文字이다.



는 “남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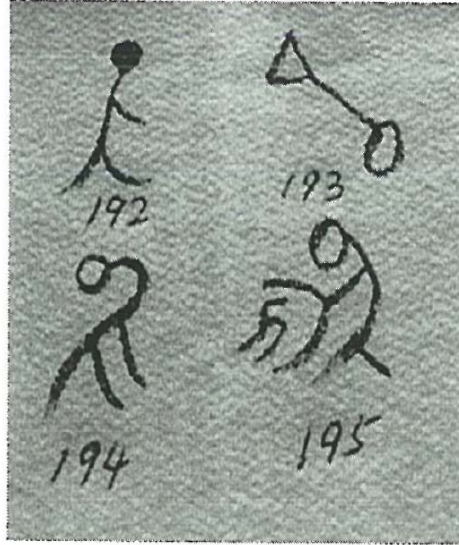
“日” + “人”의 合成문자로서, 太陽의 人間, 男性을 太陽으로 表現하였으며, 남자를 “陽”이라 표현한 古代 文獻資料들과도 一脈相通한다.

華河族이 2千年前 解讀할 당시의 “男”은 밭에서 일하는 힘 “田”+“力”으로 解釋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古代에 동이 배달족에게서 玉文字를 傳受받고, 제대로 解讀하지 못함으로 後世에 온전한 뜻을 전하지 못하는 글자로 바뀌었다.



는 “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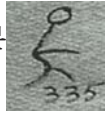
“月”+“人”의 합성글자로 초생달처럼 예쁘게 얼굴을 表現 하였으며,
 한쪽다리를 살포시 구부려 文字의 藝術的 아름다움을 極大化한 놀라운 글자이다.
 漢字의 “女”의 元型 玉文이다. “陰”은 “女”라는 대목과도 一致한다.



위의 거북이등 모양의 玉에 4글자 또한,現代 社會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일하고 집으로 향하는 내용이다. 古代와 現代의 時間差를 무색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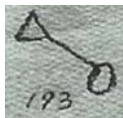


는 위에서 본  와 같은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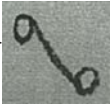


아버지“父”이다. 그런데 주목할점은 머리부분의 玉조각 부분이다.
 일부러 머리를 陰刻으로 파내지 아니하였다.

이는 곧,젊은 머리 검은 男性임을 말한다,結婚 한지 얼마 안되는 “아버지”
 즉, “젊은아버지”=“신혼아버지”를 나타낸 글자이다.



는 위에서 배운  와 같은 “집”이다.



그런데,특이할점은 193번 문자의 좌측 상단이 삼각형이다.
 이는 곧,女性的 乳房을 말하며 “젊은어머니”=“젖줄수있는어머니”를 뜻한다.
 193번 문자의 右側 下段은 기울어져 있는데,이는 곧 할머니이며

집안에서 서열이 “젊은엄마”보다 아래를 뜻한다.

예나 지금이나 萬古의 세월이 흘러도 고부간을 아주 적절히 표현한“집”의 고대 玉문이다.

藝術이라 가히 極讚할만한 글자이다.

解讀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散在 하여,어렵고 고달픔이 엄습하였으나.

한순간에 고통이 없어지게 만드는 위대한 文字이다.

古代人들의 영리함과,예술적 문자에 극찬을 보낸다.



는 어머니가 갖낱은 자식을 보살피는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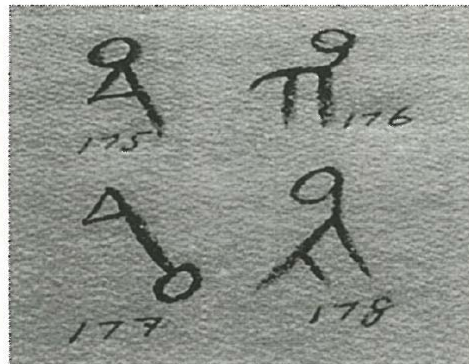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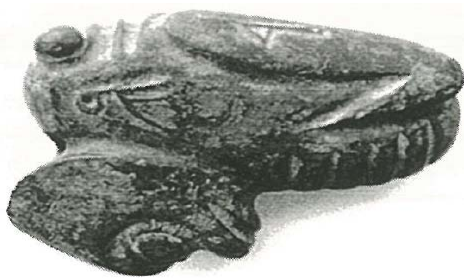
“愛”, “好” 한자의 原根문자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文字인가?

문장을 全體적으로 보게되면,

“남편이 일하고 어머니와 마누라가 있는 집에 들어간다.

어머니는 귀여운 자식을 돌보고 있다.“



매미의 머리위에서 龍이 나오며 龍으로 탈바꿈하는 玉調이다.

매미에서 매미용이 나옴을 아주 친절히 보여주고 있다.
절대.熊(곰)猪(돼지)용이 아님을 다시한번 想起하도록 하자.



는 위에서 본대로 “어머니”=“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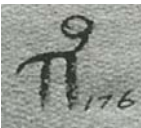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으나 위에 매미옥기 原文에는 똑바로 서있다.

집안에서의 女子는 古代나 現代나 最高의 權力을 행사 하였나보다.
(허리를 꼴꼴히 세우고 유방을 지켜든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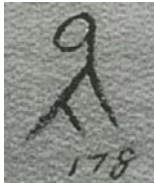
위에서 배운대로 “집”이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共存하는 , 함께사는 집이다.



“개”다

다자란 큰 , “成犬”이다. 어미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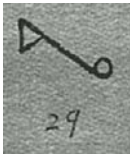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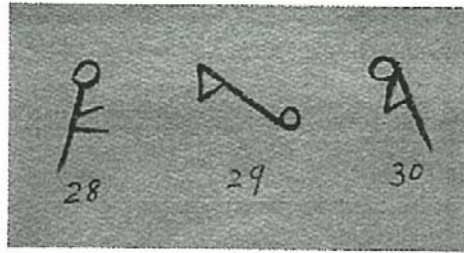
“강아지”이다.

뒷발이 짧고 ,꼬리가 땅에 닿은 모습의 상형 문자이다.
우리 선조들의 文字 創製能力과 諧謔에 깊은 박수와 喝采를 보낸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사는집에 어미개와 강아지가 함께산다”
남자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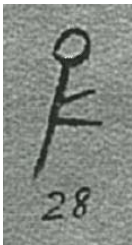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일하러 나가거나, 戰爭터에 가거나 , 이래저래

여하튼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돌아 다녔나 보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이다.

이 “집” 또한 서열이 “젊은엄마”가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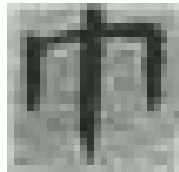
“할머니” 卽, “祖母”이다.



“어머니” 卽, “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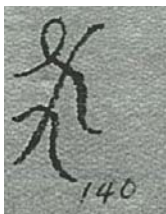
는



오른손 “右”와 투구를 쓴 “人”의 合成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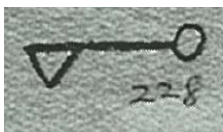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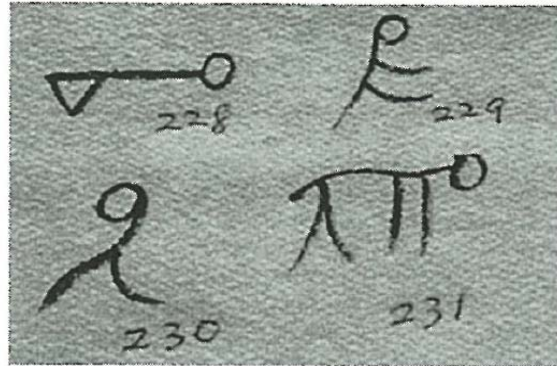
한자의 ‘將’에 대응한다.

古代文字에서 왼쪽을 뜻하는 “左”는 하늘에 祭司長이나,文字,政治,宇宙觀測,曆法등을 뜻하며, “右”는 전쟁,농사,긋은일 등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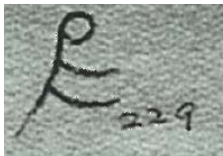


는 위 글자와 마찬가지로 “右”手와 사람“人”이 合體된 글자이다.

한자의 “兵”에 대응한다.또는 막일을하는 “人夫”와 같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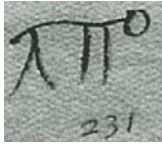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사는 “집”이다.



“할머니”이다.



사람“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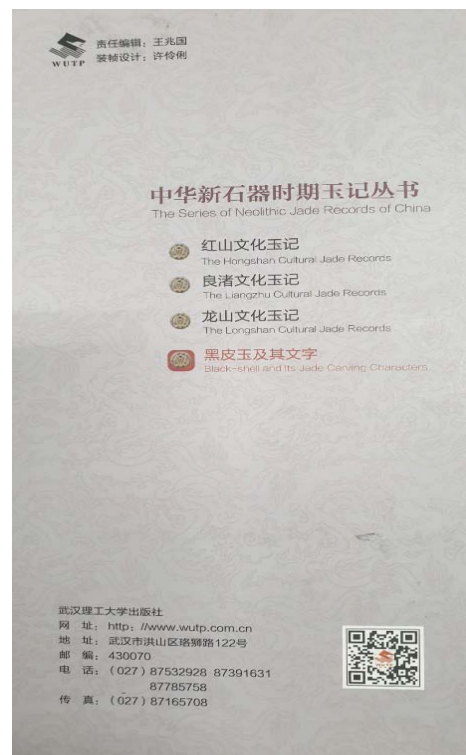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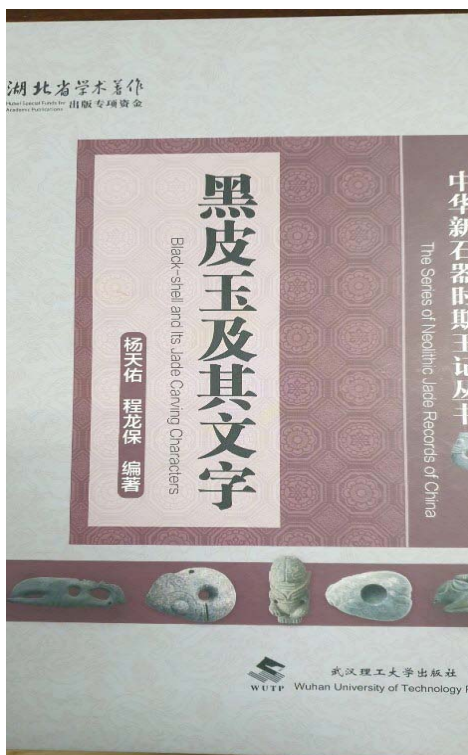


“할머니”가 돌아 가셨다, 사람이 屍身을 받치고 있다.

葬禮를 의미한다.

漢字的“葬禮”와 상통하는 上高古 玉文字이다.

약.2千年前 전국시대 말기 여러 族屬이 사용한 甲骨文등의 文字들을 모아 정리한것이 漢字的 始初이다. 여러 古代文字들을 當時에 제대로 解釋을 못하여 現代에 까지도 古代 玉의 文字들이 漏落,削除,歪曲되어 傳承되어와서 現代의 漢字에 이른다.또한 여러 中華 王族時代를 지나며 뜻과음이 變하고 또,變하여 왔으며 새로운 글자들도 계속 추가되었다.



위 책은 호북성 무단대학교에서 中國政府의 지원금을 받아 編纂한 책으로 古代 玉器의 文字를 모아놓은 集緒이다.

中國側에서는 解讀은 아직 하지 못한 關係로 玉器에 대한 資料만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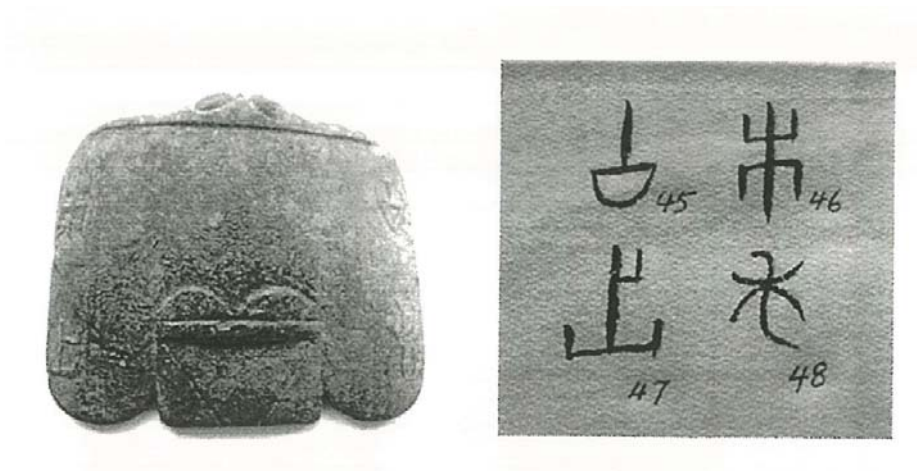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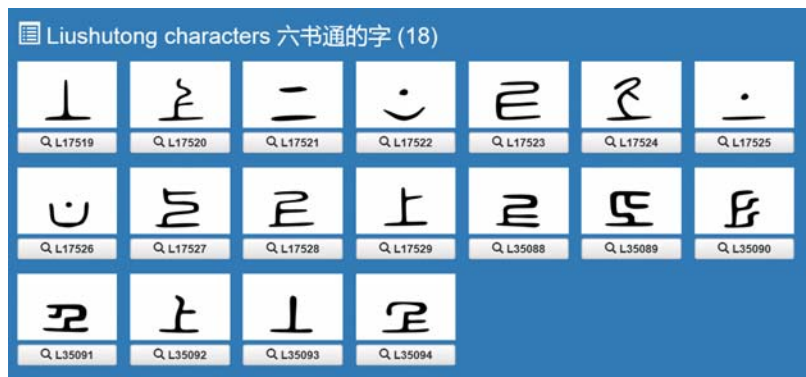


图 4.20 鷹(八)
Figure 4.20 Eagle—8

ㄗ * 鷹의 우측 상단 문자.
문자는 漢字의 “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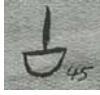
* “上”字

위에서 아래로 꺾은 “丨”字는 “上”자의 고대 原字이며 위를 象徵한다,



* “口”字

하단의 “口”字와 合字되어 “占”자의 上古金文이전의 原字이다.



는 “上”과 “口”의 습字로써 上高古代로부터 쓰여진 “占”字이다.
後代의 甲骨, 金文, 六書에서 사용된 “占”의 원형 玉文이다.

“위(하늘)이 입을벌려 말한다”의 뜻을 갖는다.
소, 거북이뼈등의 갑골문시대 以前에, 이미 占을 치고, 글자가 存在하였다.

“占”이란, “위(하늘)의 말”이라는 뜻이다.

앞면에서 보았을 때 독수리의 右側 上段의 文字이다.

* 鷹의 좌측 상단문자.



는 “手”이다.



는 왼손을 나타내는 “左”의 약 4,000년 이전
上高古時代의 玉文 原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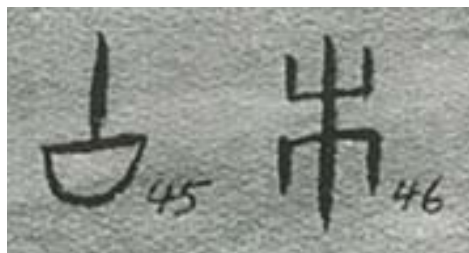


는 오른손 “右”字의 原形 玉文이다.

왼손+오른손이 합쳐져 “手”가 만들어졌다.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두 文字가 습體되어 하나의 또다른 글자가
만들어졌다.

金文, 甲骨文 사용이전의 元字인 玉文 時代에 이미 습體字들이 존재하였다.
후대인들이 고대의 문자를 올바르게 해독하지 못하였음에 현재의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華河族들은 上高古時代의 玉文을 解讀하기 어려움이다.



Oracle characters 甲骨文 (0)

There is no known oracle characters found. 没有已知的甲骨文

Bronze characters 金文 (13)

Q B16289	Q B16290	Q B16291	Q B16292	Q B16293	Q B16294	Q B16295
Q B16296	Q B16297	Q B16298	Q B16299	Q B16300	Q B16301	

Seal characters 说文解字的篆字 (1)

Q S08811

Liushutong characters 六书通的字 (7)

Q L18057	Q L18058	Q L18059	Q L18060	Q L18061	Q L18062	Q L35264

위 도표는 손을 나타내는 “手”의 갑골문, 금문, 춘추전국시대의 글자들이다.

* 鷹의 좌측 아래문자.



는 “出”의 고대 玉文이다.

상형문자

出자는 '나거리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出자는 사람의 발이 입구를 벗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出자의 갑골문을 보면 왼쪽 뿔머간 것 위로 발이 出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발이 입구를 나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出자는 이렇게 출구를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나거리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후에 형태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본래는 입구에서 발이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Liushutong characters 六书通的字 (19)

Q L26114	Q L26115	Q L26116	Q L26117	Q L26118	Q L26119	Q L26120
Q L26121	Q L26122	Q L26123	Q L26124	Q L26125	Q L26126	Q L26127
Q L37713	Q L37714	Q L37715	Q L37716	Q L37717		

* 鷹의 우측 아래 문자.




는 “근”자의 上高古玉文이다.


위 글자는 부처의 象徴으로 잘못 認識되어왔으나,
원래의 뜻은 宇宙 萬物을 뜻하는 글자이다.


“萬”자를 宇宙 萬物에 象徴시켜 現代에 傳受되어왔으나,
“근”자가 古代 初期 玉文字의 “우주만물”을 뜻하는 글자임으로 올바로잡는다.

*解論

“鷹”의 우측 상단  은 하늘위에서 말하다 란 뜻의 “占”字이고

“鷹”의 우측하단  은 우주만물을 뜻하는 “근”字이고

“鷹”의 좌측 상단  은 왼손,오른손이 합쳐진 “手”字이며

“鷹”의 좌측 하단  은 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의 “出”이다.

고로,右側 上段에서 下段으로 左側上段에서 下段으로 解讀하여보면,

“점을쳐 하늘에서 말하기를 우주만상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것에 따라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점을 치니 모든일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 나름이다.”로 解釋된다.



◎ 古代語의 音韻 法則

이장에서는 올바른 고대어의 음운 법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古代語를 올바로 解讀하는 音韻法則을 알게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歷史的 觀點들이 완전히 새롭게 定立된다.

그동안에 筆者가 研究하고 살펴본후 올바른 解讀法을 찾아내어,
누구라도 올바른 古代音韻 規則을 쉽게 깨닫고 이해하며
古代歷史의 眞實에 빠르게 다가갈수 있도록, 이에 配布한다.

제일 먼저,基本的으로 古代語를 解讀하는 方法에서
약3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1기는 약2천년 이전~서기후 600년경까지
2기는 서기 약600년이후~1400년대까지
3기는 서기 약1400년대~현대 의 기간으로 나누어 整理한다.

1기는 古代檀君朝鮮 시대 이후 北方의 夫餘등의 나라들을 거치며
高句麗,新羅,百濟 시대의 漢나라 漢文을 바탕으로한 문자에대한 해독법이며,

2기는 新羅가 唐나라와 聯合하여,高句麗 百濟를 滅亡시킨후
唐나라의 漢字를 바탕으로한 문자에 대한 解讀法이며

3기는 李氏朝鮮 以後의 漢字에 대한 解讀法에 관하여 定理해본다.

初期 三國時代의 地名 및 人名등의 解讀法을 올바로 알고 습득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慧眼이 생겨 歷史研究에 劃期的인 發展이 이루어질 것이다.

初期 原三國時代의 百濟語를 살펴,옛날 의 音韻 規則을 說明한다.

제일 먼저,

“彌鄒忽”이라는 初忌 百濟의 都邑 王城이 있다.그로부터 660년이 흐른후
“周留城”이라는 百濟 末期에 王城이 存在 하였음을 中國 및 日本의 여러 史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彌鄒忽” 과 “周留城” 은 같은 곳일까? 다른곳 일까?

百濟라는 王國이 滅 한지도 벌써 1,400여년이 흐르면서,現代까지 오면서 數많은
學者들에 의하여 아주 많고 많은 地名의 解釋이 있었지만,그 누구도 자신있게
올바로 解讀하는 方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 “彌鄒忽”의 “彌”는 우리말로 “두루” 또는 “둘”로 읽히며,화하족은 “미”로 읽었다.
“鄒”를 백제인들은 “머리”로 읽었으며 , 한족들은 “추”로 읽었고,
“忽”를 우리 민족은 “골” 또는 “고을”로 읽었고 , 한족들은 “홀”로 읽었다.

“彌鄒忽”=우리말로 “두머리 고을”이다.

* “周留城”의 “周”는 우리말로 “두루”로 읽히고 , 한족은 “주”로 읽는다.
“留”는 백제어로 “멀,머리”로 읽었고, 한족은 “류”로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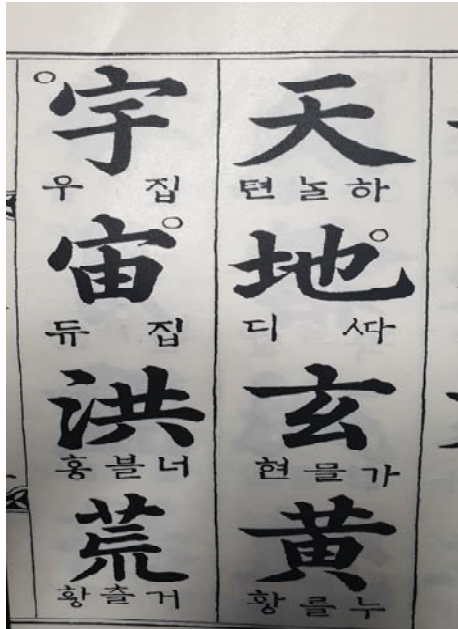
“周留城”=우리말로 “두머리 고을”이다.

위의 “두머리 고을”을 한자를 빌려서 쓰던 百濟 및,옆 나라 들에서 옛날의 정확한
“소리=發音”을 제시 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주 이상하고 難解한 解釋들로 인하여
眞實된 歷史가 밝혀질수 없었다.

위의 “周留城”은

“ 豆率城(豆率城), 주모성(州柔城), 두량이(豆良伊), 쓰누(州柔) ”
등의 異稱이 存在한다.

모두 “두머리성”이다.



위의 例示처럼 세종대왕께서는 “宇”를 우리말로 “집”이라 읽으라고 분명히 하였다. “우”라고 발음함은 그 당시 “中華”의 말소리이다.

다시 위의 예시를 살펴보자.

“洪”은 현대어로는 “넓을”이다 . “너블”은 우리 민족의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고유의 소리이며 “넓을”의 元音이다.

이렇듯, 옛 우리민족의 고유의 소리 發音法을 안다면, 서기전부터 ~약 600년대 까지의 때문지 않은 古代語를 풀이하는데 크게 힘들이지 않고 解讀할수 있음이다.

위에 배운 바와같이 간단히 , 몇글자를 복습하여 보자.

“沸流”는 “ㅂ”음과 받침 “ㄹ”을 그대로 빌려온 음차문자이다. “불”, “블”이다. “불 임금”인 赤帝를 뜻한다.

“溫祚”의 “溫”는 우리 고유말로 백(百)을 뜻하는 “온”이다. “祚”는 임금의 帝位이다. “백임금”이다. 白帝를 상징한다.

“慰禮城”는 “위례성”에서 “ㅇ”과 “ㄹ”을 따와 “울”로 읽힌다.

그런데, 이상한점이 있을 것이다.

“미추홀,주류성”은 漢子 發音이 아닌 우리말 앞 부분의 말소리를 取하여 해독하였지만,
“비류,위례성”은 中華人의 발음을 그대로 取하여 解讀하면서 初聲 子音만을 읽었다.

이 方式이 즉, 統一新羅~高麗末까지의 解讀法이다.

이유인즉, 統一新羅 이후 中華人들이 華城,唐津등 韓半島에 全國的으로 分包 居住 하게 되었고, 韓字의 荒 “거츨 황”을 “거츨”로 일지 않고, “황”으로 읽는 中華式 발음법이 지식인들은 물론 서민층까지 확대되면서, 그후 고려 시대에 씌어진,삼국사기,삼국유사등 이후의 史書들은 거의 대부분이 中國式 發音法으로 記述되어진다.

중국의 서기 700년 이전의 역사책들이나 “일본서기”등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古代 發音이 그대로 取해져 記述 되어있음으로 고대 지명,인명등은 대부분 그대로 解讀할수 있어 걱정이 없음이다.

여하튼,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地”라는 글자를 서기600년이전에는 우리말식으로 “따”라 읽었고,

서기 600년 이후에는 중화식으로 “띠”로 읽었으며,

특히 통일신라 발해때에는 중복 교차 專用되었음을 直視하여,解讀에 임하여야한다.

고려왕조가 막을내리고, 이씨 왕조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우리말과 中國發音이 너무 섞이고 古代의 우리 소리를 점점 잃어버림에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로 인하여, 한석봉 千字 漢字冊에 씌어진데로 옛날 古代語를 우리 고유의 소리를 찾아내어 解讀한다면, 오래전 史書들에 나오는 歷史를 正立하는데 한결 쉬워질 것이다.

“新羅”는 “金城”으로도 씌었으며,

“金”은 고구려 우리말로 “새”로 일고, 백제는 “쇠”, 신라는 “시”로 읽었음으로

일본말로 “시라기”라고 “신라”를 표현함에 전혀 이상함이 없다.,

물론 “新”이라는 발음도 신라 고대어로는 “시”임으로 같은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기본적인 몇글자를 위에서 해독하여 보았다.

“金”은 통일신라 이후에는 “쇠”라는 우리식 발음이 멀어져가고,

“금”이라는 중국식 발음이 굳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金”이 통일신라 이후에는 “금”, “검”, “감”, “감미” 등으로 중화식 발음에 사투리 발음 까지 겹치면서 일본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서기 500년대 경에 “金城”의 발음은 “쇠고을”, “쇠성”이었으나.
 서기 800년대 경은 “검성”, “감성”, “금성” 등으로 바뀐다.

“熊”은 “곰” “고마” “검” “거미” “감” “가미”로 발음하다가, 통일신라 이후 “웅”의 발음으로 거의 굳어진다. 하지만 고대 일본어에서는 옛, 발음이 그대로 살아 있다.
 “熊”은 “곰”이 표준어이며 “神”을 뜻하는 고대 조선 발음이 起源이다.



위의 좌측 玉도끼와 우측 玉도끼에는 같은 玉文이 陽刻되어있다.
 대한민국 東玉研 정건재회장님의 소장품인데 筆者가 사전 동의후 文解를 살펴보았다.



는 사람 “인”이다.



는 와 의 습자이다.

머리가 둘 卽 , “두머리”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은 “두머리”는 후대에 “우두머리” , “두몯”등의 뜻으로 전이된 고대 조선부터 내려온 “임금”의 고유 소리 發音이다.

“두머리”=“임금”이다.

Oracle characters 中骨文 (4)

Q J02839	Q J02840	Q J02841	Q J02842

Bronze characters 金文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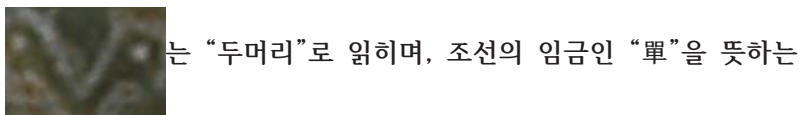
Q B01701	Q B01702	Q B01703	Q B01704	Q B01705	Q B01706	Q B01707
Q B01708	Q B01709	Q B01710	Q B01711	Q B01712	Q B01713	

Seal characters 说文解字的篆字 (1)

Q S01086

Liushutong characters 六书通的字 (20)


Q L06466	Q L06467	Q L06468	Q L06469	Q L06470	Q L06471	Q L06472
Q L06473	Q L06474	Q L06475	Q L06476	Q L06477	Q L06478	Q L06479
Q L06480	Q L06481	Q L31800	Q L31801	Q L31802	Q L31803	



는 “두머리”로 읽히며, 조선의 임금인 “單”을 뜻하는

“매미선”이며,한글자로 읽으면 “임금단”으로 읽히고



는 후대에  글자의 母胎가된다.

同字는 “王”이다.

흉노(韓)의 왕을 “單”이라 稱하였음은 같은 맥락이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바 次次, 玉文新編에서 研究된바를 자세히 논하여 올바른 古代 文字 解讀에 한걸음 이라도 다가서도록 하겠다.





위의 古代玉像은 대한민국 dr.서현석님의 所藏品이다.

古代의 玉器를 解讀하는 方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玉器의 彫刻된 模樣을 研究하고 玉彫刻의 形態的 意味를 解讀하는 方法이며
둘째는 玉器의 表面에 彫刻되어있는 文字를 解讀하는 方法이다.

이유인즉, 上古時代로 올라갈수록 形象 그自體가 文字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모든 萬物의 形態에서 文字가 發展되어 왔음에 起因한다.

玉文字는 上高時代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文字의 誕生을 살펴보면

- 1.모든 自然의 四物들에서 特徵들을 관찰하고
- 2.관찰된 사물의 특징점들을 그림으로 形象化하고
- 3.형상화된 그림의 특징을 단순화하여 像型하고
- 4.상형된 단순한 기호를 文字化하고
- 5.文字化된 單純 文字들이 世代를 거듭할수록, 畝字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친다.

文字가 없는 器物들은 그, 形象 自體가 文字인 것이다.

첫 번째 解讀法은 玉器에 彫刻되어 있는 文字가 없을 때이며,
두 번째 解讀法은 玉器에 彫刻되어 있는 文字가 있을때이다.

위와같은 文字가 彫刻되어있는 古玉器들의 가장 正確한 解讀法은 上記에 나열된
두가지 方法을 모두 採擇하여, 彫刻形態的 解讀과 古代文字的 解讀을 竝行하여
研究하여야만 가장 좋은 研究結果物을 얻게된다.

첫 번째로, 上文 玉璽의 머리 부분에 있는 文字를 풀어보자.



위 문자는 2글자가 畝字됨을 알수 있다.



좌변부의 卍字는 “사람” 이다 .

“사람”을 뜻하는 “人”은 單字로 사용될때이지만, 합자로 형성될때에는
 빠침 으로만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는 “크다” 또는 “위대하다” 의 뜻을 갖는다.

상기 문자는 上高古玉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자이다.

습자를 해독하여보면 “큰사람”, “위대한사람”이다.

옛날에 위대한 사람이란, 宣祖를 지칭하며 선조분들중에서 아주 큰 업적을
 만들었던 玉形象제작 시기 보다 이전의 “위대한선조王”를 文字로 남겼다.

						
Q L20938	Q L20939	Q L20940	Q L20941	Q L20942	Q L20943	Q L20944
						
Q L20945	Q L20946	Q L20947	Q L20948	Q L26456	Q L36104	Q L36105
						
Q L36106	Q L36107	Q L36108				

玉文字 이후에 發展되어 사용한 갑골,금문,육서 문자의 “大”字)

두 번째로, 上 玉璽의 形像學的 解이다.

매미는 고조선의 국가에서 대표되는 기형이다.

“單” 매미는 고대 조선의 國家名 뿐 아니라, 王位를 나타내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선위”는 임금의 자리인데 , “單位”이다.

先王에게서 “선위”를 물려받는 것은 말그대로 “매미의 자리를 내려 받아 王이되는 것이다”

머리에는 “뿔”이 있다.

얼굴은 용의 형태인 “龍顔”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용안”하게되면 이씨조선 시대까지도 임금의 얼굴을 표현 하였음을 알수
 있듯이 위 玉璽에서 龍顔을 하고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면 先代 王이었음을 알 수 있다.

“뿔”은 염제 신농씨를 대표한다.

綜合적으로 解 하여 보게되면,

文字에는 “위대한사람 , 큰사람”이라 써어 있으며,고대 조선의 국가상징인 매미를 밟고 “뿔”을 하고 있는 “龍 인간”이다./

龍顔에 人間의 몸을 結合한 것은 주로,紀元前 3千年前~2千年前까지 最高 絶對權力者인 帝王을 表現한 것이다.

平凡한 人間이 아닌 龍의 얼굴을 한 人間은 數많은 사람들 中에서도 最高의 權力을 갖고있는 帝王이다.

玉璽의 기원을 살펴보면,

현대처럼 바닥면을 평평하게 하여 문자를 새긴 도장형식은 불과 2천년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古代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위와같은 玉形像物 자체가 本來의 玉璽이다.

*綜合 解

즉, 위대한 사람 “염제신농”씨 玉璽이다.





GEOCHRON LABORATORIES

a division of Krueger Enterprises, Inc

45 Manning Road + Billerica, Massachusetts 01821-3934 + USA
t (978) 667-7080 f (978) 667-6999 www.geochronlabs.com

RADIOCARBON AGE DETERMINATION

REPORT OF ANALYTICAL WORK

Our Sample No. **GX-33119-AMS**

Date Received: 03/20/2009

Your Reference:

Date Reported: 07/23/2009

Submitted by: Jung Gun-Jae
Research Director, Northeast Asia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unnam Techno College
R605 Woo-am Building
Okgua-myeon, Gokksung-Gun
Jeollanam-do
KOREA

Sample Name: **Black-skin jade (Hsiuyen jade) statues' cuticle**

AGE = **3150 ± 40 ¹⁴C years BP (¹³C corrected)**

Description: Sample of organic matter

Pretreatment: The sample was combusted in flowing oxygen and the carbon dioxide was collected for ¹⁴C analysis. A small aliquot of the same carbon dioxide was used for ¹³C analysis.

Comments:

$\delta^{13}C_{PDB}$ = **-27.5 ‰**

Notes: This date is based upon the Libby half life (5570 years) for ¹⁴C. The error is +/- 1 s as judged by the analytical data alone. Our modern standard is 95% of the activity of N.B.S. Oxalic Acid.

The age is referenced to the year A.D. 1950.

미국의 대표적인 연대 분석기관인 지오크론에 따르면 黑皮玉(金玉)의 제작연도는 약3150년전 경으로 탄소C14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과학적인 탄소연대측정과 현재,韓國내 필자에 의하여 연구중인 文字解讀 및 器型解讀으로 이러한 옥기유물들이 무엇을 말하고 證明하는지를 밝혀 古代史歷史研究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위 자료는 東玉研 정건재회장님께서 전남과학대 교수로 재위시절 미국 지오크론에 의뢰하여 나온 結果物이다.

위 data의 내용대로 탄소반감기 계산결과 5570년전으로 나왔으나,보정값 계산결과 최종 3150년전으로 나왔다. 이시기는 우리 민족의 단군조선 말기 시대에 해당된다.

소위 黑皮玉이라 불리우는 金玉은 역사시대인 약5천년전부터 약3천여년전까지 銅石竝用時代에 주로 제작 되었는데,청옥 또는 백옥을 신포는 조상의 모양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철 및 여러원소 성분등을 特殊合金을 하였는데, 옥조각상들에는 갑골문과 금문이전의 세계최초의 옥문자들이 양각으로 새겨져있으며,또한 모든 옥기들의 형상이 문자의 기원 형상들로서 歷史,社會,文化,宗教등과 宇宙學이 사실적으로 조각되어진 옥기이다.黑皮玉은 단순히 藝術品의 가치를 넘어 당시의 역사,문화,사회적 생활방식을 통해 政治,宗教,思想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동양을 뛰어넘어 전세계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고대 선조들의 최고의 보물들로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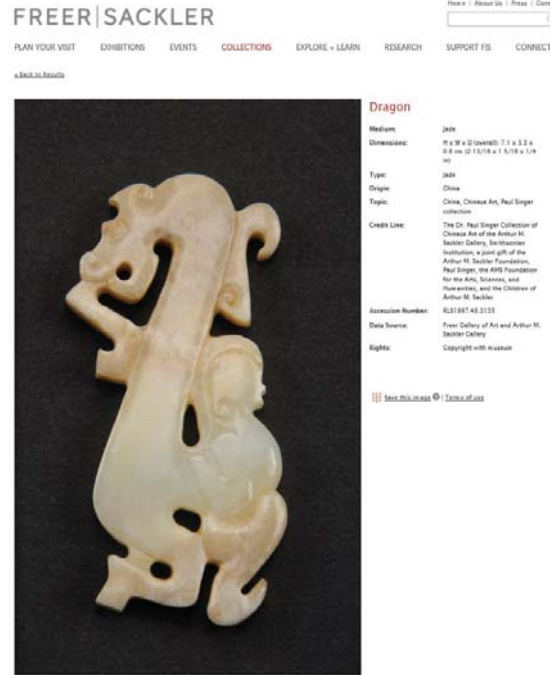
AVAILABLE VIEWS



Pendant in the form of a bird

Medium:	Jade
Dimensions:	H x W x D (overall): 6.1 x 5.5 x 2.2 cm (2 3/8 x 2 3/16 x 7/8 in)
Type:	Jade, Jewelry and Ornament
Origin:	China
Topic:	bird, Modern period (1912 - present), forgery, China, Chinese Art, Paul Singer collection, pendant, carving
Credit Line:	The Dr. Paul Singer Collection of Chinese Art of the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a joint gift of the Arthur M. Sackler Foundation, Paul Singer, the AMS Foundation for the Arts, Sciences, and Humanities, and the Children of Arthur M. Sackler
Date:	20th century forgery in the style of the late Shang or early Western Zhou dynasty (ca. 1300-950 B.C.E.)
Accession Number:	S2012.9.336
Data Source: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Rights:	Undetermined copyright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약6cm*2cm 크기의 소형 黑皮玉(金玉) 조각상이다. 1900년대 초반에 현, 중국 내몽고 지방에서 수집된 옥기로 약3,300~2,950년경으로 년대를 추정하였으며, 이시기는 中華 王朝의 상나라말기~서쪽 주나라 초기 시대에 製作되어진 유물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위 사진 좌측은 현재, 중국 북경의 대중화박물관 소장 전시옥기로 黑皮玉이라 불리우는 金玉인데, 왼쪽엔 龍이 조각되어 있고 오른쪽엔 사람의 형상이 구름위에 올라간 조각상으로 하늘위에 사람 즉, 天君의 등에 龍이 조각되어 있는 옥조각품이다. 시기는 약4,000년 전 옥 유물이다. 위 사진 우측의 옥 조각품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中國 청나라 중기 왕실의 옥조각상이다. 좌측의 옥조각상과 마찬가지로 龍과 사람을 조각하였는데, 歷史란 숨길수 없는 것처럼 傳統文化가 繼承되어 좌측의 古代玉彫刻品の 내용과 의미가 동일하게 조각되어 있다



7. 石棒
静岡市清水区入江出土
縄文時代(晩期)・前1000～前400年

8. 石棒
茨城県石岡市石川出土
縄文時代(晩期)・前1000～前400年
長谷川徳之助・狩野勝之丞氏寄贈

9. 独鈷石
秋田県羽後町西馬音内出土
縄文時代(晩期)・前1000～前400年
長井行氏寄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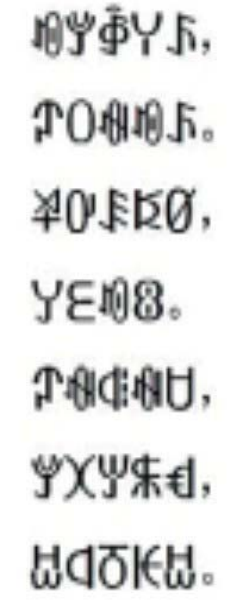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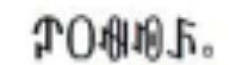





陈逸民谈玉一再谈日本国立博物馆展出的黑皮玉器 2012-09-17 西高弟里博客

日本国立博物馆展出的黑皮玉器,为黑皮玉器的研究增加了新的因素,但考虑到日本考古界曾经发生的丑闻,对于馆展所示的说明还是应该抱着谨慎的态度,即它们的出土年代和地点是需要认真思索的.所以我们在这里拍摄的日本黑皮玉器,可能不是说明上标志的所谓绳文时代,它的出土地点也可能不在日本,可能是出土中国而被运往日本的藏品.

위 자료는 中國상해 진일민박사가 日本 동경 국립중앙박물관 古代 玉실에 전시 되어있는 고대 黑皮玉(金玉)彫刻像에 대하여 說明하는 資料이다.



창힐이 만들었다는 창힐文字이다.黑皮玉(金玉)에 陽刻으로 彫刻되어있는 글자들이다,현재 中國에서 한창 研究중인 文字들이다.

玉板文	古葬文	规范葬文	古葬文译意
			要坐此神船，
			去找库土人。
			雁鹿高层行，
			蛇神头迹。
			库人初呼魂，
			要解洞弯处，
			龟期望颌龟。

약 4,500년전 거북위 옥 비문에 陽刻으로 彫刻된 고대 옥조각상이 내몽고 적봉시에 서 발굴되어 전 중국이 떠들썩하다.2011년 발견 되어 현재까지도 解讀中인 玉碑文으로 위 내용은 중국인들이 解讀이 불가능 함으로 아직까지 未解讀된 文字들이다.일단은 자신들이 추정 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전혀 해독이 안된 상태이다.



中國姓氏를 甲骨文으로 적어 놓았는데, 위갑골문은 玉文字에서 시작되어 發展하였다.

オルホン-エニセー碑文の文字			
	字母 <アルファベット> characters	転写 <字 訳> transliteration	表記 <実際の発音> transcription
母音 ①	ア (1 · X)	a	a · ā
" ②	イ (卜)	i	ī · i
" ③	ウ	u	u · o
" ④	エ (ㄨ)	ū	ū · ō
子音 ①	バ (ㄨ)	b ¹	ab · b
" ②	フ (ㄨ · ㄨ)	b ²	āb · bā · b
" ③	ダ	d ¹	ad · da · d
" ④	タ	d ²	dō · dā · ād · d
" ⑤	ガ (ㄨ · ㄨ)	γ	aγ · γ
" ⑥	ク (ㄨ)	g	āg · gā · g
" ⑦	カ (ㄨ)	q	aq · qa · q
" ⑧	キ (ㄨ · ㄨ)	k	āk · ki · k
" ⑨	カ	l ¹	al · l
" ⑩	カ	l ²	āl · l
" ⑪	ナ (ㄨ · ㄨ)	n ¹	an · n
" ⑫	ナ (ㄨ · ㄨ)	n ²	ān · n
" ⑬	ラ (ㄨ)	r ¹	ar · r
" ⑭	ラ	r ²	ār · r
" ⑮	サ (ㄨ · ㄨ)	s ¹	as · īs · s
" ⑯	サ	s ²	ās · s

	字母 <アルファベット> characters	転写 <字 訳> transliteration	表記 <実際の発音> transcription
子音 ⑰	タ (ㄨ · ㄨ)	t ¹	at · ta · t
" ⑱	ハ (ㄨ)	t ²	āt · tā · t
" ⑲	ダ	y ¹	ay · y
" ㉑	ㄨ (e · Q)	y ²	āy · y
" ㉒	ㄨ	q	oq · uq · qo · qu · q
" ㉓	ㄨ	kū	ōk · ōk · kō · kō · k
" ㉔	ㄨ	īq	īq · qī · q
" ㉕	ㄨ (ㄨ)	č	uč · ač · ič · č
" ㉖	ㄨ (ㄨ · ㄨ · ㄨ)	m	am · ām · m
" ㉗	ㄨ	n ¹	on · an · n
" ㉘	ㄨ	n ²	ānā · ān · n
" ㉙	ㄨ (ㄨ)	ñ	añ · āñ · ñ
" ㉚	ㄨ	p	ap · āp · p
" ㉛	ㄨ	q	aq · āq · q
" ㉜	ㄨ	s	as · ās · s
" ㉝	ㄨ	z	az · āz · z
音節文字 ㉞	ㄨ	lt	alt · alti · lt
" ㉟	ㄨ	nč	anč · nč
" ㊱	ㄨ (ㄨ · ㄨ)	nt	ant · antant · nt
" ㊲	ㄨ	baš	baš · bāš

(注) 字母の欄の()の中は、字母の変化形の例を示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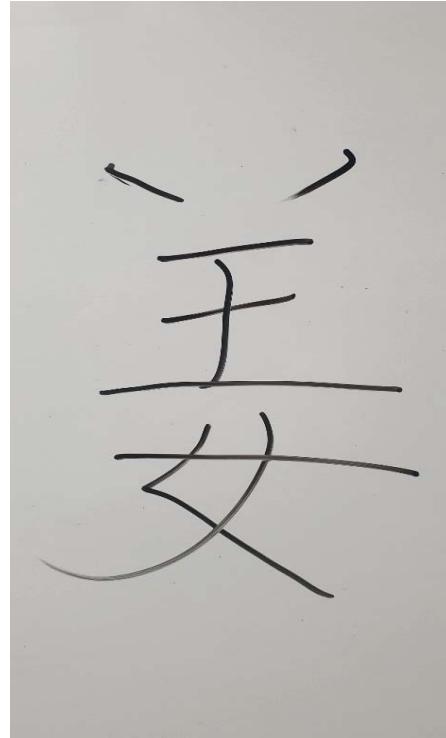
日本 歴史學者들과 文字學者들이 한창 研究中인 돌궐 왕들의 碑文에 있는 文字들을 정리한 도표이다. 현재의 몽골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 發掘되는데 위 文字들이 古代 黑皮玉(金玉)의 文字에서 傳承 發展되어 돌궐 碑文에 傳來된 것을 알 수 있다.



現在의 대흥안령산맥 및 산악 고원 분지지형에 分布하여사는 동파족들의 祭祀하는 방식을 위 사진에 보여주고 있다.

제사상의 맨위에는 우리가 모시는 神主나 位牌대신 玉으로 조각한 8개의 옥조각상을 配置하고 아래에는 음식과 향,가무가 함께 곁들여져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점은 옥조각상이다.위 동파족의 “파”는 “배”로 읽히는데 “동파족”은 “동쪽 배달족” 즉,현재까지도 대륙 본토에 남아있는 “동이 배달족”이다.옥 조각상에는 中央에 天父와 地母 옥조각상을 모시고 좌,우에 罔象神, 祝融, 句芒, 蓐收, 后土의 삼황오제 8명의 옥조각상이다.이는 歷史와 傳統이 동파족에게 그대로 전승되어 현재 까지도 옛,선조들을 옥조각상으로 모시고 제사 지내는것이다.이는 우리 韓民族의 歷史를 그대로 繼承한 중요한 文化遺產이다.위 제사방식은 고대로부터 우리 단군 임금시대 이전부터 위와같은 방식으로 제사 지냈음을 알수있으며 三皇五帝를 中國의 歷史冊들에 정식으로 편입하듯이,전설시대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존했던 우리 동이 배달겨레들의 祖上인 것이다.당연히 화하족인 漢族들은 위와같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3황5제가 제사상에 옥조각으로 올려져있는 것은 黑皮玉(金玉)을 조각하여 신주로 모시면서 祭祀하였다는 證據物이다.이는 김일제가 흉노 휴도(소도)왕의 자식으로 玉으로 조각한후 쇳물을 입힌 金人(黑皮玉)을 만들어 제사 지내어 “金”씨를 하사 받았다는 歷史的 사실과도 一脈相通하며,우리들이 부처님 조각상을 玉,石,鐵등의 여러 材料로써 像을 만들어 祭壇위에 모시는 것은 고대로부터 우리 韓民族 王室의 제사방식이 그대로 발전된 결과물이라 할수 있다.위 의 동파족 祭祀樣式에서 보듯이,黑皮玉(金人)은 古代의 神들과 祖上들 및 그당시의 文化를 조각한 중요한 寶物들로써,선조들을 모시는玉으로만든 신주인 것이다.우리 배달민족 선조들의 신주들로써 옥조각상을 후대에 남겨 배달 조선국의 제사와 命脈을 남긴 고귀하고 위대한 유물인 것이다. 흑피옥(금옥)이 주로 출토되는 지점들이 고대의 神殿터에서 주로 發掘되는 점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證明하고있다.

염제(炎帝)신농씨(神農氏)



炎帝神農氏 玉彫刻像이다.

머리위의 뿔,가슴에는 매미,하체는 女人의 生殖器을 갖고 짝다리를 하고 있다.
자세히보게되면 左側의 옥조각상이 右側의 漢字로 發展하였음을 알수있는데 옥조각
상의 대표적인 특징을 뽑아서 文字가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머리위 의 뿔은 우측 상단의 두 개의 삐침으로 가슴에 안고있는 매미는 王權을 象徵
하는 “매미”인데 “매미”는 고대조선, 즉,고조선~이씨조선 시대까지 最高 權力者인 群
王의 징표이며 심벌로써, “매미선”=“單 ” , 임금의자리=“單位”를 나타낸다.
가슴의 매미는 “單位”를 손으로 안고 있음으로 “王”자로 후대에 표시 하였고,
下體인 다리는 한쪽을 기우동하게 表現하여 “女”의 根源인데, 옥 조각상에는 더욱 자
세히 女人의 陰部인 生殖器를 表現함으로써 “女”임을 정확히 강조하였다.

위 염제신농 玉조각상은 “姜”씨의 시조라 불리우는 만큼 인류최초의 성씨인 동시에
옥조각상 그 자체가 文字로 發展하였음을 보여주는 決定的인 證據物로써 최고의 보
물이며 先組上들의 文化遺產이라 稱할만하다.

염제(炎帝)신농씨(神農氏)는 三皇의 한분이다.
열산씨(烈山氏), 염제주양씨(炎帝朱襄氏)로도 불리우며,
人類史 강씨(姜氏)의 시조이다.

《易·系辞下》：“包牺氏没，神农氏作，斫木为耜，揉木为耒，耒耨之利，以教天下。”
복희씨가 몰락하고 신농씨가 나무를베고 땅을 고르게 하고, 나무로 가래를 만들어
논밭의 잡풀을 없애고 김을매어 이롭게 하여 천하를 가르쳤다.

《逸周书》：“神农之时，天雨粟，神农遂耕种之；作陶冶斤斧，为耒耜耨，以垦草莽，
然后五谷与助，百果藏实”。

신농씨때에 하늘의 비로 오곡을 길렀다.신농씨는 도랑을파고 밭을갈고 씨를뿌렸다.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고 도끼로 (근=무게추,저울추 1근)을 만들어 다스렸다.
가래와 쟁기로 논밭의 잡풀을 뽑고 김을 매었다.
이로써 풀숲이 우거진 것을 개간하였다.그러한후에 오곡과 백과를 거두었다.

《白虎通》：“古之人民皆食禽兽肉，至于神农，人民众多，禽兽不足，于是神农因天之时，
分地之利，制耒耜，教民农作，神而化之，使民宜之，故谓之神农也。

옛날 사람들은 모두 날짐승과 짐승의 고기를 먹었다.신농씨때에 이르러 사람들의 수
가 많아져 날짐승과 짐승이 부족하였다.신농씨는 하늘의 계절에 맞게,땅을 나누고 가
래와 쟁기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백성들이 마땅히 따르며 신으
로 추앙받았다.이러한 연고로 농사의 신이라 이른다.

《左傳·哀公九年》：“炎帝為火師，姜姓其後也”

좌전 춘추시대 노나라 애공9년조 에는 “염제는 불임금(태양신)이다.후대 강씨성의 시
조이다”

《汉书·律历志》：“（神农氏）有圣德，以火德王，故号炎帝。初都陈，又徙鲁，又曰魁隗
氏，又曰连山氏，又曰列山氏。”

“한서 율력지”에는 신농씨는 덕이있는 임금이다. 불 의 덕으로 왕이되었다.
고로 염제라 불리운다.

최초로 도읍과 나라를 만들었고, 또는 “사노”라하고, 또는 “괴외씨”라 부르며, 또는
“연산씨”라 칭하고, 또는 “열산씨”라고 한다.

《史记正义》引《帝王世纪》说：“神农氏，姜姓也，母曰任姒，有蟠氏女登为少典妃，游华
阳，有神龙首，感生炎帝。”

“사기정의”를 인용하여 “제왕세기”에서 서술하기를 “신농씨는 강씨성이다. 어머니를 ”
임사”라 부른다.소전의 비가 된 유교씨 여등이다, 찬란한 태양과 교제하여, 용의 머리

가 있는 염제를 낳았다.”

*游华阳:찬란한 태양과 교제(유희)하여, 불=男性을 뜻한다.

《资治通鉴外记》记载,“炎帝神农氏,母曰任姒,有蟠氏女,名曰女登,少典氏之正妃。黄帝,有熊国君少典氏之子,母曰附寶。即炎帝母家有蟠氏之女。”

“자치통감외기”에 기록하기를 염제 신농씨의 어머니는 “임사”이다. 유교씨의 여자이다. 이름은 “여등”이라 부른다. 소전씨의 정비(황후)이다. 황제는 “유웅국”의 임금이며 “소전씨”의 자식이다. 어머니는 “부보”라 부른다. 즉, 염제 어머니 가문은 “유교씨” 집안의 여인이다.

《国语·晋语》:“炎帝以姜水成”

“국어,진어”에는 염제는 “강수성”이 근거지이다.

《水经注·渭水》:“歧水又东迳姜氏城南,为姜水”; 炎帝死后, 黄帝在宝鸡常羊山祭祀炎帝. “수경주, 위수”에는 “기수는 또한, 강씨성 남쪽에서 동쪽으로 좁게 흐른다. 이를 ” 강수”라한다. 염제가 죽은후, 황제는 “보계상양산”에서 염제에게 제사를 올렸다.

《太平寰宇记》: 百谷山 “昔神农氏尝百谷于此”.

북송시대의 “태평환우기”에는 “백곡산”은 옛날 신농씨가 백가지 곡물을 맛본곳이다.

《晋书》卷92《文苑传·伏滔》“黔中之地”, 炎帝又号“连山氏”.

“진서”권 92 “문원전, 부도”편에는 검은 땅의 가운데이다. 염제는 또한 “연산씨”로 부른다.

-금옥조각상으로 最初로 밝힌 研究 結果-

*염제 신농씨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으므로, 뿔달린 사람얼굴에 매미를 안고 있는 여인 조각으로 “강=姜”이라는 조각을 남겨, 염제신농이 강씨의 시조임을 밝혔다.

2.위 고대 사료의 기술대로 염제가 “불”임금이란 용광로를 제조하여 철기 야철기술자임을 증거하는 자료이다.

3.위 사료에서 보듯이 염제가 “농업”의 신 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달력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金玉文解 - 歹



古代의 玉器을 解讀하는 方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玉器의 彫刻된 模樣을 研究하고 玉彫刻의 形態的 意味를 解毒하는 方法이며
둘째는 玉器의 表面에 彫刻되어있는 文字를 解讀하는 方法이다.

이유인즉, 上古時代로 올라갈수록 形象 그自體가 文字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모든 萬物의 形態에서 文字가 發展되어 왔음에 起因한다.

文字가 없는 器物들은 그,形象 自體가 文字인 것이다.

첫 번째 解讀法은 玉器에 彫刻되어 있는 文字가 없을 때이며,
두 번째 解讀法은 玉器에 彫刻되어 있는 文字가 있을때이다.

위와같은 文字가 彫刻되어있는 古玉器들의 가장 正確한 解讀法은 上記에 나열된
두가지 方法을 모두 採擇하여,彫刻形態的 解讀과 古代文字的 解讀을 並行하여
研究하여야만 가장 좋은 研究結果物을 얻게된다.

上圖 2점의 古玉器의 外形的 特徵으로는 玉璽의 形態이다.

現代의 印章또는 玉璽는 下部 바닥면에 文字를 새겨넣어 印朱를 찍어
종이에 나타난 글자를 보는 反面,
古玉器는 玉璽의 下部 바닥면이 아닌,玉器物의 몸체 全體部分에
文字를 陽刻하여 文字가 表皮外部로 突出된 形態를 갖는다.

이러한 古玉器 玉璽는 現代의 印章처럼 偽造또는 變造가 거의 不可能하다.
文字는 비슷하게 偽造가 可能하더라도 玉器全體的인 形態까지도 偽作하려면
같은 材質의 玉原石을 구하고,이를 똑같이 彫刻한후,表皮에 特殊合金까지 하여야 함
으로 거의 偽造가 不可能하다 할 수 있다.

古代에 自然에서 求할 수 있는 天然材料인 黑,靑,赤色 등의 塗色 材料들을 玉器의體
에 바른후,가죽등의 材料에 찍는다면,文字뿐만 아니라, 全體的인 基形까지도 함께 찍
힘으로요즈음 흔히 사용되는 印章과는 確實한 차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古玉器 玉璽의 特徵은 대략 紀元前1,000年前 까지
東亞世亞 東北方 玉器物에서 주로 나타난다.

위 2점의 玉器는 玉璽인데,

첫 번째 玉璽의 形態는 上部쪽에 龍의 顔面에 人間의 몸을 하고,
거북이등위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두 번째 玉璽의 形態는 單龍위에 女人의 上半身이 結合된 形態이다.
龍顔에 人間의 몸을 結合한 것은 주로,紀元前 3千年前~2千年前까지

最高 絶對權力者인 帝王을 表現한 것이다.

平凡한 人間이 아닌 龍의 얼굴을 한 人間은 數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最高의 權力을 갖고있는 帝王인데, 거북이는 國家의 國土를 象徴함으로 거북이등에 올라간 模樣은 國家의 最高 帝王이다.

특히, 무릎을 구부린 모습은, 古代 當時에 帝王만이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함으로 彫刻으로 表現하였다.

거북이를 國家의 땅으로 認識한 民族은 古代로부터 現代까지도 東亞世亞 北方民族에게서만 나타나는 孤遺한 歷史的 特徵이다.

첫 번째 古玉器의 形態的 解讀을 定離하면,

東亞世亞 北方의 거북이를 國土로 하는 땅에, 龍의 얼굴을한 帝王을 玉에 彫刻한 形象이다.

두 번째 古玉器는 첫 번째 玉器와 같이 龍과 人間을 合體한 基形으로

玉器의 制作以前 上古時代부터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單(매미)龍의 體에 人間 女人의 上半身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彫刻되어진 玉器인데,

古代에 上半身이 노출되어 젖가슴이 彫刻된 形態는 그當時 主體民族 始祖에게만 나타나는 特徵임으로, 玉器制作 以前 上古時代의 祖上 女人을 玉彫刻한 것이다.

특히, 半人半獸의 結合 形象은 神을 表現한것임으로, 古代 母系를 중심으로 氏族이 發展한 것을 勘案하면 玉器 制作 主體民族의 始祖 女人 玉刻璽이다.

위와같은, 形態的 特徵들을 綜合的으로 살펴보면,

容顔과 人間의 몸이 結合된 玉璽는 얼굴이 獸이고 몸이 人間인 反面,

單龍과 女人이 結合된 玉璽는 몸을 獸로 표현하여, 祖上女神은 얼굴을 볼 수 있고, 帝王男神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몸만 볼수있게 한점이 두드러진다.

이또한, 古代 社會에서만 나타나는 特徵중 대표적인 것인데.

古代文化에서 裸體는 一般的인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 祖上 始祖神에게만

表現할수 있었음으로, 가장 높게 섬기는 民族의 男性神은 얼굴을 가린채 男性의 특징인 男根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氏族의 始祖를 강조하고

民族의 女性神은 乳房을 강조하여 氏族을 낳아 기른 어머니임을 나타 내었다.

一般的인 위와같은 玉璽에서 나타나는 여러 特徵들은 古代의 北方 民族인 우리 배달겨레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特徵들에 包含된다.



첫 번째 玉璽에 있는 文字이다.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𠂔는 同字인데, 𠂔에 살이 한점도 남아있지 않은 앙상한 𠂔를 나타내는 글자로써 “알”이라고도 읽히고 “대”로도 읽히는데 “대”로 읽힐때는 나쁘다,악하다등의 뜻을 갖고 있다고 玉篇에 써어있다.

歹

살 바른 뼈 알, 몹쓸 대 ▶ 획순보기 자세히 ▶ 단어장에 추가

본문 歹 (옥음사전, 4획) **해설** 총4획

[사성음] è, dǎi, dāi (dǎi) [난이도] 읽기 특급.

① 한자는 이를 줄인 기기의 음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 ▶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1. 살을 바른 뼈
2. 부서진 뼈
3. 죽을사변, 한자 부수의 하나
 - a. 몹쓸 (대)
 - b. 나쁘다 (대)
 - c. 악하다(惡-) (대)

제공처: 위오피마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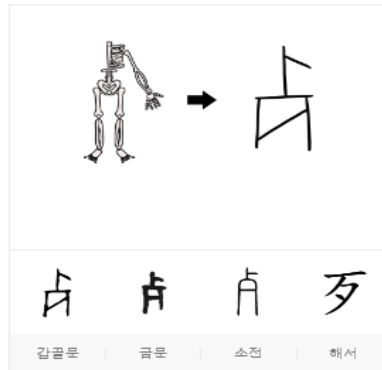
지사문자

歹(알), 解(대)와 동자(同字). 본래 글자인 𠂇(과)가 「살을 발라낸 뼈」의 모양을 나타내는 데, 이 글자를 반으로 쪼갠 모양인 데서 「부서진 뼈」라는 뜻을 나타냄.

자원(字源)

상형문자

歹자는 ‘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歹자는 뼈를 분터 그린 것이지만 부서지거나 살이 발린 뼈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歹자는 살이 발라진 ‘뼈’를 뜻하는 𠂇(뼈 발라낸 과)자의 절반만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갑골문에 나온 歹자를 보면 사람 뼈의 일부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이미 죽어 뼈까지 분리되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숲에 버려 썩게 했다. 살이 썩은 후에 뼈만 남게 되면 그것만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歹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죽음’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歹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歹(부서진 뼈 알)자로 표기될 때가 있다. 모양만 다를 뿐 뜻은 같다.



上圖는 “歹”의 갑골문,금문등에 나타나는 글자들이다.

원뜻은 古語에서는 뼈“대”의 의미를 갖으며,악하고 나쁜 것이 아닌 宗廟社稷의 “宗”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배달겨레들이 흔히“뼈대 있는 집안”의 “뼈대”를 나타내는 “宗”이며

異民族인 華河族이 보는 관점에서는 “뼈대=歹”이 가장 무섭고 사나운 종족의

우두머리 핏줄 조상을 나타내는
글자임으로 약2천년전 글자의 뜻을 왜곡하여,현대에 이르고 있다.

용의 얼굴을하고 인간의몸을 갖고 거북이등에 앉아있는 玉璽에 새겨진
文字의 解讀은 東北方의 文化가 傳乘된 古代 宗廟社稷의 “대”를 잇는 “대”자이며
우리 배달겨레의 祖上을 龍과 合一하여 玉璽에 文字를 保存하여 조상들께 제를 올리
고 後世에 남겨 오늘날에 뜻깊은 解讀에 이르렀다.



똑같은 文字가 單龍위의 女神의 玉璽에 彫刻되어있다.
古代 선조들의 뿌리깊은 종묘사직의 대를 잇는다는 뜻에서 玉璽를
만들어 彫刻하고 위의 玉璽들이 祖上神을 表現함을 말하고 있다.



現在の 죽을 “死”는 歹+匕의 합자인데, “匕”는 칼, 날카로운 비수의 의미를 갖고있으며, 또한 사람 “人”의 의미를 갖고 있다.

上 玉璽의 文字는 “歹”의 좌측 상변에 “삐침”이 붙은 것인데, 左上邊에 “삐침”은 古語에서 사람 “人”을 表現함으로 위의 “死”자와 마찬가지로 “양상하게삐만 남은 사람”의 의미로 “죽음”을 의미한다. 上圖 玉璽의 文字가 죽음을 의미하는 “死”자의 原 古語이다.

近, 現代에는 現在の 華, 河族인 漢族들이 周로 漢字를 사용하며, 韓半島의 우리민족들과 日本列島, 기타 東南亞世亞 國家들은 附隨的으로 漢字를 사용하는데, 이는 古代歷史에서는 전혀 다른 兩象을 보이며, 우리 민족인 배달겨레의 帝王文字였으며, 後代에 華, 河族에 傳受되어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歪曲, 添, 削, 加, 減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現在, 사용되는 漢字의 根源은 우리민족 배달겨레의 帝王시절에 만들어져 他族에게 배포되었음을 明白히 알 수 있다.

왜 지금 우리에게 흑피옥 인가?

윤성준 박사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학회 연구위원)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흑피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입니다. 단지 2~30대에 중국 북경대학, 일본의 동경상대(현 히토츠바시 대학), 미국의 덴버 대학에서 수학을 하였고, 러시아가 중심이 된 문화 올림픽의 한국 대표 자격으로 러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는 물론 이러한 러시아의 활동을 돕기 위해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세계 4대 문명에는 B.C. 4000 - B.C. 3000년경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한 최초의 인류 문명 발생지들이 있는데, 나일 강변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이라고 암기하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큰 강의 유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관개 농업에 유리한 물이 풍부하며, 공통적으로 청동기, 문자, 도시 국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지요.

우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흑피옥이라는 유물이 갖고 있는 그 역사성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중국은 21세기 대중화주의 건설을 위해 1996년 5월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유적 발굴과 연구를 추진해, 2000년 9월에 종료했고, 이어서 중국은 2001년부터 ‘중화문명 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라는 새로운 역사 작업을 통해 중국의 신화와 전설의 시대로 알려진 삼황오제의 시대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여 중국의 역사를 1만 년 전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중화 문명이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보다도 오래된 세계 최고(最古) 문명임을 밝힌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요하(랴오허강) 일대를 기존의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서는 1만 년 역사의 새로운 문명권으로 부각시키는 요하문명론(遼河文明論)입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이후 요하(랴오허강) 일대에서 소하서문화(小河西文化, 기원전 7000~6500년), 흥륭와문화(興隆窪文化, 기원전 6200~5500년) 등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중국이 자랑해 온 황하문명보다 요하(랴오허) 문명의 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자 그 동안 중국인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던 동이의 역사를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황하문명이 요하(랴오허) 문명의 지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한족이 자신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야만족이라고 비하하던 東夷(단군을 포함한 우리민족)가 이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기존의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단일문명론에 입각한 중화사상과 중국 문명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민족 역사관으로 바꾸고, 우리의 선조이자 배달민족 단군-치우 등이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이족을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저희 연구회의 정건재 회장님과 저는 80년대 일본 유학시절부터 거의 35년을 알고 지낸 사이이고 저를 홍산문화의 세계로 이끄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어를 전공하시고 일본의 저와 같은 국립대학에서 중국 군벌에 대해 연구하셔서 일본의 MAJOR 출판사에서 그 연구성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할 정도로 탁월한 집중력과 연구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이후 중국의 명문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에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1983년부터 일본유학을 하였는데, 90년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한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일본 전문가가 되고자 중국 북경대학으로 그리고 미국까지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무언가 큰 인연 속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장을 통해 본 발표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류最古의 문명을 만들어낸 동이족 어르신들이 흑피옥을 통하여 저희를 모이게 하고 불러내신 것이 아닐런지요?

천문학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하늘을 여시고 흑피옥 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박석재 박사님, 우리 조선동포 출신이시며 본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금화 대표님은 그야말로 동이족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홍산문화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가장 이 분야의 최고이신 이찬구 박사님과 학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강호의 교수들이 출발이나 분야는 각각 다르지만 흑피옥 연구라는 커다란 테마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이상을 동원한 대한민국 최대의 흥행작 명량을 기획하고 만드신 김한민 감독께서 회장에 버금가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본 연구회 감사로 취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저희 연구회의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 분야의 초짜도 있습니다. 지난 5월24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김두관 의원님을 뵈고 저희 회장단이 인사를 드렸고 이번 행사뿐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지

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2017년에 국회에서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

저희는 흑피옥이라는 엄청난 유물들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특히 일본 중국과도 협력하며 동아시아를 오히려 하나로 묶어내는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행히 동이족을 자국 문화로 편입 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시시비비는 가려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도 과거 오랜 세월 동안 형제의 나라였고 실제로 백제 왕손이 일본의 지배 계급이 되었음은 물론 천황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 齊明 천황 때 백제를 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5만의 군사를 보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백촌강 전투) 또한 구마모토 지역에는 단군을 모시는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학회 출범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긍정과 협력의 역사를 찾아내고 반목과 증오의 역사를 극복하고 승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1981년 개봉된 인디애나 존스의 영화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존스박사가 되셔서 실제 존재했던 인류 최고문명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각 작품마다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하나하나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노력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그분들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공과도 공유할 것입니다

만년이 넘는 새로운 연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흑피옥을 남겨주신 동이족 조상들께 그분들이 만드신 찬란했던 문명을 고증을 통해 밝혀내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반드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사이먼 김 한얼연구소장의 한얼 역사관 이야기(Los Angeles 스포츠서울 USA 연재)

한얼 역사관, 한얼 정신의 회복 2018-09-27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 천년을 함께 살고 70 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지난 9 월 19 일 북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새삼 한얼역사 정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바른 역사관이 국가의 혼이다’라고 단군세기 서문을 쓴 이암 선생이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겹쳐 떠올랐다.

왕검단군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국가 이념으로 고조선을 건국한 때는 기원전 2333 년이었다. 그보다 1564 년 전 환웅천제가 배달국 신시를 열었으니 배달겨레 반만년(실제로는 5915 년)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한민족 6000 년 역사가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반토막 난 2500 년 역사로 평가절하되고 말았다.

한얼역사관은 우리 민족만이 최고라거나, 역사가 장구하고 영토가 넓다고 자부하는 국수주의 사관이 아니다. 우리 민족 역사의 시원을 바로 알고 한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일 따름이다. 고고학으로, 역사서로 증명되는 고조선 문명에 대해 바른 역사관을 세우자는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적 공존과 경제 번영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선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 4351 주기 개천절을 맞아 남북한 배달겨레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몇가지 제언한다.

첫째, 동아시아 고대사의 중심에 있는 고조선 문명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 국조 단군이 신화가 아닌 역사 인물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하문명보다 1000 여년이 앞선 고조선을 재조명해야 한다. 때마침 신용하 교수와 5 인의 학자들이 개천절 즈음해 서울에서 고조선 문명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식민사관을 벗어나 대중 일반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이다.

둘째, 유교, 불교, 선도, 기독교 등을 아우르는 종교적 포용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급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역지사지', '호연지기'같은 사자성어가 있었다. 한국인의 일상에 체현되어 종교적 의미가 퇴색한 유교가 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살아남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민족 특유의 유불선기 사교회통의 유전자를 발휘해 종교적으로 도그마화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내려놓아야 한다. 또, 권력과 부를 독점한 소수 갑질 인간들로 오염된 극단의 물신주의 경향도 제어해야 한다.

셋째, 서로 다른 이념과 진영으로 반목하는 역사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말자. 촛불혁명에 대항하는 태극기 집회처럼, 진영논리에 빠져 살아온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용공 반공의 이분법이 사라져야 한다. 한민족의 편가르기가 사라지고, 남한과 북조선의 차별마저 없어지게 될 통일시대를 여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남과 북이 동일한 역사의 뿌리를 확인하고 한민족 고유의 한얼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함께 살 길이다.

흑피옥과 마고문명 (2018-12-21)

그간 필자는 한얼역사 칼럼을 통해 바꿔야 할 역사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우리 한국인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배달민족 단군의 자손이라고, 대한민국 역사무대는 한반도 내지 남한의 일부 지역에 갇혀있는 소한이 아니라 만주와 산둥성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대한이라고, 왜곡된 일제 식민사관과 과대표장된 중국의 사대사관을 벗겨야 우리 조상의 역사가 바로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오늘은 한국인의 시원을 찾는 5000 년의 역사 주제를 넘어서, 1 만년 전을 바라보는 '흑피옥과 마고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한다.

중국의 문명은 그들이 오랑캐 취급했던 동북방지역의 고조선 문명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하 교수가 주장하듯 '황하문명보다 앞선 고조선 문명'이라는 발상은 아직 학문적 검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 세대 전까지 어불성설이었다. 북경대학 고고학과 소병기 교수가 소위 Y 벨트 이론을 내세워 만주와 내몽골 지역의 고조선 문명과 황하 문명의 교류에서 중국문명이 비롯되었다는 주장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중국역사 탐원공정,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논리를 또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역사관이 신화로만 취급되는 마고문명이다.

내몽골지역에서 출토된 흑피옥 유물은 1 만년 이전의 서해지역 마고문명(모계문명)을 계승한 한국 고문명이라고 보여진다. 흑피옥이 나오는 지역은 한국 혹은 중국만의 고대문명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인류 최고의 고대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다. 고고학적 유물로서 현존하는 흑피옥들은 고조선이 동아시아 문명은 물론 현 인류문명의 시원문명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홍산문화에 기반을 둔 발해 연안의 요하문명에 앞서 마고문명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출토된 흑피옥은 그 생산연대가 7000~8000 년 전까지 소급된다. 마고문명에서 비롯된 한반도, 만주, 요서, 산둥지역의 동이문명은 동방족의 주역이 된 황하, 대문구, 슈메르 문명 나아가 이집트, 잉카, 마야, 아즈텍 등 현 인류문명의 시원문명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고인돌의 80% 정도가 만주와 요동, 그리고 한반도 지역에 산포돼 있다고 한다. 10 만년 전 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원생인류 유전자 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동으로 동으로 이동하다가 한반도 근처에 와서 멈추어 신석기 시대 전성기를 구가하는 걸로 여겨진다.

신용하 선생의 주장대로 인류의 조상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어둠과 추위를 피해서 밝고 따뜻한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대장정을 계속한 것이리라.

(*박용숙 선생의 두 권의 저술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아시아와 지중해 문명은 우리 조상 샤먼의 영향으로 꽃피웠다는 가설. 신용하 선생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 추위를 피해 햇살 밝고 동굴이 많은 한반도로 몰려든 인류가, 기후가 풀리자 동굴에서 나와 한반도 한족, 만주족 예족, 요하족 맥족으로 뿔어나갔다는 가설.)

<조선 상고사> 역사연구 방법론 요약

丹齋 신채호 (1880 - 1936)

1.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마음의 활동상태의 기록이다. 세계사는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는 조선 민족이 그렇게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아와 이에 맞서는 비아의 아가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으로, 시간 속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으로, 공간 속에서 영향의 파급이다.

이제 조선사를 서술함에 조선 민족을 아의 단위로 잡되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 우리의 생장 발달 상태를 서술의 첫째 요건으로 하고, 그리하여

- 1) 첫 문명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 2) 역대 강역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는가?
- 3) 시대별 사상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 4) 민족의식이 어느 때에 가장 왕성했고 어느 때에 가장 쇠퇴했는가?
- 5) 여진, 선비, 몽골, 흉노 등이 본래 우리 동족으로 어느 때에 분리되었으며, 분리된 후 그 영향이 어떠했는가?
- 6) 우리의 현재 지위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나. 우리의 상대자인 주위 각 민족과의 관계를 서술의 둘째 요건으로 하여

- 1) 우리와 분리된 흉노, 선비, 몽골과 우리 문화의 포대기 속에서 자라온 일본이 본디 과거에는 우리와 하나였으나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사실과
- 2) 우리가 인도에서는 한 손 거쳐서, 중국에서는 곧바로 문화를 수입했는데, 수입 분량이 많아지면서 민족의 활기가 시들고 강역 범위가 줄어든 까닭

- 3) 오늘 이후는 서구문화와 북유럽 사상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조선은 그 문화 사상의 노예가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인가, 또는 그를 잘 씹고 소화해서 새 문화를 건설할 것인가?

등을 서술해서 위의 가와 나 두 가지를 본 역사의 기초로 삼고

- 다. 말과 글 등 우리 사상을 표현하는 연장이 날카로운지 둔한지, 어떻게 바뀌었으며
- 라. 종교가 오늘 이후에는 거의 가치 없는 폐물이 되었지만, 고대에는 확실히 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관건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관한 추세가 어떠했으며
- 마. 학술, 기예 등 우리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한 부분은 어떠했으며
- 바. 의식주 형편과 농상공 발달, 토지분배와 화폐 제도, 그 밖의 경제 조직 등이 어떠했으며
- 사. 인민의 이동과 번식, 또 강토의 늘고 줄어듬에 따라 인구는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으며
- 아. 정치 제도 변천
- 자. 북벌 진취의 사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섰는지
- 차.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유한 각 계급간 압제와 서로 대항한 사실, 그 성해지고 쇠퇴함
- 카. 지방 자치제가 태고적부터 발생했는데, 근세에 와서는 형식만 남기고 정신이 사라진
원인과 결과
- 타. 외세 침입에서 받은 거대한 손실과, 그 반대로 끼친 다소의 이익
- 파. 흉노, 여진 등이 한 번 우리와 분리된 뒤에 다시 합쳐지지 못한 까닭
- 하. 옛날부터 우리에게 문화 창작이 적지 않았지만 매양 동떨어지거나 별개의 것이 되고 계속 이어지지 못한 괴이한 원인 등을 힘써 참고하면서 논술함으로, 위의 다, 라 항 이하 여러 문제를 본 역사의 요목으로 삼아 일반 역사를 읽는 이가 조선의 면목을 만의 하나라도 알게 하려고 한다.

2. 역사의 3 대 원소와 옛 조선사 결점

조선에 조선사라 부를 수 있는 조선사가 있었는가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짓다가 잦은 내란과 외적 출몰이 동국의 옛 역사를 흔적도 없게 하였음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침보다는 바로 조선사를 저술하던 그 사람들 손에 의해 더 없어졌다고 본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란 앞에 쓴 것과 같이, 시간적 계속과 공간적 발전으로 이루어진 사회 활동 상태의 기록이므로 때, 곳, 사람 세가지는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원소가 되는데, 이 원소들이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조선 역사가들은 늘 역사를 자기 목적의 희생으로 만들어서 도깨비도 떠움기지 못한다는 땅을 떠움기는 재주를 부려 졸본을 떠다가 영변에 갖다 놓으며, 안시성을 떠다가 용강 또는 안주에 갖다 놓으며, 아사산을 떠다가 황해도 구월산을 만들며, 가슬라를 떠다가 강원도 강릉군을 만들었다.

조선사를 지은 과거 조선 사가들은 늘 조선의 흑을 베어 내고 조선사를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쓴 안경이 너무 볼록해서, 조선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같은 것을 흑이라 하여 베어 버리고, 어디서 수많은 진짜 흑을 가져다가 붙여놓았다. 조선인이 읽는 조선사나 외국인이 아는 조선사는 모두 '흑 붙은 조선사'요, 옳은 조선사가 아니었다.

3. 옛 조선의 종류와 그 득실 약평

신지는 수두 임금의 수좌인 벼슬 이름이다. 역대 신지들이 해마다 10 월 수두 대제에 우주 창조와 조선 건설과 산천 지리의 명승과 후세 사람이 거울삼을 일을 들어 노래했다.

고려사 <김위제전>에 부소량 오덕지 백아강 세 곳을 들어 저울대, 저울추의 비유로 삼한을 이야기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군왕검의 이름과 삼한, 부여의 약사가 <위서>에 다 실려 있음은 위나라 사람이 <유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동, 북 두 부여를 떼어 버려 조선 문화가 유래한 곳을 진토 속에 묻고, 발해를 버려 삼국 이래 결정된 문명을 초개 속에 던져 버렸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설>은 비록 수십 줄 간단한 논문이지만 일반 사학계에 큰 광명을 열었다. 안정복은 한백겸의 간단한 지리설을 부언하였을 뿐이다.

류혜풍의 <발해고>는 대씨 3 백 년 동안 문치와 무공의 사업을 수록하여 1 천 여 년이나 사학가들이 압록강 이북을 베어버린 결함을 보충하였고, 이종휘의 <수산집>은 단군 이래 조선 고유의 독립문화를 노래하여 김부식에서 시작된 사학가의 노예사상을 갈파하였다.

우리 사학계가 이처럼 눈멀고 귀먹고 절름발이 등 온갖 병을 죄다 가져서 정당하게 발전하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 너무 자주 내란과 외환과 자연 재난이 잦았던 것은 그만 두고라도, 인위의

장애를 이룬 것을 들건대,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것을 구하여 조선 사학계의 표준을 세움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4. 사료 수집과 선택

- 1) 옛 비석 참조에 대하여: 광개토대왕 비문과 집안현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
- 2) 각 서적의 상호 증명에 대하여: 당나라 30 만 침입군이 고구려의 종교적 무사단인 선인군에게 크게 패하였다는 몇십 자 약사를 6-7 가지 서적 수집 권을 뒤진 결과 알아냈다. “당태종이 보장왕 3 년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하여 돌아가서, 당시 외과 치료가 완벽하지 못해 거의 30 달을 앓다가 보장왕 5 년에 죽었다.” 이 수집 자의 결론을 얻기에도 5, 6 종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읽어 보고, 들며 나며, 또는 무의식 가운데에서 얻어낸 것이다.
- 3) 각종 명사 해석에 대하여: <동사강목> 고이에 삼국유사의 요하 (일명 압록) 기록이 있고, 또 주희가 ‘여진이 일어나 압록강에 웅거하였다’고한 예를 들어 “세 압록이 있다”고 하였음을 보고, 송화강이 고대에 한 압록강이었음을 알고, 따라서 해모수 부부가 만난 압록강이 곧 송화강임을 굳혔다.
- 4) 위서 판별과 선택에 대하여: 본서의 위증은 인적, 물적, 논리적 증거에 의해 판별되어야 함.
- 5) 만주, 몽골, 터키 여러 종족의 언어와 풍속 연구: 왕을 한(汗)이라 함이 삼국의 간(干)과 같고, 벼슬 이름 끝 글자에 치라는 음이 있음을 알았다. 조선, 만주, 몽고, 터키 네 종족들이 현재 쓰고 있는 말로 같은 것이 수십 종이 있음을 보고 네 가지 말은 같은 계통 언어라는 단안을 내렸다.

5. 역사 개조에 대한 우견

- 1) 그 계통을 찾아야 한다: 고려에까지도 국선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단군 이래 민족 고유의 하나의 계통을 찾는 방법의 한 예이다.
- 2) 그 회통을 구해야 한다: 금은 원래 백두산 동북의 여진 부락으로서 우리에게 복종하던 노민(奴民)이었는데, 갑자기 강성해져서 형제 위치로 바뀌었다.

- 3) 심습(잘못된 습관적 사고)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 총무공 철갑선에 대한 영국 해군부의 '세계 철갑선의 비조'라는 보고는 장갑선의 비조라고 바뀌어야 한다.
- 4) 본색을 보존해야 한다: 중국에 선전하고 요동 옛 땅을 회복하려 함이 이루어질 일인가 실패할 일인가, 성패 간에 그 결과가 이로우까 해로우까? 조선이며 만주며 터키며 헝가리가 3 천 년 전에는 다 뚜렷한 혈족이었다.
- 5) 역사 개조에 대한 나의 우견: 민족에게는 두 가지 개성이 있으니, 그 하나는 항성이요, 다른 하나는 변성이다. 항성은 제 1 의 자주성이요, 변성은 제 2 의 자주성이니, 항성이 많고 변성이 적으면 환경에 순응치 못하여 절멸할 것이요, 변성이 많고 항성이 적으면 강한자에게 정복당하여 패할 것이니, 늘 역사를 회고하여 두 가지 자주성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고, 무겁고 가벼움을 고르게 하여, 그 생명이 천지와 한 가지로 장구하게 하려면 오직 민족적 반성에 기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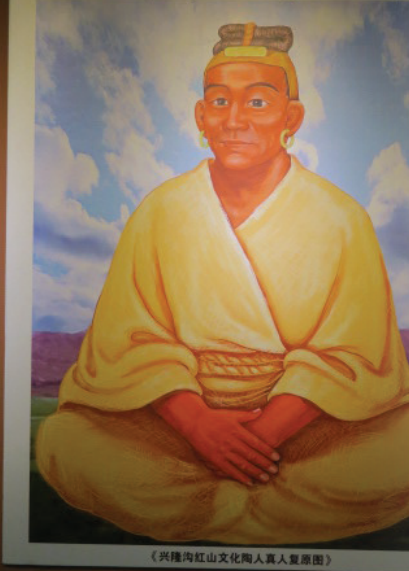


天符經

齊樂三石一蚩來蚩一
 一 = 一 一 一 天 齋 盞
 九 區 食 銀 一 酥 一 三 一
 = 一 三 = 一 三 = 一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五千年“王者”归来



《兴隆沟红山文化陶人真人复原图》

2021년 제 24차 한얼학술대회 예고:
 21세기 배달민족의 신명과 천부경 속의 한얼





사실 고조선의 정통 후예들은 아직도 내몽골 적봉, 조양에 살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들이다. 단군세기의 무대이고, 흑피옥이 발굴된 곳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우하량 홍산문화 지역을 답사했을 때, 적봉 대학의 우건설 교수가 참석자들에게 기장죽을 권하며 6천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먹었던 바로 그 음식임을 강조했다.

삼신과 천제문화로 한족, 예족, 맥족을 통합한 고조선이 환단고기 역사서의 주인공이다. 고조선의 후국으로서 북부여가 성립되고, 요동과 요서, 만주 지역에 국가 형태로 자리잡은 제국들, 특히 고구려와 각축한 선비족 연나라도 고조선 역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족과 맥족 그리고 말갈족 연합국인 고구려 또한 당연히 고조선 후예랄 수 있다. 훗날 거란족의 요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청나라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한국만 고조선 역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로는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 국가 요소를 갖춘 고조선의 후손국은 오로지 한국 뿐이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은 한 때 중원을 차지하고 한족들을 지배했지만 이제 중국인으로 동화되었고, 자신들의 영토조차 중국에 헌납한 셈이 되었다. 중국이 분열되고 다시 주권을 회복할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만주 고토는 한국에 의해 회복될 것인가? 그곳을 한국의 영토라고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듯 고조선 역사 점유권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조선 문명을 기축으로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써야한다. 한얼 단군의 후손인 우리들은 환단고기적 역사 상상력과 흑피옥의 고고학적 가치를 살려 대조선을 복원시킬 의무가 있다.

〈한얼연구소 김철호 소장 인사말 중에서〉